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석사 학위논문

읽자, 쓰자, 연결되자

: 폐미니즘 책모임 ‘위폐’의 리터러시 실천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권 은 채

읽자, 쓰자, 연결되자

: 폐미니즘 책모임 '위폐'의 리터러시 실천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

지도교수 강 윤 희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권 은 채

권은채의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정 향 진 (인)

부위원장 강 윤 희 (인)

위 원 안 준 희 (인)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BK21플러스 연구장학금>과
2021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내산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This work has been supported by <Korea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Grant>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Anthropology Department's <Development Fund Scholarship>.

초 록

본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함께 나타난 페미니즘 책모임에 대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온라인을 통해 만나 책을 읽고 교류하는 실천과 그러한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의 성격과 의미를 탐구하였다. 2000년대부터 발달해온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토대로 대중화의 일로로 들어선 한국의 페미니즘은 2015년을 기점으로 온라인 페미니즘이라 불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페미니즘 도서가 출판 시장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SNS에서 감상을 공유하고 책모임을 여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집합적 읽기 실천이 나타나고 있다.

페미니즘 책모임 ‘위페’는 2020년 여름 만들어진 모임으로, 20대와 30대의 한국인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멤버들은 ‘위페’와 같은 모임을 통해 페미니즘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직접 만나 페미니즘 도서를 읽고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하고 있었다. 또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획득할 수 없는 ‘깊이 있는’ 페미니즘 지식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페미니즘 책모임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위페’ 멤버들은 리터러시 실천을 통해 ‘위페’를 페미니즘 공간으로 만들며 개인적 경험을 ‘여성’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적 언행에 저항할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개인적 경험과 질문을 중심으로 쓰인 발제문을 안내서로 삼아, 정기 책모임에서는 참여자 각자의 내밀한 경험이 책 속의 사례, 저자의 논지 및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정치적 맥락과 연결되어 반복적으로 발화됨으로써 멤버들의 개별적 일화가 ‘여성’의 경험으로 일반화되었다. 나아가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는지, 그리고 한국의 깊은 여성의 마주하는 일상 속 차별적 언행에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 또는 논리 여부를 기준으

로 함께 읽은 책을 평가하며 저항적 말하기의 전략을 모색하고 연습하였다. 이러한 리터러시 실천을 통해 ‘위폐’는 안전하게 여성의 경험을 토로하고 정치적 저항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페미니즘적인 공간이 되어 간다.

하지만 ‘위폐’의 멤버들은 애초에 기대했던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넘어서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미완의 친숙성을 유지하게 된 것은 페미니즘이라는 모임의 정체성으로 인해 서로의 일상적 삶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호칭인 ‘님’과 존댓말의 대칭적 사용, ‘하이퍼링크’를 공유하기만 하는 온라인 채팅방의 의사소통 방식은 개인적 사정을 존중하고 위계 없는 평등함을 드러내는 행위로 해석되었다. 또 소극적 참여자를 대하는 관망에 가까운 태도 역시 페미니즘 소모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태도로 해석되고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는 ‘위폐’의 멤버들이 친밀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가벼운’ 공동체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제가 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위폐’는 대중의 페미니즘 실천과 페미니즘 ‘백래시’가 뒤얽힌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개별 멤버들에 의해 연결되는 페미니즘 네트워크 속 구심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 책모임에 참여하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책모임을 통해 리터러시 실천과 사회적 관계가 페미니즘 지식의 학습과 연대 의식의 함양이란 기대와 목표를 충족하고 있음을 밝혔다. 페미니즘과 이에 대한 ‘백래시’가 공존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온라인에 흩어진 젊은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안전한 곳에서 내밀한 이야기를 통해 연대를 확인하고 만들고자 한다. 페미니즘 책모임은 이 여성들이 공감과 연대를 기대하는 곳으로, 스스로 참여를 통해 페미니즘 지식을 학습하고 정치적 저항의 자양분을 축적하며, 페미니즘이란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비록 페미니즘적 공간과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페미니즘 책모임의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방해하는 기제가 되고 있지만, 친숙성을 달성

하지 않고도 공감과 연대라는 기능은 유지되고 있었다. ‘위페’ 와 페미니즘 책모임이 해체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 자체는 요원하더라도 내밀한 경험을 고백할 수 있고 일시적이나마 강렬한 연대감과 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페미니즘 책모임의 의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미완의 친숙성을 유지하는 현상과 별개로 ‘위페’ 의 멤버들은 서로 관여하며 의지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위페’ 와 같이 낯선 사람이 페미니즘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모인 페미니즘 소모임이 공동체로서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소모임에 대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사례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한국, 실천공동체, 리터러시 실천, 사회적 관계, 페미니즘, 페미니즘 책모임

학 번 : 2019-24442

목 차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1) 리터러시(literacy)	5
2)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와 참여를 통한 학습	9
3) 언어와 젠더, 그리고 페미니즘	12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5
1) 연구 대상	15
2) 연구 방법	20
4. 논문 구성	22
II. ‘위폐’의 민족지적 배경	23
1. 온라인 페미니즘과 ‘위폐’의 기반	23
1)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페미니즘의 대중화	23
2)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의 발달	26
3) 온라인 페미니즘과 ‘백래시(backlash)’	30
2. 온라인에서 찾은 오프라인 책모임	33
1) ‘위폐’의 탄생과 발전	33
2) 소셜미디어의 개별성을 넘어선 관계 추구	36
3) ‘책’ 이어야 하는 이유	40
III. 페미니즘 지식 학습과 페미니즘 공간 만들기	44
1. 책 속 문장의 체화	44
1) 문장에 흔적 덧입하기	44
2) 옮겨 적기를 통한 책의 해체와 재구성	48

3) 책모임의 안내서 - 발제문의 구성	54
2. 정기 책모임의 이야기 구조와 리터러시 실천	60
1) 책을 통한 자기 서사의 구성	60
2) ‘위폐’의 바깥에 관한 이야기	67
3) 침묵의 조정	73
3. 저항적 말하기의 탐색	79
1) ‘책’에 대한 평가	79
2) 저항적 언어 연습하기	84
3) 각자의 전략 공유하기	88
 IV. ‘위폐’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로서의 가능성 95	
1. ‘가벼운(light)’ 공동체 ‘위폐’	95
1) ‘가벼운’ 공동체	95
2) 호칭어 ‘님’과 존댓말 사용	99
3) ‘하이퍼링크(hyperlink)’ 공유하기	105
2. 익명성과 친밀성의 줄다리기	111
1) 소극적 참여자들	112
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만들기	115
3) 미완의 친숙성	120
3. 페미니즘 책모임의 의의와 지속 가능성	125
1) 페미니즘 네트워크의 구심점	125
2) “해변을 떠나지 않는 모래알들”	129
 V. 결론	133
 참고문헌	140
Abstract	153

표 목 차

[표 1] ‘위폐’의 정기 책모임 일정	19
[표 2] 연구참여자 정보	20
[표 3] ‘위폐’의 호칭어 사용 방식	101

그 림 목 차

[그림 1] 책갈피 활용 예시	46
[그림 2] 이경이 직접 적은 메모들	47
[그림 3] 초승의 옮겨적기 사례	49
[그림 4] 정기 책모임 3-2 발제문 중 ‘질문’ 항목 (발제자: 이경)	59
[그림 5]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대화 사례	107

I. 서론

1. 문제 제기

현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빼놓을 수 없는 대중적인 이슘이다. 2000년대부터 발달해온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토대로 대중화의 일로로 들어섰던 한국의 페미니즘은 2015년을 기점으로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5)’, ‘페미니즘 열풍(김주희 2017)’, ‘페미니즘의 재부상(김보명 2018)’ 등과 같은 명칭은 페미니즘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중적인 화두로 새롭게 떠올랐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오혜진 2019: 2). 이른바 ‘온라인 페미니즘’이라 불리는 페미니즘의 새로운 국면은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주요한 페미니즘 담론의 생산과 실천의 장으로 삼았고, 온라인의 개별성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여성 또는 페미니즘에 관한 다양한 사건과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온라인 페미니즘에 참여하는 개별화된 주체들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 되었던 기존의 여성운동 주체와 다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느슨한 연대 또는 연결 의식을 만들고 있다(김리나 2017; 김은주 2019; 박채복 2020; 윤보라 2014).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대중을 페미니즘이라는 영역 속으로 불러들여 연결하고, 이러한 연결은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수단이자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출판 시장에서도 페미니즘은 하나의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었다. 인터파크 도서에 따르면 2015년 2월을 기준으로 페미니즘에 관련된 도서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21.2% 증가했으며¹⁾, 온라인

1) 파이낸셜뉴스, “인터파크 도서, “페미니즘 논란에 관련 서적 판매 급증” ” (2015.2.25.일자, 2020.09.11. 접속)

서점인 예스24는 2016년의 출판 키워드 네 개 중 하나로 페미니즘을 꼽으며 여성·젠더 및 페미니즘 분야의 서적의 판매량이 전폭적으로 상승하였다고 보고했다.²⁾ 이 외에도 많은 기사가 2015년 이후로 여성, 페미니즘, 젠더 등을 핵심 주제로 삼는 도서의 출판이 활발해지고 20대 여성 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³⁾ 이와 같은 “페미니즘 도서 열풍”은 일상과 사회의 면면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폭력을 페미니즘이라는 관점을 통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는 기대와 경험이 축적되고, 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페미니즘과 관련된 개념, 지식, 역사 등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욕구가 분출된 결과이다(조혜영 2017: 305). 특히 최근 한국의 페미니즘 담론에서는 2030대 젊은 여성의 일상적 경험과 밀접한 주제가 중심이 되는 만큼(김보명 2018: 101) 쉽게 읽을 수 있는 교양서나 강연을 글로 옮겨 출판한 강연록 형식의 저서, 또 저자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나 소설과 같은 장르의 도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페미니즘 도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출판 및 소비되는 현상은 그간 운동계와 학술계를 중심으로 생산되었던 페미니즘 지식과 담론이 책을 통해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 도서의 양과 질이 대폭 상승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페미니즘 도서를 읽는 실천의 행태와 양상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작금의 페미니스트 대중은 자신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책 또는 읽기 경험에 관해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

<https://www.fnnews.com/news/201502251458302866>

2) 채널예스(집계 기간 2016.1.1~11.30). (2020.08.31. 접속). 예스24에서 꼽은 2016년의 출판 키워드는 혼자(Single), 북돋다(Encourage), 자유민주주의(Liberal), 그리고 페미니즘(Feminism)의 영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온 “SELF”이다. <http://ch.yes24.com/Article/View/32212>

3) 경향신문, “‘응답하라’ 20대 여성들, 페미니즘 도서 열풍 이끈다,” (2016.8.9일자, 2020.8.31. 접속)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1608092100015>,

동아일보, “스타 작가 속속 귀환 ‘이름값’... 페미니즘 도서 거센 열풍,” (2017.12.21.일자, 2021.11.19. 접속)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1221/87844252/1>

는 등 집합적 읽기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페미니즘 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독립서점 또는 동네서점의 등장과 더불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페미니즘 도서를 읽는 책모임 또는 글쓰기 모임, 저자를 초청하는 강연이나 북토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여성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직적인 단체나 기관에 속하지 않은 채 온라인상을 부유하는 “독학자들”은 페미니즘 도서와 SNS를 통해 느슨하게 연결되며 집합적인 읽기 실천을 수행하고 있었다(김주희 2017). 온라인상의 “각개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조직적인 페미니즘 실천으로 나아간 근래 한국 페미니즘 대중 주체를 일컬어 “독학자 페미니스트”라고 부른 김주희는 이들이 온·오프라인에 관계없이 공론장을 오가고, 토론을 지속할 언어의 근원이자 수단으로서 페미니즘 도서를 활용함으로써 페미니즘 지식의 재생산과 재의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김주희 2017: 362). 정고은(2017)과 김소라(2018) 역시 페미니즘 도서를 읽는 실천이 개인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페미니즘 도서를 매개로 만들어지는 모임을 통해 독자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 연대 의식이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소라 2018: 241; 정고은 2017: 181-182).

이처럼 기존의 저술들은 이른바 “페미니즘 도서 열풍”, 또는 페미니즘 도서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독서 행위가 가진 함의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 열풍 속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행태에 관해서는 논의의 출발점을 안내하는 데서 그친다(김주희 2017; 정고은 2017; 조혜영 2017; 황정미 2016). 이를 연구는 근래 주목을 받는 페미니즘 도서의 내용과 경향을 분석해 이 도서들이 독자의 관심과 인기를 끄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작금의 한국 페미니즘 담론을 이루는 의제와 방향성을 정리하거나(정고은 2017; 조혜영 2017; 황정미 2016), 새롭게 등장한 집단적인 읽기 실천이 정치적 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예견하고 있지만(김소라 2018; 정고은 2017),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독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러한 독서 행위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꼼꼼히 들여다보진 않고 있다. 아직까지 페미니

증 도서를 함께 읽는 실천과 이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연대 의식’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운동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운동가, 활동가, 그리고 대학생들끼리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페미니즘 도서를 읽고 함께 토론하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해온 사실은 있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 책을 읽고 교류하는 모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페미니즘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인 소통을 지속하는 모임을 찾고, 만들고, 이에 참여하는 현상은 일견 온라인 페미니즘의 익명성 및 개별성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를 통해 페미니즘 담론을 접하고 학습하며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서서 소통하고 있음에도 책을 읽고, 이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본 논문은 이른바 페미니즘 책모임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로서, 집합적 읽기 실천이 이루어지는 강연, 북토크, 소셜미디어의 후기 공유, 책모임 등 다양한 형태 가운데 특히 책모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읽기의 실천과 모임에 참여하는 멤버들의 사회적 관계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페미니즘 책모임에서의 읽기 실천, 또는 리터러시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앞선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온라인상의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대중화된 현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소모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자명하다(김은주 2019: 11; 김소라 2018; 김주희 2017). 여러 종류의 소모임 중에서 책모임은 책, 다시 말해 페미니즘 도서를 매개로 페미니즘 지식과 담론을 공유 및 학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교류나 소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소모임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책이라는 매개와 책을 읽는 실천은 모임의 주요 활동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멤버들의 페미니즘 지식 학습부터 의사소통의 방식, 나아가 사

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페미니즘 책모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성격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읽기 행위는 개인의 인지적 차원에서 문자로 쓰인 글을 독해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이 페미니즘 도서의 주제, 내용, 저자, 책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소비 등에 관해 소통하는 집합적 읽기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책모임이라는 형태는 정기적인 만남을 전제로 지속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익명적이고 유동적인 관계와 그 성격이 다르다. 또 페미니즘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페미니즘 소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공감과 연대를 기대하고 이를 목표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위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통해서 현대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책모임이 익명적이고 개별적인 온라인 네트워크 안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페미니스트 주체들과 실천을 이어주는 가교이자 구심점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페미니즘 도서를 읽고, 이에 관한 발제문을 쓰고, 책과 발제문을 매개로 개별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페미니즘 관점으로 각자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책모임의 리터러시 실천은 ‘각개전투’ 하는 참여자 개개인을 집단으로서 여성 및 페미니즘 네트워크와 연결해주는 페미니즘 책모임의 핵심적인 실천이다. 이러한 리터러시 실천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은 상호 간에 ‘안전한’ 관계를 만들고, 이러한 관계는 참여자가 이 책모임을 떠나게 되더라도 다른 종류의 페미니즘 실천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이 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리터러시(literacy)

인류학에서 리터러시(literacy)에 관한 연구들은 언어의 상대성과 다양

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언어생활이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는 언어 인류학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리터러시(literacy)’라는 용어는 문해력(文解力) 또는 문식성(文識性)으로 번역되며, 문자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부터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추었다는 의미를 포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정의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서 개인의 비판적인 정보 해독 및 활용 능력을 정의할 때 영문 표기를 그대로 옮긴 ‘리터러시’가 사용되기도 한다.⁴⁾

초기 인류학에서 리터러시는 구술 언어와 구별되어, 문자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 능력의 여부를 기준으로 문명과 야만을 구별하고 인간이 구술 사회에서 문자 사회로 이행하며 인간의 사고방식에 진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한다(Besnier 1995: 1). 인간 언어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은 음성을 매개로 하는 구술 언어와 시각적 기호 체계를 매개로 하는 문자 언어를 별개의 언어 실천 양식으로 보고, 문자 언어 사용에 따라 인간의 사고가 진화했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옹, 2018[1982]).

하지만 구술 언어와 문자 언어의 사용 범주를 일상적인 상황에서 구별하기에는 상당히 모호하다. 말하기 · 듣기라는 구술 언어의 실천과 읽기 · 쓰기라는 문자 언어의 실천은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바튼 2014: 154). 다시 말해, 비록 리터러시가 문자 언어를 비롯한 여러 시각적 기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실천이라 하더라도, 그 실천은 구술 언어 실천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리터러시의 양상과 의미는 구술 언어 실천을 비롯한 여타 사회적 실천 및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일례로, 디지털 · 미디어 환경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컬어 디지털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칭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건강과 의료 지식을 획득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컬어 ‘헬스 리터러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류학에서의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는 특정한 사회 안에서 리터러시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그 안의 사람들에게 리터러시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리터러시는 여러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정한 사회 또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이질적인 리터러시가 나타날 수 있다(Besnier 1995: 5). 스트리트는 근본적으로 문자 언어와 구술 언어를 분리하는 관점을 리터러시에 관한 자율 모델로 규정하고, 이 자율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리터러시와 사회문화적 맥락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리터러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모델을 주장하였다(Street 1984). 이후 리터러시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들은 스트리트의 이데올로기적 모델을 따라, 리터러시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리터러시를 수행하는 주체와의 관련 속에서 리터러시의 실천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의 누쿨라엘라에 환초(Nukulaelae atoll)의 리터러시를 연구한 베스니에는 누쿨라엘라에에서 젠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 감정의 표출이 주민들의 리터러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주변 환초들 사이에 카누를 통해 교류하는 환초 주민들은 다른 섬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지와 손편지를 주고받는다. 섬 바깥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자기 자신과 섬 바깥의 소식, 그리고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그리움을 주로 적어 보낸다. 손편지는 주민들을 섬 외부의 세계와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면서, 해당 사회에서 남성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감정적 친밀성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 중 하나이다(Besnier 1995: 5장 참조). 또 교회의 목사가 쓰는 설교문과 실제 예배에서 행해지는 설교의 관계는 구술 언어 실천과 문자 언어의 실천이 상호작용하며 리터러시의 의미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목사가 직접 쓴 설교문은 종교적 ‘진리(the truth)’를 전달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고, 구술로 수행되는 설교는 이러한 권위를 가진 설교문을 기반으로 수행되면서 진리를 전하는 구술 설교의 권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Besnier 1995: 7장 참조).

네팔의 사회 변동과 젠더 질서에 관한 에이현의 연구 역시 스트리트의

이데올로기 모델을 수용하며,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의 궤적과 가능성을 구성하고 정의하는 이데올로기 또는 제도가 리터러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리터러시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탐구한다(Ahearn 2001a: 47). 개인의 행위성과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에 관한 실천 이론에 기반을 둘으로써(Ahearn 2001b), 에이현은 점차 여성 문해 교육이 확산되고 인도와 서구의 대중문화가 유입되어 기존의 젠더 질서가 흔들리는 1990년대 네팔 사회에서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리터러시 실천이 짊은 세대의 행위성(agency)을 강화하는 기제라고 주장한다. 에이현에 따르면, 연애편지 속의 ‘사랑(love)’ 담론은 사랑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사랑을 ‘하는’ 존재로서 개인의 행위성을 강조한다(Ahearn 2001a: 149). 이는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네팔의 기존 젠더 질서와 대비되는 담론이다. 연인 간에 주고받는 연애편지뿐 아니라 네팔 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한 서구, 인도의 영화 포스터나 잡지 등에 담긴 사랑의 담론 역시 기존의 젠더 질서를 흔들고 개인의 행위성을 강화하는 리터러시 중 하나이다.

이처럼 인류학에서의 리터러시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 및 구술 언어와 밀접하게 연관된 실천으로 리터러시를 조명하고, 해당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리터러시의 형태와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리터러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이 몸담은 사회를 이해하고 표상하는 체계이자 세계에 존재하는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매개이며, 자신이 세운 삶의 목표와 과정을 만들어나 가기 위해 동원하는 자원이기도 하다(바튼 2014: 67-68).

본 논문은 앞선 연구들이 취했던 리터러시에 대한 이데올로기 모델을 따라가되, 리터러시를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실천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리터러시 실천(literacy practice)을 사람들이 문자 언어로 쓰인 글을 선택하고, 읽고, 글과 글을 읽는 행위의 의미를 구성하며, 이러한 행위와의 연관 속에서 수행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실천 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리터러시 실천에 대한 탐구는 리터러시 실천의 내용과 성격을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실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과 리터러시 실천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한계까지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터러시 실천은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책모임의 읽기 실천과 이 실천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맥락,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할 수 있는 개념 틀로서 유용할 것이다.

2)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와 참여를 통한 학습

현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도서 읽기의 실천의 특징은 집합성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페미니즘 책모임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며 교류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읽기 실천의 집합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책모임은 비교적 젊은 세대의 여성들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직된 것으로, 상호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페미니즘 도서를 함께 읽는 리터러시 실천을 공동의 실천으로 삼고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모임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맥락은 페미니즘 책모임의 리터러시 실천과 그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레이브와 웹거가 주창한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개념은 페미니즘 도서를 읽는 리터러시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된 페미니즘 책모임의 집합적 특성을 탐구하는데 유의미한 틀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책모임의 리터러시 실천에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된다. 실천공동체란 특정한 실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사람들이 해당 공동체의 공통된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실천에 관한 규범과 규칙, 담론을 공유하고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Lave · Wenger 2010[1991]; Wenger 1998). 특정한 사회적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이 실천을 수행하고, 해석하며, 실천에 관한 규칙을 만들고, 나아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천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공동의 실천과 실천에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실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천공동체와 외부의 다른 공동체의 경계선은 뚜렷하지 않다. 고객의 손해를 평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 평가사들을 하나의 실천공동체로 묶어주는 것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에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 청구 서류, 고객과의 연락, 업무 공간에서 동료 직원과의 업무적·일상적 상호작용, 신입 교육 등 업무 전반에 걸친 공동의 실천이다 (Wenger 1998). 웨거는 보험 평가사의 사례를 통해 주기적으로 선발되는 신입의 존재 및 개별 보험 평가사가 관여하는 다른 실천공동체와의 상호 작용 등으로 인해 실천공동체의 경계가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실천공동체는 구성원의 소속감이나 소속 집단에 대한 동일시가 나타나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와 구별된다.

이러한 실천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의 실천에 대한 반복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실천 방식과 그에 대한 규범을 학습하게 된다. 레이브와 웨거에게 학습이란 물화된 지식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과 습득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회적 실천에 대한 반복적인 참여를 통해 일어나는 행위이다 (Lave · Wenger 2010[1991]: 82-83). 이들은 실천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의 실천에 합법적 주변 참여(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참여의 합법적 주변성은 “아직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나 자격을 키워나가는 지위” 또는 “애매모호한 실현의 가능성”으로 해석된다(Lave · Wenger 2010[1991]: 27). 합법적 주변성의 개념은 자칫 실천공동체 내부에 중심과 주변이 이분화되어있고, 참여를 위한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참여의 합법성이 보장된다는 오해를 부르기 쉽다.

그러나 레이브와 웨거는 합법적 주변 참여의 개념을 통해 오히려 실천 공동체에 참여하는 행위의 부분성·점진성·개방성을 주장한다. 공동의 실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참여자 간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공동의 실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각자의 실천과 그 의미를 제한하게 된다. 그 어떤 참여자도 실천공동체 전체를

조망할 수는 없다.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가 이들의 실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 이상 “모든 참여자는 변화하는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신참”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Lave · Wenger 2010[1991]: 101). 따라서 공동의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학습은 언제나 부분적이며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기 때문에 실천공동체는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레이브와 웨거에게 학습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의미를 만드는 사회적 실천에의 참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Lave · Wenger 2010[1991]: 25).

실천에의 참여를 통한 학습의 맥락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교육 또는 학습의 목적을 떨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레이브와 웨거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알코올중독자 치료모임(Alcoholics Anonymous, 이하 AA)’에서 참여자들의 개인담을 통해 알코올 및 알코올 중독에 관한 지식이 학습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AA의 참여자는 주기적인 치료모임에 알코올에 중독됐던 과거를 이야기함으로써 음주를 하던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하고, 현재의 자신을 모임의 참여자로 재구성하여 음주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변화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털어놓는다. 이는 AA 참여자 사이에 알코올과 알코올 중독에 관한 지식을 순환하게 하고, 참여자들은 모임에서 서로의 개인담을 말하고 들음으로써 알코올 및 알코올 중독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나아가 이러한 언어적 실천은 AA 참여자들이 술을 마시던 과거의 자신을 알코올중독자로 정체화하고 중독 치료의 과정 위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실천적 조건이 되고 있다 (Lave · Wenger 2010[1991]: 76; Weegmann · Piwowoz-Hjort 2009: 281).

따라서 폐미니즘 도서를 읽는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천공동체인 폐미니즘 책모임의 리터러시 실천과 사회적 관계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레이브와 웨거가 주장하였던 이론적 틀은 적절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리터러시 실천과 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본 연구는 실천공동체로서 폐미니즘 책모임이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들이 책모임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3) 언어와 젠더, 그리고 페미니즘

페미니즘(feminism)은 남성 지배에 대한 여성 종속이라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문화적 관습을 비판하는 사상이자 운동으로, 언어와 젠더의 상관관계에 관한 사회언어학 및 언어 인류학 분야의 연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먼저 ‘지배 접근(dominance approach)’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무렵 이른바 급진적 페미니즘이라 불렸던 사상과 운동의 영향 속에서 남성 중심적인 언어 규범 아래 여성과 여성의 언어 실천이 열등하고, 부적절하며, 불완전하다 여겨지는 현실을 비판하였다(Bucholtz 2004: 126). 한편 ‘차이-문화 접근(difference-cultural approach)’은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쳐 전혀 다른 의사소통 방식과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언어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Tannen 1990). 이러한 관점은 음운론적, 문법적 변이형과 어휘 선택, 대화 스타일에 이르는 미시적 차원의 의사소통 사례에서 여성 화자의 완곡하고 협력적인 화법, ‘의미 없는’ 감탄사 사용, 높은 표준어 사용 빈도 등을 보고하고, 이러한 언어 사용 양상이 사회경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자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열악한 여성 지위에서 기인한다고 분석 한다(Labov 1966; Lakoff 1975).

한편 ‘차이-문화 접근’과 ‘지배 접근’이 모두 배타적인 성별 이분법을 답습하고 특정한 언어 사용 방식과 젠더 간의 상관관계를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에 따라 언어와 젠더의 상관관계가 사회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고 변화한다는 새로운 관점이 제기되었다. ‘담론 접근(discourse approach)’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 실천을 통해 언어와 젠더의 연관성에 주목한다(Bucholtz 2004: 126). Bucholtz(1999)와 Ehrlich(1999)의 연구는 실천공동체 개념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공동의 언어적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젠더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Bucholtz의 연구는 미국 고등학교의 ‘너드(Nerd)’ 여학생의 모임(club) 활동에서 나타나는 대화 사례를 분

석함으로써 이들이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적’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미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성과 대비되는 상징자본으로서 지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Bucholtz 1999). 한편 Ehrlich는 대학 내 성폭력 재판정에서 나타난 대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언어적 실천이 젠더를 반영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젠더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와 상담센터 직원의 여성성을 부각함으로써 피고인과 고소인, 재판부의 젠더 차이를 강조하고, 이에 따라 재판의 전 과정이 고소인에게 불리하였음을 주장하였다 (Ehrlich 1999: 252). 두 연구는 젠더가 화자의 언어적 실천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언어적 실천을 통해 젠더가 다시금 재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언어적 실천은 기존의 젠더 질서를 단순히 반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폐미니즘 및 여성운동의 지향점과 맞닿으면서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공적으로 금기시된 여성의 언어적 실천이 젠더 질서에 대한 저항과 정치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서 여성이 언어적 실천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주목한 연구들로 이어졌다(Abu-Lughod 1986; Ahearn 2001a; Imran et al 2020; Radway 2009; Raheja&Gold 1994; Rockhill 1987; Uniyal 2018 등). 전술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시 장르의 구술 연행과 창작부터 읽고 쓰는 능력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언어적 실천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성(agency)을 구성하게 하고, 젠더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규범과 제도, 관습을 전유하는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일례로 아부-루고드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의 성애마저 공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정숙함을 강조하고 감정적 의존을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베두인 사회에서, 전통적인 형식의 시에 담긴 남녀 간의 연애와 사랑 이야기를 낭송하는 실천은 일상적 맥락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다(Abu-Lughod 1986). 또 래드웨이에 따르면, 1970년대 미국 동부의 중산층 주부 여성의 로맨스 소설 속 여성 인물의

자립과 성장, 이성애적 사랑을 성취하는 서사를 접하며 주체적인 여성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Radway 2009).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여성의 언어적 실천이 기존의 젠더 질서와 어긋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저항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언어적 실천이 실질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나 지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한편 여성의 문해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면 중 하나로서 여성의 문맹률을 낮추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때 리터러시(literacy)는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으로, 주로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공용어·국가어 등에 관한 문해력을 의미한다. 이 연구들은 여성의 문해력 향상이 공적 영역에서의 경제적 지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Gallaway · Bernasek 2004; Miller 1999; Robinson-Pant 2008; Rockhill 1987). 폐미니즘과 여성운동, 그리고 리터러시 실천 개념의 영향 아래 여성 문해 교육에 관한 연구는 여성이 가부장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법적·경제적 권리를 요구함으로써 기존의 성 역할에 저항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Robinson-Pant 2008: 183-186). 이른바 제 3세계에 거주하는 여성 혹은 부유한 국가에 이주한 이주 여성들 대상으로 이루어진 위 연구들은 리터러시를 획득해야 할 읽고 쓰는 능력(skill)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여성의 리터러시가 경제적·상징적 자원으로부터 소외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의식 고양과 행위성의 구성, 나아가 정치적 연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Gallaway · Bernasek 2004: 521).

본 논문은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실천이 저항과 연대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을 따라간다. 그와 동시에 폐미니즘 책모임의 참여자 개개인의 문해력이 아니라 책의 내용과 폐미니즘 이데올로기,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 삶의 경험을 리터러시 실천을 통해 재구성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 사회의 폐미니즘 책모임이 가진 저항과 연대의 가능

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근래 한국에서 이른바 ‘온라인 페미니즘’의 영향 속에서 생겨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페미니즘 책모임은 대체로 10명 이하의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으로 운영되며, 지속 기간은 일회성에 그치는 단발성 모임부터 수년간 계속되는 모임에까지 다양하다. 많은 모임이 온라인의 소셜미디어에서 공식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해시태그를 활용해 자신들의 모임 활동 내용을 홍보하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한다. 종종 시민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모임 공간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특정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모임의 경우엔 해당 단체의 온라인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회원 모집을 대신 해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페미니즘 책모임은 예비 참여자에게 모임 참여를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하는데, 하나는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 또는 “페미니스트라면 누구나” 등과 같은 조건으로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모임에서 요구하는 일정대로 책을 읽어오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⁵⁾

일회성에 가깝고, 참여한 사람들 간에 구체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 어려운 강연이나 북토크, SNS의 집단적 발화와 다르게, 페미니즘 책모임은 도서를 읽고 이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행위에 반복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책과 책을 읽는 행위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고 이러한 자리를 통해

5)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책모임의 상당수가 참여자의 성별 요건을 여성으로 명시하고 있었고, 특별히 성별 조건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페미니즘 책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최근에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남성을 위한 책모임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여자 간에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즉, 페미니즘 책모임은 최근 나타나는 집합적 읽기 실천의 구체적인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현장일 뿐 아니라 집합적 읽기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연대 의식의 기반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 목적 및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적절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2020년 7월에 생긴 페미니즘 책모임 ‘위페(We/爲Fe)’⁶⁾다. 왜냐하면 이 모임의 구성 과정과 운영 방식, 멤버 구성이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탐구하는데 적합했기 때문이다. 우선 ‘위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온라인 페미니즘’의 익명성·개별성·유동성을 바탕으로 탄생하고 운영되는 모임이었다. ‘온라인 페미니즘’은 온라인상의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의 페미니즘 실천을 일컫는 말로(김은주 2019; 윤보라 2014), 익명에 기반한 개별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페미니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책모임 ‘위페’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는 D 페미니즘 북카페(이하 D 카페)의 한 페미니스트 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난 네 명의 여성의 기획한 모임으로, 네 여성 모두 D 카페의 SNS 계정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나 ‘위페’를 만들었다. 또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페’의 공식 계정을 SNS에 개설하였고 이 계정을 통해 ‘위페’의 활동을 홍보하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위페’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대중화되었다고 여겨지는 20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을 접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여성단체에서 가정폭력 피해 지원이나 단체의 자료집 작성

6) ‘위페(We/爲Fe)’라는 명칭은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 대상 책모임의 본래 명칭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가명이다. 이 명칭은 책모임의 참여자들이 모두(We) 페미니스트(Feminist)이며, 이 책모임이 여성(Female)과 페미니즘(Feminism) 및 페미니스트(Feminist)를 위한(위할 위; 爲) 모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Fe’는 여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 ‘Female’과 페미니즘(Feminism) 영문 철자 중 앞의 두 글자를 따온 것이다.

등과 같은 활동을 경험하였던 미연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는 모두 소위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5) 이후 온라인상의 미디어,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페미니즘 담론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0년 7월 D 카페의 페미니스트 교류 프로그램을 계기로 만들어진 ‘위페’는 2020년 10월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면서 연구자를 포함한 5명의 멤버가 새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위페’에서는 총 13회의 정기 책모임과 1회의 비대면 북독 모임, 소수의 멤버만 참여한 글쓰기 모임이 열렸으며 2021년 1월에는 시즌 3을 기획하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격주 목요일마다 2시간에서 2시간 30분 간 열리는 정기 책모임은 회당 한 권의 책을 읽고 만나서 미리 정해진 한 명의 발제자의 진행에 따라 책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총 두 개의 시즌, 횟수로는 9회의 정기 책모임에 참여하였고 이 가운데 한 회차에서 직접 발제를 맡아 모임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SNS를 통해 ‘위페’ 측에 모임 참여 및 연구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조사 방법, 연구 목적 등에 관해 상의를 거친 끝에 새로운 멤버로서 ‘위페’에 참여하는 동시에 연구를 위한 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하였다. 이미 새 멤버 모집이 완료된 시점이었기에 연구자와 함께 ‘위페’에 합류하게 된 새 멤버들에게는 2-1회차 첫 만남에서 연구에 관해 개괄적인 설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윤리심사가 완료된 2-4회차부터 멤버들의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참여관찰 연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고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 조사를 시작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위페’에서 열린 정기 책모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다. 이 가운데 연구자가 참여하지 않았던 2020년 7월부터 9월 사이의 정기 책모임에 관한 정보는 ‘위페’를 기획한 멤버들과의 심층면담 및 ‘위페’의 SNS 계정에 올라온 활동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2020년 12월 중순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당시 ‘위페’에서는 총 9명의 멤버가 활동하고 있었기에 정부의 공식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정기 책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본격적인 현지 조사를 진행하는 내내 ‘위폐’의 정기 책모임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표 1>의 일정을 참고).

연구자를 제외한 8명의 멤버 가운데 본 연구에 참여한 멤버는 모두 7명이었다. 적극적으로 비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1명의 멤버를 제외한 모든 멤버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에 참여해주었다. 연구에 참여한 7명은 모두 한국인이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비혼⁷⁾ 여성이다. 연령은 80년대 초반 출생부터 90년대 후반 출생까지 젊은 세대 안에서도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었으며, 한국 나이로 20대가 2명, 30대가 4명, 40대가 1명으로 30대인 멤버가 가장 많았다. 직업군의 경우 고정된 직장이 없는 프리랜서부터 금융권 종사자나 교육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이었다. 어떤 생계 활동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책모임에 대한 참여도와 몰입도가 달랐는데, 대체로 직장 생활을 하는 멤버의 참여도가 낮은 편이었다. 20쪽에 실린 <표 2>는 연구 참여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7) 일반적으로 기혼(既婚)의 반대어는 미혼(未婚)이나, 본고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미혼이라는 용어 대신 비혼(非婚)을 사용하고 있다. 미혼과 비혼이라는 용어는 결혼하지 않은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의어이나, 미혼이라는 용어가 미래에 결혼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혼과 구별된다. 굳이 비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멤버들 중 자신이 미래에 결혼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멤버가 많았고, 멤버들의 의식적으로 미혼이라는 용어보다 비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심층면담과 비공식적인 대화 상황에서 멤버들이 비혼 공동체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표 1〉 ‘위폐’의 정기 책모임 일정

시즌	회차	일시	도서명	저자	모임 장소	발제자	비고
시즌 1	1-1	2020.7.30.	모두를 위한 폐미니즘	벨 흑스	D 카페	예은	
	1-2	2020.8.11.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이민경	D 카페	수아	
	1-3	2020.8.27.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줌(온라인)	미연	
	1-4	2020.9.10.	젠더 무법자	케이트 본스타인	줌(온라인)	민서	
시즌 2	2-1	2020.11.5.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추적단 불꽃	D 카페	예은	새 멤버 추가
	2-2	2020.11.19.	코로나 시대의 폐미니즘	김은실 외	B 서점	미연	
	2-3	2020.12.3.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	T. 크리스찬 밀러, 켄 암스트롱	줌(온라인)	수아	비대면 전환
	2-4	2020.12.17.	김지은입니다	김지은	줌(온라인)	민서	
시즌 3	3-1	2021.1.21.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마리 루티	줌(온라인)	연구자	
	3-2	2021.2.4.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	마야 뒤판베리	줌(온라인)	이경	
	3-3	2021.2.18.	여자들의 섹스북	한채윤	줌(온라인)	초승	이경의 이탈 후 8명으로 진행
	3-4	2021.3.4.	사라지는 건 여자들뿐이거든요	강화길 외	줌(온라인)	다솔	
	3-5	2021.3.18.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	권김현영	줌(온라인)	연구 미참여자	

<표 2> 연구참여자 정보

이름 8)	출생년도 (연령) ⁹⁾	생업	‘위폐’를 제외한 페미니즘 관련 모임 활동 경험
수아	1989년 생(33세)	프리랜서(인문학 · 철학 교육 분야)	
미연	1982년 생(40세)	프리랜서(편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초중반 여성 단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정책자료집 작성 등 활동 참여 - ‘위폐’ 외 페미니즘 책 모임에 참여 경험 다수
예은	1989년 생(33세)	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미니즘 독립서점에서 기획한 글쓰기 모임 참여
민서	1992년 생(30세)	금융권 종사	
이경	1984년 생(38세)	초등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교육 연구 모임 참여 - 다른 모임에서 알게 되었거나 같은 교사인 지인들과 페미니즘 책 모임을 만들어 활동 중
초승	1995년 생(27세)	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상담사 교육 이수 중
다솔	1999년 생(23세)	식품 브랜딩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민족지적 현장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
- 8)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멤버들이 서로의 성(姓)을 전혀 모르는 ‘위폐’ 모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표 2>에서도 성을 제외한 이름만 제공하였다.
- 9) 2021년 기준 한국 나이.

이라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참여관찰이란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엄격한 규칙이나 통제 없이 연구참여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연구참여자의 생활방식, 상호작용, 사고방식 및 연구참여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파악하고 기록하여 자료로서 수집하는 방법이다(이용숙 외 2012: 105-107). 이에 따라 연구자는 ‘위폐’의 일원으로서 직접 ‘위폐’의 정기 책모임을 비롯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면서 연구참여자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11월 초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시즌 2와 시즌 3의 정기 책모임(총 9회)에 모두 참여하였고, 비대면으로 열린 한 차례의 뮤독 모임(2020년 12월 24일), 시즌3 기획 회의(2021년 1월 7일), 시즌3의 정리 모임(2021년 4월 1일)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책을 읽어오고, 발제에 참여하고, 모임의 활동 방향을 제안하거나, 책모임 외에 사적인 만남에 응하는 등 다른 멤버들과 비슷한 참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멤버 중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1인을 고려하여 참여관찰 과정 중 이루어지는 대화에 대한 녹음 및 녹화는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연구자는 모임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과 행동을 문서 프로그램으로 직접 기록한 뒤 모임이 끝난 후 참여관찰 노트에 해당 기록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모았다. 따라서 본문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된 정기 책모임의 대화 사례는 필드노트의 기록을 토대로 발화자의 의도와 의미를 최대한 가늠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심층면담의 경우 연구참여자와의 충분한 라포 형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위폐’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와 일대일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질문지를 미리 준비하되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진행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적 면담 방법을 활용하였다(이용숙 외 2012: 146-152). 연구참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준비된 질문지를 요약하여 미리 공유해주어 질문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면담의 진행 과정에서는 반구조적 면담 방식을 유지하고자 했다. 참여관찰의 대부

분 과정이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된 데 반해 심층면담은 한 명의 연구참여자를 제외하고 모두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보장된 스터디 카페의 룸공간을 대여 하였고, 비대면 심층면담의 경우 줌(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음성 녹음을 하였고, 면담이 끝난 뒤에 녹취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여 자료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한국의 페미니즘 및 여성운동의 변화나 근래 나타난 페미니즘의 현상에 관해서는 여성학·철학·사회학 등 분야의 학술 논문을 주로 활용하였다.

4.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을 간략히 기술하고 연구 질문을 제기하였으며,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기술하였다.

II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페미니즘 책모임 ‘위페’의 민족지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지형 변화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을 중심으로 추적하여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위페’의 탄생 및 변화 과정을 따라가며 멤버들의 기획 및 참여 동기를 책과 모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였다.

III장에서는 페미니즘 책모임 ‘위페’의 멤버들이 참여하는 리터러시 실천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1장에서는 적극적 독자로서 ‘위페’ 멤버들이 페미니즘 도서를 비판적으로 독해하여 메모를 남기고 발제문을 작성하는 실천을, 2장과 3장에서는 정기 책모임에서 나타나는 리터러시 실천을 각각 자기 서사의 고백과 저항적 말하기 전략의

연습 및 모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V 장은 ‘위폐’의 멤버들이 만들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고 공동체로서 ‘위폐’와 같은 페미니즘 책모임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완전히 익명적이지도,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와 같이 친밀하고 끈끈하지도 않은 중간적 성격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기제가 무엇이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공동체로서 ‘위폐’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건 짓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V 장은 결론으로, 본론에 해당하는 II, III, IV장을 간략히 요약하고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를 기술하였다.

II. ‘위폐’의 민족지적 배경

1. 온라인 페미니즘과 ‘위폐’의 기반

1)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페미니즘의 대중화

한국의 페미니즘 지형은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이전과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 전의 여성운동은 민족·민주·민중 운동의 내부에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주류 사회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여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왔었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선 주류 사회운동과의 분리 및 독자적 노선의 모색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한편 여성운동의 외연을 넓히고자 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한국에 도입되기 시작한 PC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 이에 따른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의 등장은 한국 페미니즘의 전환점과 맞물리며 한국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의 한국 여성운동은 당시 사회운동의 주요한 목표였던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화, 민족 분단의 극복과 여성에 관한 사회 문제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강남식 외 1999). 전희경(2001: 42-43)은 1987년 이전 주류 사회운동의 이념적 기반이었던 노동해방 및 민족통일 담론이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과 군사 독재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 한국 여성운동이 주류 사회운동의 하위 부문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던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군사 정권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와 계급 해방 나아가 민족통일을 쟁취한다는 목표가 너무도 강력했기에 여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민주화 및 계급 해방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문제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운동은 1990년대에 접어들며 여성 문제를 독자적으로 사회에 제기하는 한편, 여성운동의 주체를 확장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화를 달성한 뒤 나타난 한국 사회운동의 지형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민중 운동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로 ‘시민’이 호명된 가운데, 한국 여성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 진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여성주의’¹⁰⁾ 운동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더 익숙한 젊은 페미니스트가 하위 부문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졌던 기존 여성운동을 비판하고, 이전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성찰하며 여성운동만의 독자적인 영역과 노선을 꾸려가고자 한 운동이었다(전희경 2001: 55).

또 이 시기 한국 여성운동은 대학생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던 여성운동의 주체를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여성 범주를 포괄하고자 했다(김숙이 2007: 30-34, 53). 당시 여성운동 안팎에서는 엘리트 중심주의에

10)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여성주의라는 표현은 페미니즘(feminism)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며 번역어로서 기능한다. 한편으로 여성주의는 199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중요한 축으로서, 사회운동의 주체이자 연대의 대상으로서 여성을 호명하고 포괄하던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본 글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대한 비판이 존재했으며, 여전히 대중과 운동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김숙이 2007: 28; 이영자 2002: 49). 이에 따라 이전 사회운동 조직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구별하여 공적이고 중요한 일을 남성에게만 맡기는 위계성을 비판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려는 한편, 운동 조직의 바깥에 자리하고 있던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여성운동의 영역에 이들 대중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했다(김숙이 2007: 45-46).

기존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여성’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리하고, 또 기존 운동에서 ‘여성’이라는 범주에 포괄되지 못했던 다양한 주체를 여성운동의 주체로 포함하려는 과정에서, PC 통신의 도입과 뒤이은 인터넷의 발달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빠르게 확장하고 그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장으로 주목을 받았다(윤보라 2014: 172). 쌍방향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조, 익명성, 빠른 속도, 시공간을 뛰어넘는 관계의 형성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여성운동의 문제의식을 쉽고 빠르게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고, 대중과의 연대 및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었다(김수아 2006: 125; 김숙이 2007: 62; 신희선 2005: 254-257; 윤보라 2014, 2011: 19-20).

물론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담보해주지만은 않았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사이버 테러(폭력)’, ‘온라인 성폭력’, ‘플레임(flame)¹¹⁾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여성운동이 마주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신희선 2005: 236-237; 윤보라 2014: 178-179). 페미니즘 시각과 의견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사람과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사이트에 대한 폭력만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여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온라인상의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윤보라 2011: 16-17).

그럼에도 한국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은 기존 사회운동과 분리된 독자적

11) 플레임 현상이란 “어떤 사람의 생각에 대한 비판 혹은 개인에 대한 비난을 지나치게 강하게 진술하는 것”이다(권김현영 2001: 35, 조지혜 2004: 106에서 재인용).

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며 운동의 주체로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여성들을 운동의 차원에 포괄하는 대중화를 시도해왔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새로운 방식의 여성운동을 만들어 가는 기반이었다. 한국 페미니즘의 대중화 흐름은 2000년대에 접어들며 다양한 여성 및 여성주의 웹사이트와 커뮤니티의 형성과 발달로 본격화 되었다.

2)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의 발달

PC 통신과 인터넷 연결망이 한국에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은 한국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실험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른바 ‘사이버 스페이스’는 도입 초기의 희망적이었던 인식과 달리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적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한국 여성들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찾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상업적 여성 포털사이트와 ‘여성주의’ 사이트는 목적은 상이하나 온라인 공간에 여성들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일종으로 기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업적 포털사이트에서는 육아, 쇼핑, 패션, 외모 관리 등 일반적으로 여성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가 활발하게 오가며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아 성공을 거두는 한편,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은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대형 포털사이트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페미니즘 이슈와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했다.

‘여성주의’를 지향하든 지향하지 않았든 200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 여성들은 온라인 공간의 곳곳에 모여 각자의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여러 정보를 나누며 느슨한 연대감을 만들고 있었다.

‘여성주의’ 사이트는 한국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이 1990년대부터 제기해왔던 새로운 문제의식에 발맞춰서 크게 두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첫째, 다양한 여성 주체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1996년 경남여성회 주부 글쓰기 모임에서 결성된

<살류쥬>는 대부분 주부로 구성되어 가부장적 가족 제도와 삶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살아오던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비슷한 사례로 <줌마네>는 “아줌마를 위한 인터넷 해방구”를 사이트가 추구하는 목표로 삼고 30~50대 주부를 위한 온·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으며(신희선 2005: 248-250), 최근까지 글쓰기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행본과 잡지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¹²⁾

<살류쥬>와 <줌마네>가 기혼 주부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웹진 <달나라딸세포> (이하 <달딸>)는 상대적으로 젊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여성주의’ 사이트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달딸>은 다양한 여성 주체를 포괄하려는 ‘여성주의’의 시도에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여성’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딸됨’의 정치학을 통해 기존의 페미니즘에서 전제된 여성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하였다.¹³⁾ 정연보(2005)는 <달딸>이 주장하는 ‘딸됨’의 위치성이 주부 혹은 어머니와 같이 모성을 가진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해왔던 과거를 비판하고 있으며, 나아가 부모에 예속된 ‘딸’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주변화된 여성을 은유하고 배제되어온 타자 또는 소수자로서의 여성을 함의한다고 분석한다(정연보 2015: 45).

둘째, ‘여성주의’ 사이트는 ‘여성주의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 및 이용자들과 소통하고자 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페미니즘이 이전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비판했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¹⁴⁾ <언니네> 사이트의 대표를 맡아 운영했던 조지혜는 <언니네>

12) “줌마네 이야기”, <줌마네: 아줌마를 위한 문화예술창작학교> 블로그 참조. (2013.5.15일자. 2021.8.15. 접속)

<https://blog.naver.com/zoomanet/120189984434>

13) “딸됨의 정치학에 대하여”, <달나라딸세포> 0호, (2021.8.15. 검색)

<http://dalara.jinbo.net/webzine0/second-gen.html>

14) 전희경(2001)은 1990년대에 등장한 여성운동이 운동의 목표 차원과 운동 조직의 운영 차원에서 가부장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여성문제를 계급 문제에 종속되는 부가적인 문제로 이해했으며, 여성을 주요 업무, 직위, 정보에서 배제하고 관습적인 성 역할 분담 구조를 유지해왔다는 점, 나아가 조직의 목표를 이유로 운동 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마하려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운영 조직을 수평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회상한다 (조지혜 2004: 35). 이 과정에서 대표라는 직함의 대외적 측면과 실제 조직 내에서의 위상 간에 괴리가 생기고, 내부적으로 친밀한 동료 관계가 회사 조직으로서 <언니네>의 지속가능성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등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기도 했다(조지혜 2000: 37). 이처럼 ‘여성주의’ 사이트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이전 운동 조직의 문화를 비판하며 조직 내부 구조를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이트의 운영진과 사이트 회원 혹은 일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웹진 <달딸>과 <언니네>, <살류쥬>, <줌마네> 모두 운영진이 게재하는 글을 제외하고 사이트의 회원이나 일반 이용자가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뿐 아니라 운영진과 사이트 이용자가 서로 소통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또 독자 게시판을 메인 게시판과 나란히 위치시켜 필진과 독자 간의 위계 및 구별을 해체하고자 하였다(정연보 2015: 56).

여기에 더해 ‘여성주의’ 사이트는 오프라인에서의 독자 모임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홍보함으로써 폐미니즘과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저널 <이프>는 독자 모니터링 모임인 ‘이프나이트’를 운영하여 독자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독자 간의 교류를 주도하였으며(유숙열 2017: 125), <줌마네>는 주기적인 오프라인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 여성들의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재취업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조지혜 2004: 111). 웹진 <달딸>의 필진은 자신들과 매우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10대, 장애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이를 웹진으로 재구성하여 공유하였다 (정연보 2015: 56). ‘여성주의’ 사이트를 계기로 서로의 일상에 무관하였던 사람들이 만나 교류하고 소통하게 된 것이다.

‘여성주의’ 사이트가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은 ‘여성주의’ 사이트가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주체를 문제 해결의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웹진 <달딸>

은 게시판에 올라온 성차별적인 게시글을 따로 분류할 수 있는 ‘쓰레기통’ 게시판을 개설함으로써 폭력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를 사이트 안에서 재배치함으로써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 의미를 새롭게 전유하고 있었다(조지혜 2004: 108). 또 부산대학교 여성주의 매체 <월장>은 편집진에 대한 사이버상 및 직접적인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다(조지혜 2004: 111). 이러한 모습은 기존 사회운동 조직이 운동의 목표를 평계로 조직 내에서 발생한 폭력을 무마하고 덮으려 했던 방식을 비판하는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의식이 사이트의 운영 방식에도 이어지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성 포털사이트는 ‘여성주의’ 사이트와 다르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쇼핑몰과의 연계를 중요한 과제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가부장적인 사회 관습에 직접적인 반기를 들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소비자로서의 여성을 타깃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수아 2006: 226; 윤보라 2011: 25; 조지혜 2000: 33). 하지만 여성 포털사이트는 여성들이 익명성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공명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다. 여성 포털사이트에서는 그 전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치부되지 않았던 사소하고 미시적인 여성의 경험들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이야기가 다른 회원들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회원들 간의 연대 의식이 구축되어 정치적 행동까지 이어졌다.

윤보라는 여성 포털사이트의 본래 목적이 상업적이었다 할지라도, 여성들이 포털사이트를 온라인상의 ‘안전한 공간’으로 전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윤보라 2011). 여성 포털사이트의 회원들은 단지 가부장적 사회의 순응자, 혹은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소비자로 온라인상에 박혀 있지 않았다. 여성의 일상적 경험부터 정치적·사회적 이슈까지, 회원들은 다양한 일상적, 사회적 문제에 관해 경험을 나누고 토론하며 때때로 예기치 못한 담론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갔다. 김수아 역시 2000년대 초반 높은 수익을 냈던 여성 포털사이트 ‘마이클럽’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 포털사이트가 반여성주의적 공간으로

간주 되었던 것과 달리 여성 회원들 간의 상호 소통과 다양한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힘돋우기 실천”을 가능케 하는 일상적 공간이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김수아 2006). 익명에 기댄 안전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나누는 소통과 교류를 기반으로, ‘마이클럽’의 여성들은 전보다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 안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실천과 변화에 동참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여성 포털사이트와 ‘여성주의’ 사이트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한국의 여러 여성들이 평소에 쉽사리 공유하지 못했던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나누고, 토론하며, 네트워킹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자 정치적 참여 및 집단행동을 스스로 조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었다. 사이버 스페이스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페미니즘은 특정한 연령대와 계층의 여성만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점차 대중의 참여와 관심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제 한국의 페미니즘은 더 이상 운동계와 학계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페미니즘은 대중의 시선과 평가 앞에 노출되어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전유되며, 한국 사회의 중대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3) 온라인 페미니즘과 ‘백래시(backlash)’

온라인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일상적 교류와 소통, 정치적 실천을 이어가는 한국의 페미니즘은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전보다 ‘추진력을 잃은’ (조주현 2019) 한국 페미니즘의 ‘소강상태’ (윤보라 2014)를 뒤집은 것은 이전과 상당히 다른 형태로 전개되는 ‘온라인 페미니즘’이었다. 새롭게 등장한 페미니스트 주체들은 1990년대 ‘여성주의’ 운동의 주체였던 영 페미니스트와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영영 페미니스트’, 또는 온라인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특성에 기반해 ‘넷 페미니스트’, ‘디지털 페미니스트’ 등으로 불리며 성폭력·불법 촬영·낙태

등의 여성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0년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에는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었다. 이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등장하며 개인이 자신의 계정을 가지고 관심사와 흥미를 쫓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한 창구가 열렸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만의 계정을 개설해 자신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다른 계정을 팔로우 또는 구독하며, 계정 간에 텍스트, 이미지, 이모티콘 등을 공유하고 다시 가져올 수 있는 SNS의 의사소통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소통은 특정한 커뮤니티에 소속된 집단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가벼운’ 형태의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Varis · Blommaert 2015). 이미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과 개별성을 기반으로 한국 여성들이 각자의 삶과 경험을 공적으로 표출하고, 페미니즘 의제를 선택하고 또 공론화하며, 필요에 따라서 오프라인의 집단행동을 조직하고 주도하는 공간이 되어있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¹⁵⁾의 사례는 고정된 소속감 없이 이슈에 따라 이동하며 집합과 해산을 반복하는 온라인 페미니즘의 실천 양상을 잘 보여준다. 메갈리아와 워마드 커뮤니티의 액티비즘에 관한 김리나의 연구에 따르면,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이용자에게 공공연하게 “커뮤니티에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가치를 내걸고 이용자가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가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행동’ 그 자체이며, 메갈리아 또는 워마드라는 커뮤니티의 이름을 비가시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동과 사회적 이슈 그 자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김리나 2017: 127). 익명의 대중 속에 섞여 있다가 신호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인 뒤 흩어지는 ‘플래시

15) ‘메갈리아’란 디씨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와 게르 브란튼브레그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 속 배경이 되는 ‘이갈리아’를 합친 말로, 2015년 6월 디씨인사이드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커뮤니티로 운영되다 지금은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메갈리아는 2010년대 초반 온라인의 남초 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여성을 대상으로 사용되던 차별적인 언어 표현에 대한 ‘미러링’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이후 메갈리아 커뮤니티 내에서 논쟁이 반복되며 여러 파생 커뮤니티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하나가 ‘워마드’이다.

롭’과 같이 철저한 익명에 기대 이슈만을 가시화하고자 했던 메갈리아와 위마드의 방식은(김리나 2017: 129),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정치적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눈 뒤에 해당 커뮤니티의 이름을 걸고 광고나 시위와 같은 행동을 조직했던 2000년대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실천과 분명히 구별된다(김수아 2006). 2015년 이후 한국의 온라인 페미니즘은 “익명성과 일상성에 기반한 개인화된 운동”으로 리더나 조직의 실체가 모호하고, 주최와 참여자의 위계 및 구분이 무실해졌으며,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고 해시태그를 통해 이를 공론화하여 단기간에 시위나 집단행동을 조직한 뒤 다시 흩어져 개별적인 실천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박채복 2020: 126). 이 과정에서 “개인화되었으나 사회적 연결망으로 작동하는” 소셜미디어의 매체적 특성이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은 물론이다(김은주 2019: 5).

이러한 가운데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공공연하게 페미니즘에 반대를 표명하고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른바 반(反)페미니즘 혹은 ‘안티 페미니즘’이 온·오프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8월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¹⁶⁾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과 공론장 변화를 목표로 구성된 ‘백래시 대응 범페미 네트워크’의 발족문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백래시가 개인의 차원부터 정치, 경제의 차원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로 인해 건강한 공론장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¹⁷⁾ 또 김보명은 한국 사회의 반(反)페미니즘 기조가 신자유주의적 경쟁 구조 속에서 사회의 구조적·제도적·문화적 맥락이 거세된 능력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페미니즘의 목표와 실천을 사회적 정의를 저해하는 ‘불공정’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

16) 수전 팔루디에 따르면 ‘백래시(backlash)’란 “여성의 ‘진보’를 위협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여성이 크게 활보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독립성에 대한 적개심”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팔루디 2017).

17) 한겨레, “‘요즘 백래시 뻔뻔해졌다’…여성혐오 대응 네트워크 발족,” (2021.8.15일자. 2021.9.5.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7719.html>

인다고 지적한다(김보명 2019).

이처럼 온라인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페미니즘 대중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이에 대한 ‘백래시’가 점점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현재 한국의 ‘온라인 페미니즘’ 실천은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소속감 없이도 온라인상을 떠돌며 빠르게 이슈를 구축하고 시위와 행동을 조직한 뒤 흩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익명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SNS와 온라인상의 관계를 넘어서 보다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가까이 연결되고자 하는 페미니즘 소모임은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책모임 ‘위페’의 탄생 과정과 ‘위페’ 멤버들의 모임 기획 및 참여 동기를 살펴봄으로써, 앞선 배경 속에서 ‘위페’의 멤버들이 책모임을 만들고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며, 왜 하필 ‘책’이라는 매개를 모임의 핵심적인 정체성으로 두려 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온라인에서 찾은 오프라인 책모임

1) ‘위페’의 탄생과 발전

2020년 6월경, 서로 일면식이 없던 수아, 민서, 예은, 그리고 미연 네 사람은 페미니즘 멀티카페인 D 카페에서 주최하는 페미니스트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약 4주간 이어진 기획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을 재정의하고 참여자들 간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였다. 프로그램의 후반부는 진행자의 주도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각자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해보고 싶었거나 만들고 싶은 모임 활동의 주제를 적어내고, 비슷한 활동을 적어낸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서 구체적인 모임의 기획안을 꾸려보는 시간이었다. 수아, 민서, 그리고 미연은 독서 모임을, 예은은 영화 모임을 적어서 제출했다. 네 사람은 진행자에 의해 매칭이

됐고 그렇게 여성주의 책모임 ‘위페’를 만들게 되었다.

2020년 여름의 첫 기획 당시에는 네 명의 멤버들이 각자 한 권씩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총 네 권의 책을 하나의 시즌에 포함하고, 자신이 고른 책에 대한 발제문을 작성한 뒤 그날의 모임을 진행하는 ‘발제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 멤버들은 ‘위페’의 첫 번째 시즌을 “입문” 단계로 정하고, ‘베이직’한 페미니즘 도서 네 권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예은),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수아), 『시선으로부터』(미연), 『젠더 무법자』(민서), 이렇게 총 네 권의 책이 시즌 1의 도서로 정해졌다. 격주 간격으로 네 차례의 모임을 진행한 뒤에는, 시즌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D 카페를 대관하여 함께 영화를 시청하고 영화에 대한 감상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첫 시즌의 주제를 “입문”으로 정했지만, 네 명의 기획 멤버는 각자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계기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 책모임에 대한 경험치가 모두 달랐다. 예를 들어 멤버 미연은 2000년대 초중반 여러 여성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활동가 출신으로 페미니즘 책모임에 참여해본 경험이 다른 멤버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에 반해 멤버 민서는 한국 사회의 여성 차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페미니즘 자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트위터와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 페미니즘 담론을 접했고, 직장 생활을 하며 페미니즘과 관련 없는 명작 소설을 읽는 등의 책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참여 동기가 부족했고 바쁜 생업에 밀려 결국 해당 책모임을 그만두게 되었다.

첫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 D 카페 측에서 ‘위페’를 비롯해서 D 카페를 통해 만들어진 여러 모임을 소개하는 자리에 멤버들을 초대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즌을 한 번 더 기획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SNS를 통해 새로운 멤버를 모집한다는 홍보글을 게재하여 연구자를 포함한 다섯 명의 여성의 ‘위페’에 참여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즌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페미니즘의 이슈이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첫 시즌을 기획한 멤버들

이 한 권씩 발제자를 맡아 총 4회차로 진행되었다. 첫 시즌의 마지막 영화 모임처럼 두 번째 시즌이 끝나가는 2020년 연말 즈음 ‘위페’의 멤버들과 페미니즘에 관심을 둔 지인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연말 파티’를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악화되며 이 기획은 취소되고 말았다.

두 번째 시즌에서는 첫 시즌에 비해 참여 인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정기 책모임 외에 비정기적인 소모임이 열리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정기 책모임의 참석 인원은 평균적으로 4명~6명으로 비슷했다. 또 수도권의 4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두 번째 시즌의 절반을 비대면으로 지속하게 되었다.

세 번째 시즌은 두 번째 시즌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새로운 멤버들이 책 선정과 시즌의 구성, 모임 진행 방식과 발제자 선정에 함께 관여한 시즌이다. 투표를 통해 총 다섯 권의 책이 선정되었고, 앞의 두 시즌과 달리 시즌을 관통하는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연구자를 포함해서 두 번째 시즌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다섯 명의 멤버가 발제자가 되었다.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연구자),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이경), 『여자들의 섹스북』(초승), 『사라지는 것은 여자들뿐이거든요』(다솔), 그리고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이 선정되었고, 시즌을 끝낸 소회를 나누는 마무리 모임을 열기로 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이 나아지지 못해 세 번째 시즌 역시 6번의 정기 모임을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책모임 ‘위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며 변화한 과정을 잘 살펴보면 ‘온라인 페미니즘’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김은주 2019: 5). ‘위페’를 기획한 네 명의 멤버들은 여러 SNS를 통해 D 카페의 존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고 있었고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만나 책모임을 꾸리게 되었다. 기획 멤버들은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D 카페의 계정에 홍보를 부탁했으며, 새로운 멤버들 역시 SNS와 D 카페를 통해 ‘위페’의 존재를 알게 되어 책모임에 참여코자 연락을 취해왔다. 멤버들이 모두 속한 온라인 채팅방이 존

재하고, 이 안에서 다른 멤버들에게 사회적·정치적 소식을 공유하고, 페미니즘을 비롯해 비거니즘, 기후변화 등에 관한 강연이나 시위 혹은 재판 방청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즉, 페미니즘 책모임 ‘위페’는 소셜미디어와 SNS가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여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모임인 셈이다.

그러나 ‘위페’ 멤버들은 소셜미디어와 SNS의 익명적이고 느슨한 관계에서 만족하지 않고 페미니즘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소모임을 직접 만들고,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을 찾던 와중에 SNS 등을 통해 ‘위페’의 존재를 알게 되어 참여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실천을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 실천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페’ 안에서 멤버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참여하는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에게 ‘책’과 ‘모임’이라는 요소가 가지는 함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소셜미디어의 개별성을 넘어선 관계 추구

익명성을 전제로 개별화된 실천들의 연결을 특성으로 하는 소셜미디어가 온라인 페미니즘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도구이자 주체로 부상한 지금, ‘위페’의 멤버들은 변화한 디지털 환경과 발달한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페미니즘 이슈를 접하고 배우며 강연, 시위, 세미나 등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멤버들이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자신의 계정을 가지고 있었고, 페미니즘과 관련된 소식 및 정보를 알려주는 단체, 모임, 혹은 개인의 계정을 팔로우 또는 구독하며, 이를 통해서 전보다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지나가는 페미니즘 이슈를 접하고 페미니즘 담론과 지식을 학습해본 경험이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SNS를 활용하는 이른바 온라인 페미니즘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의 멤버들은 ‘위페’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뒤에도 트위터, 온라인 채팅방, 인스타그램 등에 꾸준히 접속하며 페미

니즘에 관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얻고 있었고, SNS와 채팅방 등에서 알게 된 정보나 소식을 ‘위폐’의 채팅방에 ‘공유’해주기도 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네트워킹에 익숙해 보였다. 말하자면 ‘위폐’의 멤버들은 ‘위폐’를 비롯해 오프라인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여러 소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온라인상의 네트워크에 끊임없이 연결돼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페미니즘 소모임을 찾아 나섰던 것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SNS에서 페미니즘 담론과 이슈를 접해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정작 온라인 세계를 벗어난 이들의 일상에서는 페미니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위폐’의 여러 멤버들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페미니즘 논의와 담론, 이슈의 공론화와 자신의 일상 사이의 괴리를 잘 알고 있었고, 페미니즘이라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례 1] 다솔(심층면담)

저는 D 카페의 인스타그램(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고, 제가 다니던 전 회사가 그 근처여서 (중략) 강의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위폐’를 (모집)한다는 홍보 글을 보았고. 아, 나도 여기서 한번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얘기해보고 같이 책도 읽고 한 가지 주제로 다양한 얘기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략) 제 주변에는 생각보다, “나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어”, 혹은 “나는 페미니스트야”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그 비율이 되게 적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해방감도 필요했었고.

민서 역시 다솔과 비슷한 이유로 ‘위폐’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한

다. 민서는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잘 모를 때조차 여성 차별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트위터와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 페미니즘을 알게 되면서 “해방감을 느낀” 사람이지만, 직장 생활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상에서 편하게 페미니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오히려 민서는 직장에서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을 계속 마주해야 했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매일같이 직장에서 “빡은”¹⁸⁾ 이야기를 들으며 받는 스트레스는 페미니즘을 잘 알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며 풀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 ‘미투 (#MeToo)’, ‘N번방 사건’과 같이 페미니즘과 밀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가 많지 않았기에 이를 함께 나눌 “동지가 필요했다”는 예은의 말도 민서와 비슷한 동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토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위폐’의 멤버들과 같이 비교적 젊은 세대의 여성들에게 있어 온라인 공간이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에게 온라인의 소셜미디어와 SNS는 페미니즘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해시태그, 리트윗, ‘좋아요’ 등 의 공유 방식으로 연결되고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치 활동과 집합 행동에 유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다(김은주 2019: 12). 그런 동시에 온라인 공간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앞서 메갈리아와 워마드에서 이용자들에게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지 말자고 권했던 것이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신상 노출을 극도로 경계하였기 때문이라는 김리나의 분석은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그 안에서의 페미니즘이 갖는 파급력과는 별개로 한국 여성들에게 온라인 공간은 ‘안전함’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곳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역으로 드러낸다(김리나 2017: 114).

직접적인 대면 만남이 전제되는 소모임 역시 이러한 안전의 문제에서

18)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되는 은어이다. 본래는 외모를 비하하는 의미로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은어이나,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용례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트위터 등에서 여성 혹은 소수자 차별에 대해 무지하거나 차별적 언행을 비난하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다.

아주 자유롭지는 않을 테지만, ‘위폐’의 멤버들은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 간에 끈끈한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동지를 만날” 것이라 기대했다고 답하거나 서로를 “지원군”이라 칭하는 모습을 통해, 멤버들이 ‘위폐’와 같은 소모임에서 온라인 상에서 형성하기 어려운 안전한 신뢰 관계를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에 관한 멤버들의 기대는, 온라인 폐미니즘과 느슨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의 유동성이 새롭고 주요한 폐미니즘 실천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의 중요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 2] 수아(심층면담)

(폐미니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런 (사람이) 머리로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정말 있다. [중략]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나가는 경험. 이런 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고요. [중략] 물론 다른 점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떨어져 있으면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같이 책을 읽고 하면서 매번 재확인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관심사를 갖더라도 같이 연결되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서로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폐미니즘을 표방한 모임은 ‘위폐’의 멤버들에게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안전하고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창구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폐미니즘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털어놓을 대상을 만나고, 그들과 일종의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폐미니즘 소모임에 참여하게 된 중요한 동인이다.

3) ‘책’ 이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즘 소모임 가운데 하필 ‘책모임’을 선택하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을 키워드로 하는 도서의 출판·재출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2030대의 젊은 여성들 중심으로 집합적 읽기 실천이 늘어나는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 새로운 독자들은 책을 사서 혼자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큼이나 책을 구매하는 소비 행위 자체, 그리고 책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행위를 중시한다. SNS에서 페미니즘 도서를 추천하고 감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북카페, 독립서점, 동네책방 등에서 열리는 북토크나 강연, 책모임에 참여하는 등 단지 책 속에 담긴 지식을 혼자 흡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책을 구매하고, 탐독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김소라 2018: 240; 김주희 2017: 354; 정고은 2017: 181-182).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위페’ 멤버들 역시 페미니즘에 관한 지식을 “공부”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책모임 ‘위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멤버들은 각자 페미니즘 도서에 익숙한 정도와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이 조금씩 달랐지만,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수단으로 책을 선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페미니즘 지식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소셜미디어보다 책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평소 책을 자주 읽지 않는 편이라는 멤버 민서는 트위터로 비교적 쉽게 페미니즘을 접했지만, SNS에서 보는 페미니즘은 책과 비교했을 때 “검증되지 않은 것”이며 쉽게 “소비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솔 역시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례 3] 다솔(심층면담)

연구자: SNS나 커뮤니티는 어떤 걸 주로 보고 계세요?

다솔: 요즘은 SNS,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들을 팔로우해놓고 보는 게 낫더라고요. 커뮤니티나 인터넷은 편향된 정보라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서 커뮤니티는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폐’ 안에서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인 이경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페미니즘 담론을 보고 빠르게 바뀌는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 트위터를 계속하고 있다. 이경은 다솔이나 민서만큼 SNS로 접하는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이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의 이슈를 흡수하기보다는 그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위폐’ 멤버들이 페미니즘 도서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먼저 멤버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다양한 성차별적 경험을 설명하는 언어를 익힐 수 있다고 기대한다. 멤버 이경은 처음 페미니즘 서적을 접했을 때 “용어를 아무것도 몰랐” 기 때문에 1개월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발제를 쓰는 페미니즘 책모임에 참여하게 되며 본격적인 페미니즘 책 읽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례 4] 이경(심층면담)

연구자: 그러면 페미니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책을 찾아 읽으시는 걸까요?

이경: 사실 맨 처음에는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언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합리한 상황들을 설명해 줄 언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페미니즘 관련 서적을 읽으니까 아,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중략] 다행히도 점점 그런(페미니즘) 책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아, 그런 욕구가 점점 더 많이 충족이 된 거죠.

두 번째로,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폐’를 비롯한 여러 소모임과 책모임에서 활동하고 북토크, 강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은은 책을 읽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지식을 통해서 “반박”의 근거 혹은 논리를 익힐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사례 5] 예은(심층면담)

제가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요만큼이라도 전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무지한 질문을 던졌을 때(받았을 때). 페미니즘에서는 또 무례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받잖아요). 그걸 반박 하려면 제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멤버들은 페미니즘 서적을 통해서 페미니즘을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민서는 ‘위폐’의 다른 기획 멤버들을 처음 만났던 D 카페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책모임을 하고 싶다고 밝혔던 세 명의 멤버 중 한 명이다.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에서 민서는 당시 등산 모임이나 비거리니즘 모임이 아닌 ‘책모임’이 하고 싶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례 6] 민서(심층면담)

저는 일단 책을 읽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왜 나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이슈에서 도태되고, 모르면 내가 또 “빡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난민 혐오 트렌스젠더 혐오, 이런 걸 일삼는 사람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책모임을 선택했는데.

하지만 혼자서 책을 읽고 지식을 흡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같은 책을 읽고 이에 관해 대화하고 토론하며, 그 책에서 뺀어 나간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필요하다. 연구자와 같이 시즌 2부터 ‘위페’ 멤버로 활동하기 시작한 초승은 평소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소모임 자체에 흥미가 없었고 오히려 회의적인 편이었던 자신이 ‘위페’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례 7] 초승(심층면담)

저는 트위터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냥 (트위터의 트윗을) 읽기만 해왔었는데, D 카페에서 책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4가지 책이 있었고 그 책들을 훑어봤는데 지금 역사 속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문제들을 다룬 책을 선정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전까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페미니즘이 걸어왔던 길을 책으로 읽으면서 혼자서 공부를 해왔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페미니즘적인 문제나 고민거리에 대해서 같이 책을 읽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럴 만한 책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하략)

이경은 책을 매개로 만나 교류하는 모임이 다른 모임과 비교했을 때 더욱 끈끈하게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책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쓴 저자가 아니더라도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읽은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례 8] 이경(심층면담)

페미니스트로서 강연을 듣고 이러면 교류를 하는 게 없잖아요. 주식 모임이든 운동 모임이든, 이런 걸 하면 그 순간에는 굉장히 충족감이 있지만 서로 교류하는 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책을 매개로,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책에 대한 단순한 소

감을 이야기해도 내 생각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자기 일부를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독서모임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조금은 알고 있어”라는 생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폐미니즘을 표방하는 책모임 ‘위폐’는 폐미니즘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책과 폐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모임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었다. 책이라는 매개 혹은 수단을 통해 폐미니즘 지식 및 담론을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것이다.

III. 폐미니즘 지식 학습과 폐미니즘 공간 만들기

1. 책 속 문장의 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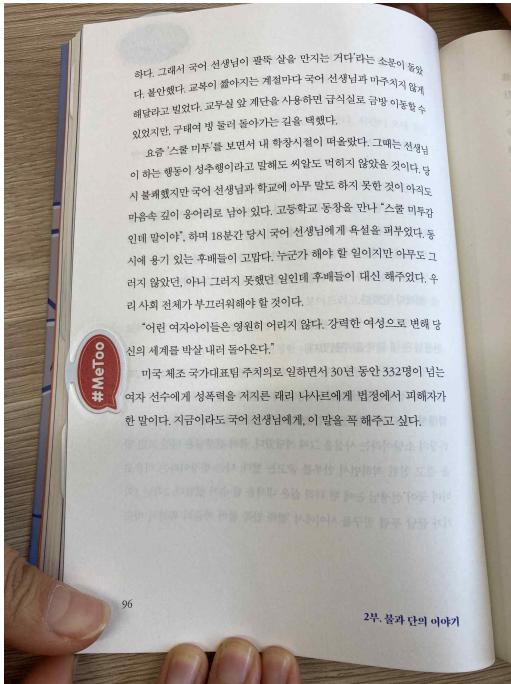
1) 문장에 혼적 덧입히기

일반적으로 글을 읽는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의 내면 혹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글은 물질적 형태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글을 읽고 쓰는 리터러시 실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물질성(materiality)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Burnett 외 2014: 97). 여기에서 물질성이란 글이 인쇄된 종이 혹은 책의 재질이나 구성과 같은 텍스트의 물질성과(Walker 2013)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는 물리적 환경(Blewett 외 2016),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의 신체적 경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King 2019: 97). 이번 절에서는 특히 텍스트의 물질성에 주목하여, ‘위폐’ 멤버들이 인쇄된 책이나 전자기기를 활용한 전자책 앱(app)에 자기만의 흔적을 덧입히는 실천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책갈피를 끼우거나 탈부착이 쉬운 종이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인덱스(index)를 사용하는 행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책갈피나 인덱스는 독자가 책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위폐’ 멤버들처럼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이나 반복해서 확인하고 싶은 문장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책갈피와 인덱스는 독자가 책을 덮고 있거나 다른 페이지를 펼치고 있어도 눈과 손으로 그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책갈피와 인덱스를 하나의 지침으로 삼아서 책 속의 여러 페이지를 넘나들며 저자와 편집자가 구성해둔 글의 구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읽기의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래 [그림 1]은 멤버 예은이 정기 책모임 2-1에서 읽었던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2020)의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취재하고 보도하였던 보도팀 추적단 불꽃이 직접 쓴 취재 르포이자 에세이다. 연구자와의 심층면담 당시 마침 이 책을 가지고 있던 예은은 책을 읽으며 “좋았던 구절을 많이 ‘북마크’ 한다”며 여러 개 꽂힌 책갈피 중 특히 좋았던 구절을 직접 골라 연구자에게 보여주었다. 예은이 책갈피로 표시한 문장은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되며 공분을 샀던 미국의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의 상습적이고 오랜 성폭력에 대한 ‘미투(MeToo)’에서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던 체조 선수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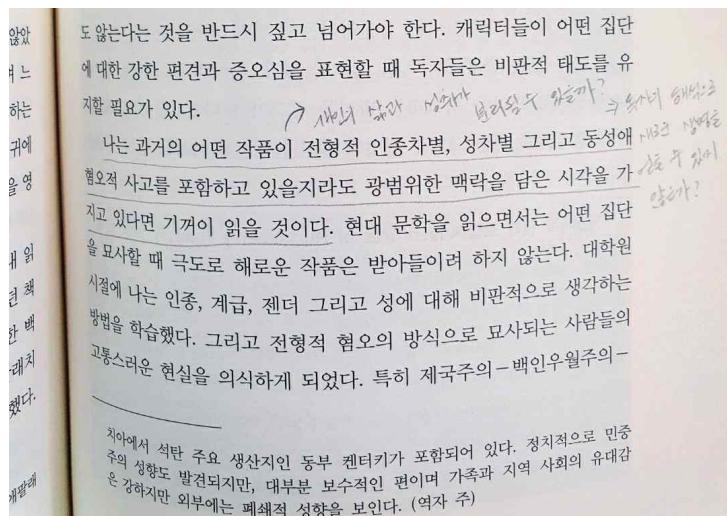


[그림 1] 책갈피 활용 예시
(촬영: 연구자)

책갈피와 인덱스를 사용하는 행위와 더불어, 책 위에 연필이나 샤프펜슬과 같은 필기구를 사용해 문장 아래 밑줄을 긋거나 책의 여백에 간단한 감상과 질문을 주석처럼 적는 행위는 이미 주어진 책의 구조에 독자가 능동적으로 개입하며 읽기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멤버 수아는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에서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연필로 밑줄을 긋는다고 말했는데, 밑줄을 긋지 못하는 상태를 “수갑 차고 요리하는 느낌” 또는 “제한 걸린 느낌”이라고 설명하였다. 수아의 설명은 책의 물질성이 리터러시 실천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은 멤버 이경이 ‘위폐’에 들어오기 전 참여했던 벨 흑스 읽기 모임에서 읽은 『비판적 사고 가르치기』(2019)의 한 페이지다. 이경은 저자의 “나는 과거의 어떤 작품이 전형적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동성애 혐오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광범위한 맥락을 담은 시각

을 가지고 있다면 기꺼이 읽을 것이다.”라는 문장에 밑줄을 긋고, 해당 문장의 바로 위에 남은 여백에 화살표를 그린 뒤 “개인의 삶과 성취가 분리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적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바로 옆에 “독자의 해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이어서 적어 두었다.



[그림 2] 이경이 직접 적은 메모들(제공: 이경)

이경이 책의 여백에 적은 두 개의 질문은 차별적 관점이 담긴 대중문화 작품을 감상하고 소비하는 행동을 일부 긍정하는 저자의 의견에 대한 이경의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이경이 이 책을 읽기 얼마 전, 프랑스의 한 국제영화제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수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순간 한 여성 영화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항의를 표하며 영화제에서 퇴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송출된 것이다. 이경은 아동 성범죄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유럽에서 수십 년의 도피 생활을 해오며 영화 창작을 계속했던 폴란스키 감독의 이력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림 2]에서 벨 혹스의 글에 밑줄을 그은 직후 “개인의 삶과 성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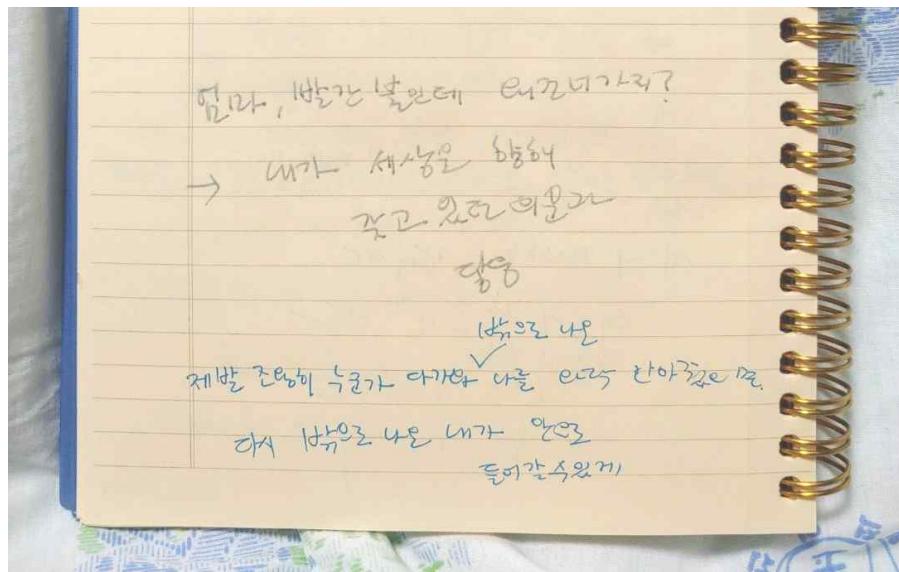
분리될 수 있을까?”라고 적은 것은 작가와 작품이 분리될 수 없고, 작가의 비윤리적 행동과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 저자의 주장에 대한 이경의 반박으로 볼 수 있다. 그 옆에 “독자의 해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쓴 것은 여전히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의도를 가늠해보는 과정에서 떠오른 질문이라고 한다. 이경이 남긴 두 질문은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타파하자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작품 속 차별적 상황뿐 아니라 작품의 창작자가 행한 차별적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처럼 밑줄을 긋고, 떠오른 질문을 여백에 적어봄으로써 이경은 페미니즘에서 제기되는 대중문화와 소수자 차별의 문제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새롭게 접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시선을 넓힐 수 있었다.

이처럼 ‘위폐’의 멤버들은 책을 읽으며 책과 텍스트의 물질성에 능동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저자가 구성한 책의 구조와 의미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책갈피나 인덱스를 활용하고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남김으로써 구매할 당시엔 모두에게 똑같은 형태의 책이 독자의 흔적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된다. 독자의 흔적이 덧입혀진 책은 멤버 개인의 생각과 저자의 글이 만나는 물리적 장소라고 볼 수 있다. 텍스트의 물질성에 독자의 흔적을 남기는 리터러시 실천을 통해 ‘위폐’의 멤버들은 페미니즘 도서 속 지식을 비판적으로 학습한다.

2) 옮겨적기를 통한 책의 해체와 재구성

‘위폐’의 멤버들은 책을 읽으며 마음에 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기억해두고 싶거나, 혹은 정기 책모임의 발제문에 사용할 문장을 책이 아닌 다른 곳에 옮겨적고 생각과 질문을 덧붙이곤 한다. 본 절에서 말하는 ‘옮겨적기’ 실천은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을 있는 그대로 적는 필사와는 다르다. 필사가 책의 구성과 저자의 문장을 문자 그대로 ‘베끼는’ 실천이라면, 옮겨적기는 독자가 자신의 원하는 곳에 쓰고 싶은 문장만을 쓴다는 차이가 있다. 저자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

고 일부 단어나 문구를 삭제하거나 문장의 통사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문장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책 속의 텍스트는 저자가 의도한 본래의 구조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가 제공하는 새로운 맥락에 재배치된다. 이렇게 책을 읽으며 옮겨적은 문장들은 나중에 발제문을 쓰거나 정기 책모임에 재맥락화 되며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다(김애령 2020: 64; Bauman · Briggs 1990).



[그림 3] 초승의 옮겨적기 사례(제공: 초승)

위 [그림 3]은 “책에 낙서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 하는 멤버 초승이 정기 책모임 2-4에서 함께 읽었던 『김지은입니다』(2020)에서 옮겨적은 문장들의 모습이다. 『김지은입니다』는 2018년 유명 여당 정치인의 수행비서였던 저자의 자전적 글을 모은 에세이로, ‘미투’ 고발 이후 저자가 겪은 고통의 심경과 일상 회복의 의지가 담겨있다. 초승은 정기 책모임이 열리기 전 이 책을 읽으며 위와 같은 메모를 작성했고, 이후 정기 책모임에서 이 메모를 참고하여 대화에 참여하였다. [사례 9]와 [사례 11]은 [그림 3]에서 초승이 옮겨적은 문장들이 포함된 책의 본문을 직접

인용해온 것이다.

[사례 9] 초승이 옮겨적은 문장이 포함된 본문 1

어느 날 작은 횡단보도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빨간 불인데 하나 둘 건넜다. 그랬더니 곁에 서 있던 작은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① “엄마, 빨간 불인데 왜 건너가지?” 어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아이가 알고 배워온 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저렇게 되면 다친다고 들었는데, 왜 저러는 걸까?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결국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을 한다. ②아이의 물음은 내가 세상을 향해 갖고 있던 의문과 닿아 있었다(김지은 2020: 167).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란 제목의 이 글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그리고 강제 추행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가해자의 징역형이 결정된 직후, 비공개에 부쳐졌던 재판의 판결문 전문이 익명 처리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람들의 손을 거치기 시작하며 피해자인 저자가 느꼈던 심경을 적은 글이다. [사례 9]에서 인용된 횡단보도 일화를 시작으로, 저자는 재판에 관여한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할 수도 손에 넣을 수도 없는 판결문의 전문이 어떤 경위에서인지 기자의 손에 들어가고, 언론 곳곳에 보도되기 시작하다 종국엔 지인을 거쳐 피해자인 저자의 손까지 들어온 현실을 비판한다.

[그림 3]에서 초승이 옮겨적은 첫 문장들을 살펴보면, [사례 9]에서 그대로 옮겨적은 문장과 옮겨적는 과정에서 수정을 거친 문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초승은 발췌된 문장 중에서 문장 ①과 ②의 밑줄이 그어진 부분만을 노트에 옮겨적었다. “엄마, 빨간 불인데 왜 건너가지?”라는 문장과 “내가 세상을 향해 갖고 있던 의문과 닿음”이라는 문장은 초승이 적은 화살표 기호로써 연결된다. [사례 10]의 수아와 초승의 대화 사례를 보면, 초승이 옮겨적은 문장들의 의미가 비윤리적인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지적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0] 정기 책모임 2-4

수아: 남성 정치인들을 보면 한국 정치에 시니컬해지는 걸 넘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된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성폭력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김지은입니다』가 드라마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폭력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정말 안돼, 진짜 안돼”라고 생각하는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초승: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해요. 김지은님이 “엄마 사람들이 빨간 불인데 왜 건너”라는 말이 “내가 세상에 갖고 있던 의문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그런 문제인가? 누군가 위력을 행사해서 누군가를 성폭행하고 상처 주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알려줘야 하는 일인 건지. 김지은님에겐 이게 빨간 불에 건너지 않는 약속처럼 쉬운 약속인데 말이죠. 시스 젠더¹⁹⁾ 남성, 백인, 정규직 남성, 권력을 가진 남성에게는 꼭 다시 알려줘야 하는, 섬세한 감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유명 정치인의 성폭력 피고발을 여러 차례 접하며, 멤버 수아는 사회가 성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초승은 이런 수아의 말을 들은 뒤 자신이 메모한 문장을 인용함으로써 본문의 맥락에서 부적절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일화 속 문장들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마치 빨

19) 시스 젠더(cis gender)란 생물학적 성과 젠더정체성이 일치하는 상태 혹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과 같은 행동이며, 어린아이도 알고 있을 만큼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자체에 비판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만도 못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초승이 옮겨적은 두 번째 문장 역시 정기 책모임의 맥락에서 본문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두 번째 문장은 <또다시 자학>이라는 제목의 글에 포함된 문장으로, 가해자의 2심 판결 확정 뒤 주변인과 언론으로부터 접한 2차 가해로 인해 저자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해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자신의 곁에 누군가 위로를 건네줬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아래의 [사례 11]은 초승이 옮겨적은 문장이 담긴 책의 본문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사례 11] 초승이 옮겨적은 문장이 포함된 본문 2

(전략)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내 안의 내가 밖으로 나왔다. 나는 지금 나를 잃었다. 내가 아닌 것만 같다.

③ 제발 조용히 누군가 다가와 밖으로 나온 나를 와락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 분노가 멈출 수 있게 심장과 심장으로 “그래, 나도 너의 그 맘을 알아. 이해해. 공감해. 동의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④다시 밖으로 나온 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김지은 2020: 218-219)

[그림 3]에서 초승은 문장 ③을 그대로 옮겨적고 문장 ④의 동사(“좋겠다”)를 생략하였다. [사례 11]의 본문을 살펴보면, 저자는 자신의 신체에 스스로 폭력을 가하며 “내가 아닌 것만” 같은 경험을 하는 동안 고통을 경험한 자신을 분리하여 “밖으로 나온 나”로 이름 붙이고, 그런 자신을 다른 누군가 “안아” 줌으로써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여 “다시 안으로” 들어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초승은 정기 책모임 2-4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사례 12] 정기 책모임 2-4

민서: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이번 글 읽으면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초승: 저는 이 문장이 좋았어요. 일기 부분 있잖아요. 자기가 밖으로 나갔을 때, “누군가 밖으로 나온 나를 와락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내가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이게 연대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밖으로 나온 누군가 있다면 그때는 꼭… 안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자의 글이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추측성 보도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치유의 과정을 비유한 것이라면, 초승은 이를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때 저자가 고통받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비유하는 “밖으로 나온 나”는 초승의 말에서 “밖으로 나온 누군가”가 되어 성폭력 피해자라는 일반화된 존재로 해석되었다.

이처럼 뛰어넘기 실천은 책의 저자가 제시한 구조를 독자가 해체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리터러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초승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뛰어넘기 실천을 통해 정기 책모임에 재맥락화된 문장들은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일반적이고 사회정치적인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었다. ‘위폐’의 멤버들이 페미니즘 도서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책 속의 문장을 뛰어넘기로써 정기 책모임이라는 새로운 맥락에 재배치하는 리터러시 실천은, 저자의 개인적 경험에 그치는 텍스트에 사회적·정치적 함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터러시 실천은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적·정치적 문제 의식을 서로 연결해주고 대화를 통해 성차별적 관습 및 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간주하는 페미니스트 폐다고지의 관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배유경 2018; 김민지 2020). 페미

니즘 지식은 학계나 운동계에서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어 대중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독자가 페미니즘 도서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책 속의 사례, 나아가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상황을 연결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다.

3) 책모임의 안내서 - 발제문의 구성

책모임 ‘위페’에서 발제문은 모임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안내서 이자 지침이다. ‘위페’의 멤버들은 입을 모아 발제와 발제문이 모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멤버들에게 발제자는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또는 “화두를 던져주는 사람”이다. ‘위페’의 발제자는 자신이 맡은 책을 요약하고, 함께 토론할 의제 3개를 포함한 자유 형식의 발제문을 미리 온라인 채팅방에 공유한 뒤, 정기 책모임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고, 모임이 끝난 뒤 토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SNS 계정에 공유해야 한다.²⁰⁾ 연구자가 참여 하던 중 발제자가 예고 없이 불참해 발제자 없이 진행된 정기 책모임이 한 차례 있었는데 이날 참여자들은 간간이 부재중인 발제자를 떠올리며 발제문에 쓰인 질문의 의미를 곱씹느라 대화가 자주 끊기고 책의 내용에 대한 감상 이상으로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지지 못했다. ‘위페’의 정기 책모임에서 발제자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화이다. ‘위페’에서는 발제문의 양식과 분량을 명확하게 정해두지는 않았으나, ‘위페’의 멤버들이 작성해 공유한 발제문은 발제자의 개인적 일화를 중심으로 재해석된 책의 요약과 다른 멤버와 함께 토론할 질문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① 개인적 일화를 중심으로 한 요약

20) ‘위페’에서 발제자가 맡은 이 역할들은 연구자가 예비 조사를 시작하기 전 온라인 채팅방에 작성됐던 소개 글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소개 글은 시즌1이 끝난 후 D 카페의 초대로 열린 자리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폐’ 멤버들이 발제문에서 책을 요약하는 명시적인 목적은 정기 책 모임을 시작할 때 책의 전체 내용을 환기해주기 위한 것이다. 요약의 목적은 책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책 속에 쓰인 문장들이 직간접적으로 인용된다. 또 정해진 분량을 모두 읽어오지 못한 멤버에게 책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해줌으로써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암묵적인 목적이다. 발제문에서 요약에 해당하는 부분에 직접 “이것만 알면 책 한 줄 읽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다!”라고 적은 초승은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에서 발제와 발제문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요약의 암묵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준다.

[사례 13] 초승(심층면담)

연구자: 평소에 발제문을 꼼꼼하게 읽어오는 편이세요?

초승: 그래도 나름 꼼꼼하게 읽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제를 하는 분을 주체로 (모임의) 분위기가 훌러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흐름이 이렇게 훌러가겠구나, 파악하고, 나도 이런 식으로 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요약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구자: 만약 내가 (발제를) 한다면?

초승: 아뇨, 그분이 그렇게 화두를 던져주셨으니까 저도 그 화두에 맞춰서 요약을 새롭게 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연구자: 그러면 초승님은 발제를 하는 게 이 모임에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초승: 아까도 말했듯이 화두를 던져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풍부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대신 열심히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읽지 않고 대화를 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멤버들이 발제문에서 책 전체를 압축적으로 요약만 하는 경우

는 많지 않다. 오히려 발제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재해석하는 요약이 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발제문의 요약은 멤버들이 함께 읽은 책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발제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된 내용이기도 하다. 발제자는 개인적 일화를 중심으로 책 속의 내용을 인용하고, 책에 관한 자신의 감상과 저자의 의도에 대한 해석을 함께 쓰고 있다.

[사례 14] 정기 책모임 2-4 발제문 (발제자: 민서)

김지은입니다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 난 나의 경험은 20대 초반에 알바로 했던 XX 은행 기업금융지점 사무직 알바였다. 나는 사무보조 일을 하고 6 개월마다 갱신하는 계약직 알바였고 시급 9000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 출근해서 옆에 계장님 업무개시와 시재 체크 등 루틴한 업무들을 도와드리고 기업관련해서 손님오면 차와 담당자에게 안내를 도와드리는 사무보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점장님이 시키는 걸 다하는 약간의 비서업무도 있었다. 나를 배려한다고 하는 말들에서 왜 기분이 나빴는지 그때는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다. 김지은입니다를 읽으면서 그 이유가 몹시 뚜렷해지는 경험을 했다.

물론 나는 퇴근 후에 부름이나 부름이나 불필요한 술자리 강제 참석과 같은 일이 있진 않았지만 지점장에게 일상적으로 화장, 복장, 표정, 말투를 지적받았고 고쳐야 했다. 굽 없는 단화를 신고 다녔는데 굽이 5 센치 정도 높은 구두를 신으라는 소리를 들었고, 머리를 단발에서 조금 더 잘랐더니 전에 단발이 더 예쁘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다.

그리고 이런 발언들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았는데 차장급 여성직원에게도 했다. 그 차장님은 50대에 두 아들은 둔 어머니이시기도 했는데 옷에 관심이 많은 분이셔서 항상 멋있고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금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 지점장님은 그런 옷은 민서가 입어야 된다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중략)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고서는 알바를 관둬야 했다.

사실 이런 일들을 말해도 다들 쉬쉬했는데

지점장이 하는 해당 지역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큰일 앞에 내 일은

작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게 있어 큰일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라고 한 김지은씨의 말이 와닿았다.

충남도청의 상급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였던 계약직 여성을 성희롱한 사건 이후 피해자가 1차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연봉을 깎는 기안을 작성해서 올리고,

감독 공무원의 말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서약서에 피해자는 서명을 강요당했다는 이야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후략)

민서의 발제문은 수년 전 사무보조 겸 비서업무를 중심으로 한 계약직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는 개인적 일화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아르바이트하던 당시 직접 보고 들었던 남성 상사의 성희롱과 성차별적 언행과 저자가 겪었던 “퇴근 후에 부름이나 불필요한 술자리 강제 참석” 요구 간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저자의 경험에 공감하였다는 것이 이 발제문의 골자이다. 민서의 발제문에서 자신의 고용 상태를 결정하고 업무를 지시하며 성희롱과 성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상사는 직간접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할 수 없도록 압박한 유력 정치인의 언행과 유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책 속에 등장하였던 충남도청의 기간제 근로자의 사례 역시 민서의 일화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고용 여부와 생계를 쥐고 있는 상사와 고용주의 암묵적이면서 노골적인 압박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호소를 입막음하는 “현실적” 인 이야기로 해석되고 있었다.

[사례 15] 민서(심층면담)

연구자: 발제문 쓰실 때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혹은 발제할 때 중요하게 넣어야겠다 생각했던 게 있었나요?

민서: 사실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일에 치이면 (하기 어려워요). 저는 독후감 쓰듯이, 일기 쓰듯이 써요. 발제라는 거창한 단어는

저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책을 읽고 제 경험에 빗대서 독후감을 쓴다고 생각하고 싸요. 그냥 책 안의 이야기를 제 경험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거기 있는 소재를 제 삶에서, 경험에서 가져다가 조금 쉽게 제 언어로 푸는 과정이 발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겐.

이처럼 발제자의 개인적 일화와 함께 읽은 책의 내용은 발제문이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책 속의 사례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해석하는 것이 발제”라고 대답한 민서의 말처럼, 발제자의 개인적 일화는 책을 요약하는 관점이면서 동시에 책 속에 담긴 저자의 경험 혹은 다른 사례를 통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확장되어 서로 공통된 또는 유사한 경험으로 재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책 속의 이야기와 발제자의 개인적 일화가 발제문이라는 형식에서 상호작용하며 차이는 축소되고 유사성이 더욱 부각 된다. 민서의 상사였던 은행 지점장과 『김지은입니다』의 저자의 상사였던 유력 정치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권위의 차이는 상당하다. 하지만 민서의 계약직 아르바이트 경험은 발제문에서 책 『김지은입니다』 속 저자의 경험과 충남도청 공무원의 사례와 함께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희롱과 성폭력 경험으로 일반화되고 있었다.

② 질문하기

발제자의 개인적 일화를 바탕으로 한 요약이 책 속 사례와 발제자의 개인적 경험을 연결한다면, 발제의 질문 항목은 발제자의 경험을 통해 재해석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멤버의 해석, 의견, 생각을 물음으로써 발제문을 개인적 일화와 책에 대한 발제자의 해석이라는 자기 고백적 차원을 넘어 정기 책모임이라는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 위치시킨다. 발제문의 질문 항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각 책의 내용, 다른 멤버의 경험과 의견, 그리고 일반적인 이론과 개념에 관한 질문에 해당한다.

특히 멤버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질문은 정기 책모임에서 각 멤버의 개인적 일화와 책을 읽은 감상을 꺼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으로, ‘위폐’ 멤버들의 개별적인 리터러시 실천과 경험을 정기 책모임에서의 집단적인 리터러시 실천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bridge)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의료계의 성차별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2019)를 발제한 이경은 발제문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질병 경험으로 자주 병원을 방문하면서 자신이 겪은 증상의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거나, 그 원인을 “여성의 예민함” 또는 외모 관리를 위한 “지나친 다이어트” 등 여성 환자의 성별 문제로 환원하는 의료진과 주변인의 반응을 중심으로 책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다음 [그림 4]와 같이 멤버들의 질병 경험과 의료 현장에서의 성차별 경험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

- 1) 책 속 사례처럼 질병에 대해 부정당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것이 성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 2) 병원에서 겪은 성차별적 상황이 있는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 할지 같이 이야기해보기

[그림 4] 정기 책모임 3-2 발제문 중 ‘질문’ 항목 (발제자: 이경)

이처럼 ‘위폐’ 멤버들이 쓴 발제문 속에 질문을 포함시키는 것은 책과 발제자의 개인적 일화의 의미가 발제문에서 완결되지 않고 정기 책모임에 참여할 다른 멤버의 해석을 기다리는 미완결의 상태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발제자가 정기 책모임의 방향과 흐름을 사전에 고려해 발제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책모임에서는 발제의 의도와는 다른 주제 혹은 일화가 질문을 통해 등장함으로써 준비된 질문이 생략되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기 책모임의 이야기 구조와 리터러시 실천

1) 책을 통한 자기 서사의 구성

페미니즘 책모임 ‘위페’는 소수의 20·30대 여성만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멤버들은 서로의 사적인 정보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사실상 익명에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 스스로 ‘여성’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이름과 나이, 직업이나 소속 등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할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내밀하고 사적인 경험을 털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멤버들은 함께 읽은 페미니즘 도서와 발제문을 바탕 삼아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을 하나의 자기 서사로 재구성하여 말함으로써 자기 서사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자기 서사’란 정기 책모임의 맥락 속에서 재구성된 멤버 개인의 이야기를 뜻하는 것으로, 함께 읽은 책에서 다뤘던 여러 주제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나 주변 지인의 이야기를 정기 책모임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이야기다. 이때 발제는 발제자의 자기 서사와 이야기 구성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모임의 시작을 알리고 다른 멤버가 참고 할 수 있는 자기 서사 구조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정기 책모임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기 책모임을 진행하는 발제자의 역할이란 구체적으로 다른 멤버에게 책과 개인적 일화를 연결함으로써 자기 서사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다른 멤버의 호응과 대답을 유도하며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사례 16]은 정기 책모임 3-2에서 발제를 맡은 멤버 이경의 자기 서사 중 일부이다. 이날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접속이 늦어질 것 같다고 예고한 예은을 기다리며 연구자와 이경, 수아가 최근 읽고 있는 책을 서로 소개하며 간단하게 균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발제문

낭독이 끝난 뒤 이경은 자신의 발제에 [사례 16]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사례 16] 직전 이경은 월경통이 심해 병원 방문이 잦았음에도 월경통을 당연시하고 원인을 궁금해하지 않았던 지인의 이야기로 다시 이 책의 문제의식을 환기해주었다.

[사례 16] 정기 책모임 3-2

1. 특히 빈혈 같은 경우에 여성적인 질환이라는 편견이 있고,
2. “네가 영양섭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그 증상에 비해 병원에서 해주는 대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빈혈이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서
4. “변의 색이 너무 까맣게 변하면 응급실에 와야 한다,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서. 그리고 뛰면 안 된다” 고도 하시고.
5. “언제 쓰러져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요?”
6. 그런데 “입원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너무 힘드시면 입원을 하시든가 하시고, 아니면 뛰지 않고 심장마비가 오지 않게 본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는 거예요.
7. 그때 너무 충격이었고.
8. 빈혈 증상이 심각하면 헛구역질을 계속하거든요, 뇌까지 피가 못 가서. 그런 증상이 계속 있으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죠.
9. 근데 “어디가 아파?” 물어볼 때 빈혈이라고 대답하면 “건강관리에 신경 좀 쓰지, 밥 좀 잘 먹지, 그걸로 병가를 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10. 그 빈혈의 위험도가 여성이 많이 겪는 증상이라서 그 심각성이 절하되어있는 것 같아요.
11. 저도 제가 겪기 전에는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증상을 떠올렸거든요.
12. 그래서 여기(책) 나와 있는 사례들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살 수 없겠구나 말할 정도로 괴로운데 공감해줄 사람이 없다? 근데 내 병을 고쳐 줘야 하는 의사조차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마음의 병이 들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례 16] 속 이경의 자기 서사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이경이 직접 겪은 개인적 경험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진 ‘빈혈’로 인한 신체 증상과, 이를 대하는 병원 의료진과 주변인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3~6, 8~9). 둘째,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이경 자신의 평가이다. 과거에 겪었던 질병 경험과 당시 의료진의 대응은 정기 책모임이라는 맥락에서 “충격” 적이었던 것으로 재평가된다(7). 셋째, 개인적 경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편견에 관한 설명이다. ‘드라마’라는 대중문화를 예시로 들며, 이경은 자신이 겪은 빈혈과 같이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의 위험성을 가볍게 다루는 사회적 시선과 편견을 이야기하고 있다(1~2, 11). 넷째, 책과 자기 경험의 관련성이다. 이경은 과거 빈혈 증세가 일상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심각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의료진의 대응과 빈혈로 인한 증상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주변인의 반응을 바탕으로 책 속의 사례에 공감하고 있다(12).

발제자 이경이 발제문 뒤에 덧붙인 자기 서사는 발제문 속 ‘질문’을 통해 다른 멤버의 자기 서사로 이어지고 있다.

[사례 17] 정기 책모임 3-2 (이어서)

13. 이경: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해요.
14. (침묵)
15. 이경: 각자의 책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감이 없으시면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6. 예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소감부터 말할게요.
17. 이 책 제목의 질문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의료계의 권위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
18. 책을 읽다 보면 이들이(의사들이) 원인을 밝히지 못했거나 치료법을 모르는 것을 스트레스로 입막음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19.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내가 히스테릭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왔던 사람 중 하나여서
20.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을 생각하게 됐어요.
21. 제가 이전에 받았던 의료 행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여성이라서 그랬나?
22. 저 편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검사를 한 가지 정도, 자율 신경계에 대한 검사를 했고.
23.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럼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24. 이게 끝이었거든요.
25.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7, 8년을 편두통을 앓아왔어요. 최근에 다시 발병해서 검사를 받으러 간 거였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문제는 그 약을 먹고도 두통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26.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아무 의심 없이, 의사가 그렇다면 그렇구나, 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약 같은 것도 찾아보고 병원에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7.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소감은.

[사례 17] 속 예은의 이야기에는 이경의 자기 서사와 공통된 요소가 있다. 먼저 편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에서 내린 처방과 편두통 증상에 대한 의사의 대응을 묘사하고 그러한 대응에 대해 정기 책 모임의 시점에서 평가했다(22~24). 그리고 여성 환자의 질병이 환자의 스트레스나 히스테릭한 기질에서 비롯됐다는 사회적 통념을 언급하였으며 (18), 자신의 편두통을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탓으로 돌렸던 의사의 반응 역시 이러한 통념에서 기인하였다는 책의 논조를 바탕으로(21) 책 속의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며 의사의 처방과 반응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과거의 경험을 성찰하였다(17, 20, 26).

이경과 예은의 자기 서사는 모두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통념 및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과거의 개인적 일화를 재구성하여 고백하고, 책을 통해 학습하게 된 논지를 바탕으로 과거의 경험을 평가하는 구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질병 경험을 평가 절하하고, 그 원인을 히스테릭, 예민함,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도한 식단조절과 같이 ‘여성적’ 기질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다이어트에 돌리는 통념이 여성의 건강을 저해하는 사회적 기제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경과 예은 두 사람의 자기 서사는 책 속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하게 된 저자의 논지를 통해 과거 자신의 경험을 평가하고 성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물론 멤버들이 저자의 주장이나 책 속의 사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경과 예은의 이야기가 끝난 뒤, 멤버 수아는 통증에 관한 책 속의 양의학적 관점과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의학의 관점을 서로 비교하며 책의 저자가 통증의 긍정적인 함의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례 18] 정기 책모임 3-2(수아)

28. 저는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고, 새로웠어요.
29.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30. 저는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는 편이에요.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 나오는데, 저는 통증을 느끼는 거죠. 심장이 어디가 조이고, 열이 나고. 저는 스스로 못 믿어주다가 한의원에 가니까 제 통증에 대해 설명해주시더라고요.
31. 그래서 의료계의 이런 일에 대해 잘 알지만 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2. (이 책이)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수치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걸 보고 여성의 고통에 대해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여성) 스스로 살피고 도울 수 있는 부분에 관해 더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었고.
33. 이 책에서 공감하지만 안타까웠던 건 월경통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 부분이에요. 통증을 당연시 하는 건 분노해야하지만 그 통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증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성·남성 중

심의 의료 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수아의 이야기 역시 앞서 이경과 예은의 자기 서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책에 소개된 사례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고(30) 이를 바탕으로 책의 사례와 논지에 관해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31~32). 자신이 경험하는 통증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던 양의학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수아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양의학의 성차별적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관심했던 것은 애초에 양의학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탓이다. 양의학에 관한 수아의 주관은 서구 의학계의 성차별적 관행을 비판하는 저자와 유사하지만, 통증을 터부시하는 저자의 관점을 비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33). 이처럼 ‘위폐’의 멤버들은 함께 읽은 책을 참조하며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성찰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발제자를 필두로 시작된 자기 서사의 말하기가 모임에 참여한 멤버들에 의해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사례 17]과 [사례 18]에서 볼 수 있듯이 예은과 수아의 자기 서사는 이경의 발제와 질문, 그리고 자기 서사에 대한 예은과 수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경의 이야기를 들은 예은이 편두통 증세의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했던 유사한 경험을 이야기했고, 수아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통증’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이야기하였다. 다시 말해, 정기 책모임의 자기 서사는 이야기의 복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기 서사의 중첩과 연속인 것이다.

멤버들의 서로 다른 자기 서사를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퇴장 기술” (exit technique) “과 “진입 장치” (turn-entry devices)가 필요하다(Sacks 외 1973: 718-719). 예를 들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소감부터 말할게요.” (16)라는 예은의 말은 본격적으로 자기 서사를 말하기에 앞서 사용되는 진입 장치로 이후 자신이 하는 말은 책에 대한 감상을 물었던 이경의 질문(13, 15)에 대한 대답이라는 맥락화 단서를 제공하는 발화인 것이다. 또 예은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대화 상황에

서 “여기까지입니다. 제 소감은” (27)이라고 말하는 퇴장 기술에 이어 수아가 “저는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고, 새로웠어요.” (28)라고 말한 것 역시 예은의 사례(16)와 같은 진입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아는 예은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경의 질문에 대한 대답 (28)으로 발화를 시작한 직후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29)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발화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후 수아의 자기 서사가 통증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봤을 때 이는 이경이 언급했던 지인의 월경통 이야기와 예은의 편두통 경험을 의식한 발화라고 해석된다. 즉, 수아는 자신의 통증 이야기가 책뿐만 아니라 이경의 이야기와 예은의 이야기를 참조하여 재구성된 자기 서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경과 예은이 “여성적인 질환” (1) 또는 “여성이라서 그랬나?” (21)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수아의 자기 서사에서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사회문화적 성별은 직접 언급되지 않고 있다. 대신 통증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비교되고 있는데, 이후 이경에 의해 책의 주제를 벗어난 대화의 초점이 다시 의료계의 젠더 편견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례 19] 정기 책모임 3-2

수아: 갑자기 SNS에서 월경, 생리를 이렇게 온화하게 부르지 말자고 했던 게 생각나요. 임시 내장 파열, 이라고 말해서 그 고통이 전달될 수 있게.

예은: 그쵸.

이경: (웃음) 통증의 원인을 없애자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성이라서 오히려 내 통증에 대해 100% 다 말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고 생각해요.

수아: 그럼요. (말할 수 있게) 배려해주지 않잖아요.

이경: 그런 편견. 남자가 잘 참고 여성이 예민해서 호들갑을 떤다는 이

미지가 있으니까 이걸(통증을) 절제해서 표현해야겠다, 이 책에 나와있는 상황처럼 안 아픈 사람처럼 될까봐, 그렇게 보일까봐. 그게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여성이 잘 대처했기 때문에 좋은 조치를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아: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꼭 여자가 병원에 가서 겪는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일러 하나 고칠 때도 말이죠. 보일러 고치는 아저씨들도 여자만 있을 때는 (고장났다는) 말을 안 들어주다가 남자가 나와서 항의하면 고쳐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위폐’의 정기 책모임에서 반복되어 말해지는 자기 서사를 통해 특수하고 개별적인 차원에 그쳤던 개인적 경험은 ‘여자’ 또는 ‘여성’ 일반의 이야기로 의미화되고 있다. 하지만 ‘위폐’에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멤버 간의 공통점으로서만 언급될 뿐 무엇이 ‘여성’인지에 관해서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폐’ 멤버들에게 ‘여성’이란 범주는 구체적인 자기 서사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확인되는 서로의 공통점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폐’ 멤버들이 말하고 전제하는 ‘여성’ 범주는 반복적인 일상에서 축적된 신체적·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시리즈(series)로서의 여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Young 1994). 영에 따르면, 시리즈란 구조적 관계 속에서 수동적으로 구성된 통일체로 개별적 삶의 물질적 조건과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Young 1994: 275). 결론적으로 정기 책모임의 자기 서사 말하기는 책과 멤버들의 개인적 경험을 연결해주는 실천이자 동시에 시리즈로서 ‘여성’ 범주를 멤버들의 공통점으로 재구성하는 실천이다.

2) ‘위폐’의 바깥에 관한 이야기

이번 절에서는 ‘위폐’의 정기 책모임 속 이야기가 어떻게 한국의 폐미니즘 대중화 및 ‘백래시’라는 거시적 맥락과 연결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멤버들의 자기 서사는 정기 책모임이라는 맥

락에서 ‘책’ 그리고 다른 멤버의 서사를 통해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 이 아닌 ‘여성’의 경험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자기 서사는 한국 사회의 제도나 구조 및 인식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거시적인 맥락과 연결되고 있다. 본 절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야기는 거시적 맥락, 즉 ‘위폐’ 바깥에 관한 이야기이다. 자기 서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폐’ 멤버들은 ‘위폐’가 아닌, ‘위폐’ 바깥의 세계에 관해 자주 이야기하였다. 이때 ‘위폐’의 바깥 세계는 여성 페미니스트만 모인 ‘위폐’ 내부와 달리 성차별적 제도와 관습 및 인식이 만연한 곳으로 상정되고 있다.

서사 혹은 내러티브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은 주체적 화자에 의해 인과적으로 조직된 자기 완결적 이야기에 관심을 둔다(Labov · Waletzky 1967, De Fina 2008a: 379–380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야기하고 듣는 행위의 의미가 전후의 대화나 행위, 이야기가 말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는 사실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탈리아계 이민 2세의 이탈리아 여행담과 (조)부모의 미국 정착기에 대해 분석한 De Fina는 이민자 중심의 이탈리아식 카드 게임 클럽이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함으로써만 여행담과 정착기란 이야기 장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De Fina 2008b).²¹⁾ De Fina의 연구는 특정한 모임 또는 공동체 내에서 반복적으로 말해지는 여행담과 정착기라는 서사 장르가 거시적 차원의 민족 정체성을 반영하는 한편 발화자의 민족 정체성을 재생산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De Fina의 관점은 서사를 거시적 차원의 사회 제도와 미시적 차원의 상호작용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실천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위폐’의 정기 책모임 속 이야기는 단지 페미니즘 책모임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멤버들 개개인의 사적이고 내밀한 경험을 ‘여성’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실천일 뿐 아니라, 페미니즘의 ‘리부트’ 와 이에 대

21) 한편으로는 여행담을 통해 모국 이탈리아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부모의 정착기를 통해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조함으로써 미시적으로는 카드 클럽에의 소속감을, 거시적으로는 ‘이탈리아계’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

한 ‘백래시’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라는 거시적 맥락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사례 20]은 정기 책모임 3-2의 후반부에 나타난 대화 상황이다. 병원에서 겪은 성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오가는 중, 발제자인 이경은 자신의 가족이 모두 가지고 있는 유전병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년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해서 장기에 생긴 염증으로 발생한 물혹을 제거해 줘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지 않는 남동생을 대신해서 직장 생활 하는 이경이 병원을 방문하는 어머니를 따라다니고 간병을 맡고 있었다.

[사례 20] 정기 책모임 3-2

이경: 어머니를 간호하러 가면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으로서 성차별적 상황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 가족이 와서 돌봄을, 병간호를 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고, 딱 한 케이스 본 것 같아요. 딱 한 케이스를 봤고. 나머지는 며느리, 아니면 딸. 여자 형제가 와서 병간호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문화라고 생각했던 게, 딸이 병간호하는 것과 아들이 병간호하는 것은 대우 자체가 다른 거죠. 딸이 병간호하는 것은 디폴트고 당연하고, 안 하면 비난의 대상이지만 아들이 일이 있어 못 오면 그럴 수 있고 한번이라도 오면 대단한거고. 수발을 들지 않아도 거기 존재 자체만으로 효도를 하게 되는. 되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많이 생각했어요.

수아: 환자가 남자여도 그렇다는 거죠?

이경: 네. 특히 시아버지의 병간호하는 며느리가 많아서 놀랐어요. 기저 귀를 갈아주고. 이런 걸 며느리가 하더라고요. (중략)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초반에 제가 5년 6년 전쯤에는 거기서 상주해 병간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스몰토크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혐담하고 있는거죠. “딸이 효녀다, 대단하다” 이랬더니, 본심은 아니셨겠지만 “결혼을 해야 효녀지 여기서 병간호를 하면….” 저는 개의치 않기 때문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지금 나한테 사과하라고 뭐하는 짓이냐고, 연차 써서 왔더니 뭐하는 거냐고.” 이거 몇 번 안 고쳐져서 싸우고, 응급

실에서도 싸운 적있어요. 너는 딸로서 당연히 병간호를 해야되는 건데, 이래서 또 폭발하고. 개(남자 형제)는 와서 오지도 않는데 내가 구질구질하게 이런 얘기까지 해야겠냐고 뭐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인턴이 와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중략)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아들이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만약에 아들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연가를 쓰고 자기를 병간호하라고 할까? 제 남동생은 지금 일하지 않고 있거든요 나 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럼 남동생이 하는게 맞는데, 연차를 내가 써서 병간호를 하게 되는게 성별에 좌우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예은: 저는 생각한 게, 직업으로 간호할 때 체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환자를 들고, 옷을 갈아입히고. 물리적인 힘이 많이 필요한데 젊은 남성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지컬이 좋다면, 간병을 하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간병을 봉사처럼 여기고 그걸 여성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경의 이야기에 대해, 예은은 여성 간병인이 많다는 사회적 경향을 전달함으로써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이경이 보고 들은 이야기가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예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육체적 힘과 남성성에 관한 사회적 통념을 활용해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남동생 대신 직장을 다니는 여성인 이경에게 돌봄 의무가 부과된 현실을 비틀어 비판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정기 책모임 3-1은 연구자가 발제를 맡았던 책모임으로, 함께 읽었던 책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2017)은 남성과 여성의 연애와 사랑, 가족에 관한 서구 사회의 차별적 편견을 일부 과학계가 재생산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추적한다. 이 책은 저자가 서구 사회의 성차별적 관점이 과학적 지식으로 포장되는 논리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반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구성이 이렇다 보니 이날 정기 책모임에서는 주로 주변인의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토론이 오갔다. 특히 미연

과 수아는 남동생이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남동생의 인식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잘못됐음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식의 간극에 대해 열렬히 토론했다. 아래의 [사례 21]은 연구자가 미연과 수아가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환기한 직후 초승이 꺼낸 이야기이다.

[사례 21] 정기 책모임 3-1

연구자: 벌써 9시 15분이네요. 저는 아까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재밌었는데 수아님하고 미연님이 남동생 얘기했던 거?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여성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이든 책이든, 아니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든 좋지만. 뭐랄까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는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설명해야 하는 문제인가? 그렇게까지 해서 설명해야 하나? 이해를시키고 납득을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특히 그게 가족이라면. 어떻게 그 갭을 줄이면 좋을까요?

수아: (웃음)

연구자: 어휴, 어려운 질문이죠.(웃음)

초승: 근데 끝없이 말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페미니즘이다, 여성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퍼센트라고 확신하거든요. “나 페미니즘, 여성주의 공부해”라고 얘기하면 “왜 여자만 챙겨?”, 저는 100프로다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거기에 적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포기하기도 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모임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이 해주시는 말이나 이런 걸로 새로운 페미니즘을 배우기도 하고.

초승의 이야기는 ‘위페’의 멤버들에게 ‘위페’와 같은 페미니즘

소모임 바깥의 세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초승에게 한국 사회는 폐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무지가 널리 퍼져있는 곳이다. 이미 폐미니즘을 “여자만 챙기는” 운동 혹은 사상으로 여기며 이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고, 많은 사람이 이에 “적응했기” 때문에 폐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그에 반해, ‘위폐’는 폐미니즘에 관해서, 폐미니즘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고민과 고초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간주된다.

비록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익명에 기댄 여성 대중의 집단적 자기 서사가 발화되기 시작하였으나(김수아 2006; 윤보라 2011), ‘위폐’ 멤버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여성의 말하기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비난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느낀다. 때문에 멤버들에게 있어 ‘위폐’와 같은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나 소규모 모임은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나 폐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안전하고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바깥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위폐’는 멤버들에게 폐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침범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다.

[사례 22] 정기 책모임 2-4

이경: 저는 『김지은입니다』(2020)를 읽고 『미투의 정치학』(2019)을 읽으니까 그 과정을 잘 알게 되었거든요. 재판의 과정을 자세히 쓰셨고, 어떤 부분이 말이 안 됐는지를 읽으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언론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투는 일종의 정치 공작이다”라는 혀소리를 했었죠. 많은 여성들이 이거에 반박을 했었어요. 이전에는 이런 말을 그 언론인이 하면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훨씬 더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투를 지지하지만 정치 공작으로 쓰는 미투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김지은입니다』가 계속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중략) 여전히 답답하긴 하죠. 그래도

저는 김지은 씨가 앞으로 책을 여러 권 내고,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싶은데.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이런 걸 하는 보람이 있겠다.

정기 책모임 2-4가 마무리될 무렵, 발제자였던 민서는 멤버들에게 책 『김지은입니다』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경은 저자의 성폭력 피해 고발을 정치 공작으로 평하며 ‘미투’의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한 팟캐스트 언론인의 발언을 언급한다. 유명 팟캐스트 언론인이 제기한 정치 공작 의혹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회적·정치적 무결함을 요구하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요구가 한국 사회에 만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전보다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주장에 쉽게 동조하는 사람이 적어졌으리라는 이경의 사회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이경의 시선에서 ‘위폐’ 책모임은 김지은 씨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가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발판과도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위폐’의 정기 책모임이 상호 참조를 통해 연결되는 멤버들의 자기 서사를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멤버들의 개인적 경험이 ‘여성’ 일반의 경험으로 의미화된다면, ‘위폐’ 바깥의 이야기는 멤버들의 자기 서사에 거시적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폐’라는 공간에 여전히 여성에게 차별적이고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외부와 상반된 의미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페미니즘과 여성에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공간으로 상정되는 ‘위폐’ 밖의 사회와 비교했을 때, ‘위폐’는 훨씬 안전하고 편하게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털어놓고 페미니즘에 관한 토론함으로써 페미니즘 공간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3) 침묵의 조정

‘위폐’에서 침묵의 의미는 대개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혹은 한 멤버가 자기 서사를 말하는 동안 종종 발생하는

침묵은 반응 없음 혹은 듣고 있지 않은 상태로 여겨진다. 더군다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이 극심해지고 정기 책모임이 비대면으로 이어지면서²²⁾ 서로의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기민하게 포착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대면 모임에서도 종종 나타났던 침묵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연구자는 정기 책모임에 대한 참여관찰을 진행하는 동안 멤버들이 대화 중간에 발생하는 침묵의 의미를 궁정적으로 조정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발제를 맡은 멤버는 책모임을 진행하는 역할에 대한 책임 의식을 기반으로 침묵을 보다 강하게 의식하고, 침묵이 길게 이어진다고 느끼면 다른 멤버에게 질문을 하거나 새로운 화제를 제안함으로써 침묵을 없애고자 했다.

[사례 23]은 정기 책모임 2-4에서 발제를 진행하는 멤버 민서가 과거 금융권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던 경험을 이야기하던 중 발생한 상황이다.

[사례 23] 정기 책모임 2-4

1. 민서: (전략) 이상하긴 한데 본부장님, 아니 지점장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여야 했던 그런 경험을 발제에 썼거든요.
2. 그런데 왜 다 ‘음소거’를 하세요?
3. 예은: (‘음소거’를 해제했다) 경청하고 있었어요.
4. 민서: 저는 리액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김지은 씨가 3차 재판 과정에서 “왜 네 번이나 당해?” 그 질문을 왜 가해자에게 물어보지 않았나,
5. 예은: 맞아, 맞아요.
6. 민서: 그쵸.
7. 그리고 재판장 질문 중에 가해자에게 물어보지 않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22) 비대면 정기 책모임은 줌(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설정에 따라 회의 참가자가 자신의 비디오와 오디오를 다른 참가자에게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

8.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사례 23]의 대화 상황은 발제를 진행하던(1) 민서가 다른 멤버의 반응 (“리액션”)을 듣지 못하던 중 ‘음소거’ 기능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2). 이때 마침 ‘음소거’를 하고 있었던 예은은 ‘음소거’를 해제하며 민서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민서의 발제를 듣고 있음을 드러냈다(3). 예은이 듣고 있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했음에도, 민서는 다른 멤버들에게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반응을 요구했고(4), 예은은 민서의 말 중간에 끼어들며 맞장구를 치면서(5) 민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

민서와 예은의 대화는 똑같은 침묵의 상황을 두고도 그 침묵의 의도와 의미에 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고, 침묵의 의미를 조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아도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기 힘든 비대면 모임 상황에서 발제를 진행하던 민서는 다른 멤버의 ‘음소거’ 상태를 듣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예은은 ‘음소거’ 상태였던 자신의 침묵을 ‘경청’으로 정의함으로써 민서의 해석을 조정해주고 뒤이어 맞장구를 통해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침묵 자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사례 24] 정기 책모임 3-3

9. 초승: (전략)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곤지름을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섹스에 대해 폭력적이었는지, 평등했는지,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래를 나눠서 얘기해봐요.
10. (예은의 접속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을 거친 뒤 침묵)
11. 초승: 성기와 생식기의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일시하게 됐는지 같이 얘기해볼까요?
12. 예은: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아, 죄송해요.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얘기할게요.

13. 연구자: 학교 교육에서 (성기와 생식기의) 분리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해 내 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 제를 가지고 책을 시작하는 게 좋았어요.

14. (침묵)

15. 초승: 다른 분들은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을까요?

16. (침묵)

17. 초승: (웃으며)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가요?

18. 수아: 부담은 아니고요 (웃는다). 그냥 뭔가… 사실 오늘은 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책 때문은 아니고 저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책의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끔 떠오르는 플래쉬백, 제가 겪었던 경험들, 그때 있었던 부당한 일이나 감정들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게 이 책의 주제랑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9. 초승: [아 근데, 그래도, 침묵보다는!]

20. 수아: 줌의 힘듦이죠, 침묵. 지난번에는 3분 넘게 침묵이 있었잖아요.

21. 초승: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 떠올랐던 다른 얘기라도, 부끄러우시지 않으시다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책모임 3-3은 여성 중심의 섹스를 주제로 다루는 『여자들의 섹스북』(2019)을 가지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위의 [사례 24]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묵을(10, 14, 16) 해소하기 위해 발제자였던 초승이 준비한 발제 질문을 환기하거나(11) 다른 참여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5). 이런 노력에도 침묵이 계속 발생하자 초승은 침묵을 듣지 않는 상태로 해석하기보다 침묵의 원인을 책의 주제가 “부담스러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17). 그러자 앞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수아가 초승의 판단을 부정하며 책의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떠올랐다는 이유로 자신의 침묵을 해명한다(18). 이후 “침묵보다는” 대화를 하자고 독려하는 초승

의 말과 침묵이 비대면 모임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이라고 덧붙인다 (19, 20). 위의 사례는 ‘위폐’에서 침묵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쉬우며, 이에 따라 멤버들이 침묵의 부정적 함의를 대화를 통해 해소하고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침묵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침묵의 의미를 경청으로 조정하여 해석하려는 것은 ‘위폐’라는 책모임의 페미니즘적 성격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위폐’ 멤버들에게 한국 사회는 성차별적인 구조와 인식이 만연하고, 또 여성이 공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성의 말하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곳이다. 이런 사회에서 ‘위폐’는 말 그대로 여성의 말하기가 가능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멤버들에게 ‘위폐’는 다른 어느 곳보다 여성의 말하기가 가능한 공간이며, 그러한 공간의 의미를 지속하기 위해 상대에게 자신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사례 23]에서 민서가 지적했듯이 침묵은 자칫하면 듣지 않는 상태로 해석되기 쉽다. 따라서 예은이 직접 “경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 쉬운 침묵의 상태를 긍정적인 언어적 실천으로 조정함으로써 페미니즘 공간으로서 ‘위폐’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애령은 스피박의 논지를 확장하여 서발턴 여성의 말하기를 넘어서서 언어, 몸, 심지어는 침묵을 통한 말하기를 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듣기의 윤리’를 요청하고 있다(김애령 2020: 148). ‘위폐’ 멤버들은 침묵의 의미를 조정하며 서로에게 ‘듣기의 윤리’를 요구하고 또 실천하고자 한다.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에서 “침묵도 대화” 라며 침묵의 긍정적 함의와 필요성을 역설하던 초승의 말은 김애령의 주장처럼 침묵 역시 말하기의 일종이며 그 의미를 ‘경청’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승에게 있어서 침묵은 책모임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를 곱씹고 되새기는 과정과 같다.

[사례 25] 초승(심층면담)

연구자: 혹시 이 모임에서 바라시는 게 있다면?

초승: 바라는 거… 만났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아, 만났으면.

초승: 더 풍부한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많은 말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 것도 너무 좋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서로 공유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뿐만 아니라 뉘앙스. 침묵. 저희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연구자: 말하지 않는 순간에 느껴지는 어떤,

초승: 어떤 질문을 물어봤을 때, 다,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너무 그 질문이 부담스러워서 입을 다물게 되고, 처음 생각해보는 질문인데, 해서 고개를 가우뚱하고. 그런 것들이 저를 다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집에 와서 생각하면, 왜 가우뚱했지? 이상하다. (이런 게)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어, 처음 들은, 처음 생각해보는 질문인데, 라고 해서 의아해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그런 것들이 저를 다 풍부한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죠.

이처럼 정기 책모임에 참여한 멤버들은 대화를 통해 침묵의 의미를 조정하며 ‘위폐’를 듣기의 윤리가 실현된 폐미니즘적 공간이자 모임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Keane 2016: 89). 정기 책모임에 참여하는 멤버들이 침묵의 존재를 부각하고 그 의미를 조정하는 것은 자칫 침묵이 다른 멤버의 이야기에 “개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수동적 듣기 행위로 여겨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김애령 2020: 210-211).. 즉, 침묵으로 인해 여성적 경험을 안전하게 말하고 들어

주는 페미니즘 공간으로서 ‘위폐’의 정체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침묵의 의미를 조정하는 것이다.

3. 저항적 말하기의 탐색

1) ‘책’에 대한 평가

“이 책에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을까요?” (미연)

진화심리학과 성차별적 젠더 편견의 연관성을 지적한 마리 루티의 책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2017)를 읽은 정기 책모임 3-1에서 멤버 미연은 위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날 책모임 내내 미연은 마리 루티의 책에 아쉬움을 표했는데, 이는 책에서 읽은 언어를 일상에서 “무기”로 활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미연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미연은 책의 저자가 젠더 편견을 정당화되는 소위 과학적 지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지만, 미연 자신과 같은 일반 대중이 유사한 종류의 젠더 편견을 마주했을 때 이 책의 언어적 표현과 논리로는 반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러한 미연의 질문과 문제 제기를 따라서, 정기 책모임 3-1에 참여한 멤버들은 루티의 책에서 소개된 개념과 논리를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활발히 토론하였다.

책에 대한 평가는 멤버들이 정기 책모임에서 읽게 된 페미니즘 도서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앞서 미연이 던진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 ‘위폐’의 멤버들이 책모임에서 읽은 책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한 가지는 자신이 책 속에서 사용된 언어적 표현, 나아가 논리와 지식을 일상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이때 멤버들이 말하는 ‘일상’ 이란 페미니즘 또는 여성에 친화적이지 않고, 심지어는 적대적이거나 무지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멤버들에게 이들을 둘러싼 한국 사회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페미니즘을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왜곡해 비난하는 곳이다. 멤버들은 이러한 ‘일상’에서 주변인으로부터 성별 고정관념이나 페미니즘에 관한 질문과 의견을 듣고 있고, 이는 종종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비난에 가까울 때도 있다. 페미니즘 도서는 멤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과 지식, 논리를 습득하는 수단 중 하나인 것이다.

[사례 26]은 앞서 본 미연의 발언이 등장하였던 정기 책모임 3-1에서 발췌한 연구자와 미연의 대화 내용이다. 저자 마리 루티는 “노골적인 성 관념”, 구체적으로는 미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연애 혹은 성애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특징을 단순화하여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을 일컬어 ‘젠더 프로파일링’이라 이름 붙였다(루티 2017: 15). 미연은 이 책에서 소개된 ‘젠더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과 이를 반박하는 과정을 저자가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논리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즉, 이 책은 미연에게 책 속의 언어적 표현과 논리의 활용 가능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 26] 정기 책모임 3-1

미연: 이 책에서도 젠더 프로파일링이 잘 먹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다수의 의견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MBTI 검사나 혈액형처럼요. (중략)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아쉬운 것은 그런 편리한 무기를 이 책에서 내가 얻어서 쓸 수 있을까? 우리가 논쟁할 때 막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가 있어, 이런 게 나왔어, 라던가. 그럴 때 이 책의 논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은? 궁금하네요, 저는.

연구자: 미연님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느끼시는 거죠?

미연: 만약에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수아님이 말씀하셨던 지배 계층의 논리를 반박하려는 워딩²³⁾을 우리가 쓰려고

23)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쓰는 구체적인 언어 표현을 의미하는 외래어(우리말 샘, 2021.10.24. 접속)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130132&viewType=confir

할 때 이 책의 논리가 편리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편리하게 느껴지는, 애써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무기가 이 책에 있을까요? 이 책에서 그런 걸 발견하셨나요?

‘위폐’ 멤버들이 책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또 다른 기준은 일상과의 관련성이다. 멤버들은 이론이나 개념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서적보다는 소설이나 에세이 등 자신의 일상과 밀접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서 본 루티의 저서는 미국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읽힌 연애 관련 자기계발서에 소개된 ‘과학적’ 근거가 내포하는 논리와 전제를 해체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진화심리학 분야 학자의 저서를 자주 인용하며, 그나마 사용된 사례들은 미국 사회에 익숙한 이성애 연애 관계나 가족 제도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루티의 책은 기획 회의에서 멤버들이 제안했던 에세이나 소설²⁴⁾에 비해 한국의 도시 사회에서 비흔으로 사는 2030대 여성인 ‘위폐’ 멤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는 책이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 초 ‘위폐’의 멤버들은 시즌 2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기획 회의를 열었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미연과 이경은 기획 회의가 열리기 전 온라인 채팅방에 자신이 추천하는 책을 미리 공유했고, 다른 멤버들은 회의에서 각자 한 권 이상의 책을 선정해 소개했다. [사례 27]은 수아가 후보 도서를 정리해 공유하던 중 미연이 미리 추천했던 도서가 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예은이 지적하는 상황이다.

m

24) 채택되지 않았지만 멤버 다솔이 에세이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2019)를 추천하였고, 세 번째 시즌 네 번째 모임에서는 예은이 추천한 단편소설집 『사라지는건 여자들 뿐이거든요』(2020)를 읽고 정기 책모임을 진행하였다.

[사례 27] 기획 회의

수아: 발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기 전에 우선 투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은: 네,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수아: 세 권이 가장 많은 투표로 뽑혔고요. 『왜 의사는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 『여자들의 섹스복』, 그리고 『사라지는 건 여자들뿐이거든요』 세 개요.

예은: 그런데 왜 미연님이 추천한 『에코 페미니즘』은 없나요?

수아: 소개를 자세히 안 해주셔서, 그리고 이건 저희 수준이 아직 너무 아니어서. 한 시즌에 네 번 나눠서 읽는 것도 벅찰 것 같아서요.

예은: 공감해요.

미연이 미리 추천했던 책은 마리아 미스와 반다나 시바의 공동저인 『에코 페미니즘』(2000)으로, 생태주의와 여성학을 결합한 생태 여성학 혹은 에코 페미니즘 분야의 고전과 같은 책이다. [사례 27]의 대화로 추정컨대, 수아와 예은에게 있어서 미연이 추천한 책은 총 4회로 기획되었던 시즌 내내 읽어야 할 정도로 어렵고 벅찬 책으로 여겨졌다. 예은이 수아에게 질문했던 것은 미연이 추천한 책이 후보에 오르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것이었을 뿐, 예은 역시 어려움을 지적하는 수아의 말에는 공감을 표했다. 수아는 기획 회의 이후에 진행된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에서 먼저 미연의 추천 도서를 언급해 어려움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례 28] - 수아(심층면담)

수아: 사실 『에코 페미니즘』 책 읽자는 의견 나왔었잖아요. 이 책을 읽는 모임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연구자: 그 책이 어렵긴 해요.

수아: 진짜 한 6개월 잡고 읽어도 모자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 수아는 미연과 마찬가지로 기획 회의에 불참했던 이경의 추천 도서였던 『왜 의사는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를 대신 소개하면서 책의 분량이 상당함에도 “우리”와 밀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읽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례 29] 기획 회의 (수아)

이경님이 가져오신 책을 보면 540쪽이라 좀 많죠. 저도 비슷한 책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책을 읽게 되면 다 읽을 순 없고 조금만 읽거나 해야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여자라면 누구나 알 것 같은 이야기를 담았어요. 이경님이 추천한 책이 현재를 비판한다면, 제가 나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은 비전을 보여주는 책이라서. 이경님이 추천한 책을 읽으면 할 얘기도 많을 것 같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랑 동떨어져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중략) 여성의 몸이나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저는 이경님이 추천한 책에 한 표를 던집니다.

[사례 29]에서 수아가 말한 “우리”라는 범주는 여성, 특히 책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경이 추천한 도서는 여성의 질병 경험과 신체 증상에 관한 편견과 의료계의 성차별적 관행을 다룬 서적으로, 실제 정기 책모임에서는 500쪽이 넘는 책을 전부 읽지 않고 발제를 맡게 된 이경이 선택한 일부분만을 읽기로 하였다. 앞서 미연이 추천한 『에코 폐미니즘』과 비교했을 때, 수아는 이경의 추천 도서가 상대적으로 이론보다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를 가진 멤버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이외에도 기획 회의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다솔) 여성 작가의 에세이나 “다루는 범주가 넓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를 풀어낸” (예은) 소설

을 추천하는 등, 여성의 일상에 대한 주제를 담은 책을 선호하는 모습이었다.

요약하자면, ‘위페’의 멤버들이 책을 평가하는 두 개의 기준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책으로부터 실제 일상 상황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언어적 표현이나 논리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성의 다양한 일상적 경험을 주제로 하는 책이 이러한 기대를 상대적으로 쉽게 충족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서 미연이 마리 루티의 저서에 보였던 회의적인 반응을 내보였던 것은 다른 책과 비교했을 때 쉽고 빠르게 “나의 언어”²⁵⁾를 발견하지 못했던 당혹스러움에서 기인한 반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저항적 언어 연습하기

‘위페’ 멤버들은 한국 사회에서 비혼으로 사는 20, 30대 여성으로서 가족과 친구, 주변인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인 시각이 담긴 발언을 듣곤 한다. 많은 멤버들은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그러한 발언들이 페미니즘을 접한 뒤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게 만든 바탕이었다고 말한다. 특히 2015년 즈음 소셜미디어를 통해 페미니즘과 관련된 텍스트, 비주얼 콘텐츠가 활발하게 확산하면서, 그간 자신이 “별나고 예민해서” 답답하다 느꼈던 경험을 설명해주는 새로운 언어를 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접하기 시작했다고 하여 멤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하는 만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멤버들은 정기 책모임에서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된 계기를 개인적 일화를 중심으로 고백하는

25) 미연은 정기 책모임 2-4에서 『김지은입니다』를 읽고 다음과 같은 감상을 공유한 바 있다. “나의 언어”라는 표현은 미연의 감상에서 직접 인용한 것으로, 미연이 일상적으로 겪어온 경험과 저자 김지은의 경험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생각된다. “저도 수아님처럼 계속 대입하면서 읽었고. 내가 쓴 거 아니야? 이건 나의 언어와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한 대목이 많았어요. 똑같은 경우, 책 속의 경우(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고,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정기 책모임 2-4 중)

데, 이러한 이야기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을 접하기 이전에 겪었던 경험 가운데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경험의 주가 된다. 페미니즘을 알기 전에는 그저 웃어넘겼거나 스스로 불만족스러운 대응만 했던 과거의 경험을 책을 읽음으로써 새롭게 반추하는 것이다.

[사례 30] 정기 책모임 3-2 (예은)

1. 충수염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2, 3일이 지나도 계속 아프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시 갔더니 맹장이 터진지 오래더라고요. 결국 배를 째고 수술하는 지경까지 갔죠.
2. 그런데 그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예쁘게 꿰매주겠다. 실 뺄 때도 흉이 남지 않게 해주겠다. 웃으면서 좋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외과 과장이고, 신경 써서 꿰매라고 했다. 나중에 비키니도 입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후처치까지 잘해주겠다.
3.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빨은²⁶⁾ 말을 저에게 쓸어부어주셨네요? 그 때가 생각이 나네요.

예은의 이야기는 충수염으로 입원하기까지의 과정(1)을 설명한 뒤 당시 의사에게 건넸던 말(2)의 의미를 페미니즘을 알게 된 “지금”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마무리된다(3). 정기 책모임 3-2에서 읽은 책 속에서 여성의 신체적 고통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양의학적 관점에서 질병으로 인지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를 접한 예은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털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예은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26) 외모나 지식의 수준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던 인터넷 용어였으나, 이후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상에서 차별적인 언행을 비난하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예은의 이야기 속에서는 담당 의사가 가지고 있던 여성의 신체에 관한 시대착오적 인식(여성의 몸에 흉진 자국이 남으면 안 된다)과 그 근저에 자리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일반화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당시 의사가 했던 말을 “지금” 듣는다면 보였을 반응을 자신이 직접 말해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즉, 과거의 경험을 회고하여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폐미니즘을 알게 된 “지금”의 자신을 당시의 자신에게 이입해보는 것이다.

[사례 31] 정기 책모임 3-2 (이어서)

4. 예은: 지금 같았으면,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하고 보내버렸을 텐데.
5. 수아: (웃으며) 멋있게 해주세요~
6. 예은: 제가 치료 연고 잘 바를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세요.

[사례 31]에서 예은과 수아의 대화는 과거 예은이 겪었던 상황을 정기 책모임 속 현재 상황에 불러와 재연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각각 예은이 만났던 외과 의사의 여성 및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직접 지적하기보다 에둘러 고쳐주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대화 상황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보고 있다. “예쁘게” 해주겠다는 의사의 표현을 “멋있게”로 수정하거나, “알아서 관리하겠다”는 말로써 의사의 말을 완전히 수용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것이다.

수아와 예은의 재연 속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존재하지 않는 숨은 청자가 존재한다. 바로 예은이 충수염 수술 당시 만났던 의사이다. 두 사람은 정기 책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를 청자로 삼고, 결혼과 비키니를 위해 절개 부위에 흉이 남지 않게 봉합해 주겠다는 의사의 말에 대꾸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말대꾸는 그것을 들어야 할 청자가 부재한다는 점에서 청자에게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과거의 상황에서는 여러 이유로 하지 못했던 말 대꾸를 정기 책모임에서 대신 발화해봄으로써 당시에 느꼈던 답답함, 당황, 불쾌함 등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이 말대꾸의 목적인 것이다.

데이비스는 미국 사회의 흑인 여성의 의사소통 실천을 분석하며, 이들

의 회피와 침묵, 감탄사 사용 등과 같은 “받아치기(talk back)”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중 하나로 친밀한 관계를 들고 있다(Davis 2018). 앞서 II장에서 보았듯, ‘위폐’의 멤버들은 평소 주변 관계에서 데이비스가 말하는 친밀한 유대를 느끼지 못한다. 가족, 특히 여성 가족과의 연결됨으로 안정감과 보호받는 감각을 느끼는 흑인 여성과 달리, ‘위폐’ 멤버들은 도리어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차별적인 발언을 듣고 있었다. ‘위폐’의 정기 책모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속 인물은 멤버들의 가족이며, 이들이 성별을 떠나 멤버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인 인식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위폐’의 멤버들은 자신들과 페미니즘이라는 사상과 관점, 언어적 자원과 실천을 공유하지 못하는 ‘외부’와 대비되는 안전한 공동체로서 페미니즘 책모임 ‘위폐’를 상정하고 ‘외부’에 저항할 수 있는 기반처럼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Davis 2018: 311).

따라서 과거에 들었던 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대답을 정기 책모임에서 재연하며 발화하는 행위는 멤버들이 ‘위폐’라는 공간에서 여성과 페미니즘을 향한 차별적 발언에 대한 되받아치기 연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예은의 이야기와 수아와의 대화 내용은 간접적이나마 차별적 상황 또는 발언에 저항하는 문장이다. 이러한 말을 상대적으로 안전함과 연대감을 느끼는 ‘위폐’ 안에서라도 말해봄으로써 일시적이나마 “통쾌함”을 느끼고 나아가 미래에 맞닥뜨릴 수 있는 차별적 발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되받아치기 연습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상황에서 저항적 발화를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멤버들은 자기 주변의 환경이 여성에 차별적일 뿐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실제 상황에서는 책모임에서 연습한 것처럼 말하지 못하할 것이란 사실도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례 30]과 같은 상황을 [사례 31]처럼 재연하는 행위는 발화의 수행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연습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적절한 ‘되받아치기’가 어려운 멤버들이 오히려 비교적 ‘안전한’ 페미니즘 책모임에서나마 가

상 혹은 재연 상황을 가정하여 ‘되 받아치기’를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3) 각자의 전략 공유하기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차별과 무시, 혐오는 ‘위폐’ 멤버들의 일상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가깝게는 함께 사는 가족부터 연인부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의 동료에 이르기까지, 멤버들은 크고 작은 차별적 언행을 접한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멤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상대의 언행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정을 굳히거나 목소리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가족에게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던 사람이 직장의 상사에게는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여 대응하든지, ‘위폐’ 멤버들은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종류의 차별적 언행에 스스로 만족할 만큼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위폐’에서 책을 읽고 다른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페미니즘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더 나은 대응 방식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이다. 정기 책모임에서 읽은 ‘책’과 관련된 일상적 경험을 이야기하며, 멤버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이 대응했던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또는 효과적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대응 방식엔 무엇이 있었는지를 나누고 무엇이 효과적인 방식일지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즉, ‘위폐’의 멤버들은 정기 책모임에서 다양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저항적 언어의 전략을 모색하고 서로의 전략을 공유하고 있었다.

[사례 32] 정기 책모임 3-1

1. 수아: 얼마 전에 제가 남동생 때문에 놀랬거든요. 남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82년생 김지영> 영화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비평을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김지영이 빙의되는 장면이랑, 그 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물상식하게 남자 돈으로 편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서 비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다 대판 싸웠어요. 너무 오만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봤겠어, 자기가. 제 남동생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주변에 그런 사람과 마주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만약에 그런 남동생에게 추천해줄 만한, 어떻게 이야기할지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2. 미연: (전략) <82년생 김지영> 그 장면들, 영화를 본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너무 비약이라고. 문제의 논점을 놓쳐요. 그 상황을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는 건 정말 거부감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갑을 줄여주는 설명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것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웃으며) 너무 구차한가?
3. 수아: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런 영화를 보고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 “난 전혀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는데 여자를 정말 그래?” 이 정도만 되어도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요. 근데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난 본 적이 없거든. 누나 말이 맞으면 내 일 같이 카페에 가서 내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믿을게.”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4. 예은: 저는 “과장됐다”는 말에 한 마디 딱 했어요. “그거는 정말 정말 순한 맛이야.”라는 말요.
5. 수아: 그러니까요! 주인공이 열 가지를 겪는데 세상 모든 여자가 그 열 가지를 다 겪을까, 세 네 개씩 겪는 것을 주인공이 다 겪으니까 그게 비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종차별 영화를 봤을 때 흑인이 차별하는 모든 것을 주인공이 경험한다고 해서 그걸 비약이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나? 왜 여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하지? 아무튼. 제가 또 흥분했네요. 다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6. 미연: 저는 남동생에게 <며느라기>를 보여줘야겠어요.
7. 수아: 오!
8. 미연: 명절편 있잖아요. 설이 다가오니까요. 링크를 하나 보내줘야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9. 수아: 반응이 어땠는지 나중에 공유해주세요. 궁금해요.
10. 미연: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사례 32]는 ‘위폐’ 멤버들이 정기 책모임을 통해 저항적 언어를 모색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정기 책모임 3-1의 후반부는 위와 같은 수아의 질문을 계기로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연구자가 조사를 진행하던 당시 멤버 수아는 직계 출생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가족 구성원들과 여러 차례 물리적·언어적 갈등 상황을 마주했고, 개인적인 상황을 종종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사례 32]에서 수아가 남동생과 말다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영화 <82년생 김지영>(2019)은 2016년 출간되어 한국 사회 및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았던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수아는 폐미니즘과 한국 여성의 삶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저의 남동생과 같은” 사람에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미연과 예은은 같은 영화를 두고 유사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수아가 느꼈던 감정에 공감하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무수한 맥락을 함축하는 “한 마디”(4)를 던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툰’을 추천하는 방식(6)은 상대방의 무지나 편견을 직접 말로써 지적하기보다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지적이었다.

이후 이 대화의 화제는 일부일처제로 전환되었다가, 발제자였던 연구자에 의해 다시 [사례 32]의 주제로 돌아왔다. [사례 33]에서는 [사례 32]에서 등장했던 전략 중 ‘웹툰’을 보여주는 전략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토론한다. 특히 예은은 대중문화에서 재현된 이야기만으로 실제 존재하는 차별을 실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직접적으로 차별임을

명명하고 지적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5).

[사례 33] 정기 책모임 3-1

11. 수아: 저는 선배 페미니스트 격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남동생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 가족이 제일 힘들어. 그런데 가족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딱 이것만 해. 그냥 서늘하게 노려봐. 그것만 해.”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12. 수아: (중략) 남동생이 “페미니즘보다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말하길래, “그게 페미니즘이야, 이 자식아.”라고 말해주긴 했어요.
13. 수아: 남자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심리가 있더라구요. 남이 시키면 하기 싫어하다가 자기가 궁금해지면 찾아보고 그거 좋다고 말하는 거요. 그래서 남동생이랑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겠다, 때가 오겠거니, 생각했어요.
14. 예은: 맞아요. 수아님 말씀대로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해봤자 쇠귀에 경 읽기 같아요. 아까 <며느라기> 이야기도 나오고 <82년생 김지영> 이야기도 했는데. 문제점은 미연님이 <며느라기> 링크를 보내주면 미연님의 동생은 적극적으로 읽을까?
15. 예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전략은 <82년생 김지영>에 나오는 주인공의 언니 은영이 하는 행동 정도라고 생각해요. 차별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왜 나를 이렇게 차별해!”라고 말해서 눈앞에서 차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웹툰을 보여줘봤자 그건 웹툰 속 이야기 일 뿐이고 우리 누나, 우리 미연 누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남동생이 있었다면 최고의 전략은 그정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간접적인 저항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더군다나 상대방이 진지하게

들을 자세를 가지지 못했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저항의 효과를 불러내기 어렵다. 수아가 자신의 남동생에게 “그게 페미니즘이야, 이 자식아.”라고 지적하거나(13) 예은이 상대의 차별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차별이라 명명하고 말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15)은 멤버들 역시 예둘러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아가 자신의 남동생에게 했던 것과 같은 직접적인 설명과 지적은 결코 쉬운 방식이 아니다. 상대방의 차별적 언행이나 부정확한 정보에서 비롯된 편견을 지적하는 행위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심리적·물리적 단절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물며 직장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더더욱 어렵다.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시작한 뒤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민서는 직장에서 마주하는 차별적 상황에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고 고백한 바 있다. 직장에서 민서가 취하고 있었던 저항의 전략은 위에서 수아의 지인이 제안했던 것과 유사하게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고 비언어적 행동으로 암시를 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

[사례 34] 민서(심층면담)

연구자: (페미니즘 공부를 하기 시작한 뒤로) 일상적으로는 바꿔신 게 없으세요? 여기(‘위페’)에서 책도 읽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민서: 일상적으로는, 페미니즘 하게 되면서 ‘빨은’ 얘기를 자제하게 되고요. 제 앞에서 ‘빨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짚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데가 위계질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정색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정도예요 지금은. 저는 아직 사원 나부랭이라서. (하략)

그럼에도 ‘위폐’ 멤버들이 정기 책모임에서 개인적 일화를 토로하며 다른 멤버에게 대응 방식을 묻고 각자의 전략을 공유하며 토론하는 것은 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고 유사한 경험을 했을 법한 멤버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적절한 저항적 말하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능한지 탐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멤버들은 일상에 만연한 성차별과 폐미니즘에 관한 부정적인 편견 및 무지를 지적하면서도 여러 사회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서 생존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하한선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 결과 멤버들이 제안하는 전략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불편함과 상대의 잘못을 전달하는 방식이 된다. 이 과정에서 저항적 말하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것이냐 말 것 이냐라는 선택의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답답함 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다.

한편 ‘위폐’ 멤버들이 공유하는 저항적 말하기의 전략은 최근 디지털 공간 속 소셜미디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해시태그(#)'의 활용과 매우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진다. 해시태그를 통한 사회운동은 SNS에 흩어져 있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발화하는 SNS의 주체를 일시적이나마 강력한 네트워킹 집단으로 묶어줌으로써 빠르게 공론화를 이루고 대중에게 문제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발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여성과 같은 소수자나 소외 집단의 해시태그 운동은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주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해시태그를 통해 확산된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 저항의 효과를 가져오고 온라인을 넘어서는 저항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효인 2017: 15-19; 구기연 2019: 12).

그러나 ‘위폐’의 멤버들이 책과 대화를 통해 저항적 말하기의 전략을 모색하는 목적은 집단적 차원에서 여성주의 운동이 한국 사회에 끼칠 영향력과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려하기보다는 각자의 일상에서 개별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에 가깝다. [사례 35]에서 미연의 말은 멤버들이 추구하는 저항적 말하기가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치

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보다 미시적 일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례 35] 정기 책모임 3-1 (미연)

저도 유쾌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고, ‘쿨하게’ 그 상황에 대처하고 싶고, 미꾸라지 같진 않아도 한 방의 편치는 날리고 싶은 욕망 모두가 있잖아요. (중략) 저는 10년, 20년 동안 가족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남았지만. 시대가 바뀌고 가족 중에 누군가 의문이 생기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환경이나 여성 문제에서 저를 찾더라고요. 그것만으로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 오래 남아있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위폐’의 멤버들이 정기 책모임에서 책과 다른 멤버를 통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항적 말하기의 전략을 공유하고 연습한다. 그러나 ‘위폐’에서 함께 읽은 책과 다른 멤버의 경험적 사례로부터 얻은 저항적 말하기의 전략을 일상에서 즉각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정한 사회집단을 향한 차별적 발언은 대상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침묵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버틀러 2016; 유민석 2019: 65). 따라서 멤버들이 고심해서 얻어내고 학습한 저항적 말하기의 전략이 실제 상황에서는 쓰이지 못하거나 말해지더라도 예상했던 발화의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럼에도 ‘위폐’ 멤버들은 책모임에서나마 차별적 언행을 접하는 상황을 토로하고, 그에 대응하는 말하기 전략을 함께 모색하여 연습해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멤버들은 성차별적이고 폐미니즘에 부정적인 편견에 맞서 대항표현(counter speech)²⁷⁾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7) 대항표현이라는 개념은 표현(speech), 즉 언어를 사회적 행위로 간주하는 행 이론에 근거한 개념으로, 협의와 광의의 혐오표현(hate speech)을 되받아치는 말하기 행위를 일컫는 개념이다. 혐오표현의 규제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법학적 관점에서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이 불러일으키는 침묵의 효과를

IV. ‘위폐’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로서의 가능성

1. ‘가벼운(light)’ 공동체 ‘위폐’

1) ‘가벼운’ 공동체

2020년 7월, 페미니즘 멀티 카페를 표방하는 D 카페의 페미니스트 교류 프로그램을 계기로 만들어진 페미니즘 책모임 ‘위폐’는 모임이 시작된 초기부터 연구자가 현장 연구를 중단한 시점까지 모임 구성원과 진행 방식에 있어서 몇 차례 변화를 거쳤다. ‘위폐’ 멤버들은 정기 책모임의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는 엄격한 원칙을 세우고 고수하기보다는 맞닥뜨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고, 여러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다. 예를 들면, 시즌3을 진행하던 도중 멤버 이경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돌연 온라인 채팅방에서 탈퇴한 적이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갑작스러운 탈퇴 소식에도 온라인 채팅방의 어떤 멤버도 단체 채팅방을 통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²⁸⁾ 이경은 ‘위폐’ 멤버들 가운데 ‘위폐’ 말고도 다양한 페미니

파쇄하고, 소통을 차단하기보다 축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해하지 않고 혐오표현의 해악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진다. 자세한 논의는 갤버(2019), 유민석(2019), 홍성수(2019) 등의 논의를 참조.

28) 전후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몇몇 멤버는 이경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여 상황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모든 멤버가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후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경의 탈퇴에 관한 언급과 논의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이후 수아와 초승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한 차례 이경의 탈퇴에 관해 물었으나 예은이 이경을 대신해 이경의 탈퇴 사유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갈음하자 더 이상 온라인 채팅방과 정기 책모임에서 이경의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

즘 소모임 활동을 활발히 하던 멤버였고, 많은 멤버들이 그에게 최근 이슈와 사건 소식, ‘위폐’의 책모임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주제에 관해 물은 하던 모임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기에 그의 탈퇴와 이에 대한 다른 멤버들의 반응은 상당히 놀라웠다.

페미니즘 도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리터러시 실천을 핵심 활동으로 삼은 ‘위폐’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지점은 멤버의 구성과 멤버들 사이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에 있다. ‘위폐’는 처음부터 온라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되었으며 정기 책모임은 2주에 1회, 약 2시간가량 진행되고 그마저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위폐’의 멤버들이 정기 책모임을 비롯한 비정기적인 소규모 활동과 온라인 채팅방에서의 대화,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는 친목 관계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관계는 결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체가 아니다. 이들은 페미니즘과 책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만나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면서,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책모임을 벗어나는 순간 ‘위폐’라는 모임에 대한 단단한 소속감보다는 개별적인 일대일 관계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책모임 ‘위폐’는 페미니즘 도서를 읽고 대화하는 리터러시 실천을 공유하는 실천공동체이면서(Lave · Wenger 1991) ‘가벼운(light)’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Blommaert 2017; Blommaert 2018; Blommaert 2019; Blommaert · Varis 2015). 인터넷의 발달과 그에 따른 온라인 공간의 출현은 고도로 조직화 되어있는 동질적이고 안정적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일시적이며, 표면적이기에 ‘가벼운’ 여러 사회집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Varis와 Blommaert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미지나 밍(meme)을 활용해 소통하고, 게시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리트윗’, ‘리포스팅’하는 등의 의사소통 행위가 이용자 간에 일시적이고 표면적이지만 강렬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Varis · Blommaert 2015). ‘가벼운’ 공동체

다.

란 얼핏 보기에 무의미해 보이는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질서와 관계를 일컫는 개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복잡하게 얹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일상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벼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벼운’ 실천들의 중요성을 역설한 Blommaert는 집단(group)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의 집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필요조건으로 하며, 사람들은 패턴화된 의사소통을 통해 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된다(Blommaert 2018: 96). 특히 문자 언어와 시각 이미지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이 특정한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효과를 넣고 있다는 Blommaert의 관점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비로소 그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집단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Blommaert 2017: 9). 다시 말해, 어떤 사회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단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과 그 방식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 공동체(language communities)에 속한 화자의 집단 정체성을 기반으로 화자의 언어 행위를 분석하던 기존의 사회언어학적 관점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따라서 사회집단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행위를 분석하는 출발점이 아니라 특정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는 통로이자 그 행위의 결과물인 셈이다 (Blommaert 2018: 96).

페미니즘 책모임 ‘위페’를 ‘가벼운’ 공동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약술한 멤버들 간의 상호작용이 갖는 여러 특성 때문이다. 우선 책모임 ‘위페’에 관해 멤버들이 느끼는 소속감의 정도를 들 수 있겠다. 본 연구에 참여한 7명의 멤버 가운데 ‘위페’가 아닌 페미니즘 책모임에 참여하고 있던 멤버는 2명이었고, 나머지 5명 중 2명은 직접적으로 페미니즘을 표방하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소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위페’에서 활동하면서도 ‘위페’라는 모임 자체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지는 않은 채 ‘위폐’라는 모임을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모임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겼다.

또 정기 책모임 이외에 ‘위폐’라는 모임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활동이 부재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함께 시위에 참여하거나 모임에서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립출판을 해보자는 제안도 없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많은 멤버들이 정기 책모임 이상의 활동에 열의를 보이지 않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를 내비쳤다.

덧붙여 단체 온라인 채팅방을 통하지 않은 ‘사적인’ 연락이 몇몇 멤버들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고, 이를 연구자를 비롯한 다른 멤버가 의도치 않게 인지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기 책모임을 제외하고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위폐’ 멤버 간의 의사소통은 엄밀히 말해서 간헐적이고 느슨하며 긴밀하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위폐’를 처음 구성했던 초기 멤버 중 한 명인 예은은 연구자와의 심충면담에서 연구자가 멤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묻자 “개인적인 견해고 비밀” 이지만 첫 시즌부터 함께한 멤버들조차 “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 해서 멤버들이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얼마나 오랫동안 모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멤버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만들 것인지는 멤버들 개개인에게도 중요한 화두였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이 계속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되면서 정기 책모임마저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일부 멤버들은 소통 및 교류의 축소로 인해 서로 친해지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초승은 시즌 3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경 연구자와의 심충면담에서 멤버 간에 결속력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행위와 침묵을 통한 의사소통의 부재를 멤버들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위폐’의 멤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문과 불만은 공공연하게 제기되지 못했고, 이러한 경향은 연구자가 조사를 종료했던 시즌 3까지 계속됐다.

이어지는 두 개의 절에서는 ‘위폐’의 멤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폐’ 멤버들의 사회적 관계와 하나의 집단 또는 공동체로서 ‘위폐’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위폐’ 멤버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멤버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호칭어 ‘님’과 존댓말 사용

‘위폐’의 정기 책모임과 온라인 채팅방 속 의사소통에서 확인하게 눈에 띄었던 지점은 멤버들이 상호 간에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대화 상황에서 존댓말과 함께 상대방을 호명하기 위해 ‘님’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본 절에서는 ‘위폐’ 멤버들이 정기 책모임과 연구자와의 심층면담, 온라인 채팅방 등과 같이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호칭어 ‘님’과 존댓말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상대방을 두루 높이는 기능의 호칭어 ‘님’과 한국어의 존댓말 단계 중 비격식적 형태인 ‘요’ 어미의 대칭적 사용을 고수하는 경향은 ‘위폐’의 멤버들이 ‘위폐’에서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평등주의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호칭 또는 호칭어란 대화 중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혹은 표현들” (왕한석 2005: 17)로,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이름, 2인칭 대명사, 친척 호칭 등이 사용된다. 호칭어는 화자가 가리키며 부르는 상대(혹은 대상)을 일컫는 지칭어나, 상대방의 주목을 끌기 위해 사용되는 호출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왕한석 2005: 17-18). 호칭어의 종류와 그 쓰임은 사용되는 언어의 종류와 사회 계급, 집단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며 같은 화자라 할지라도 대화에 참여하는 상대의 연령, 성별, 계급,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 또 다른 청자의 유무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는 그 수준에 따라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

적 거리와 연령차, 대화가 발생한 물리적·사회문화적 배경의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단계화되어 있다. 왕한석(2010)에 따르면,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제시하는 한국어 존댓말의 말단계는 대체로 네 단계에서 다섯 단계 정도로 구분된다(왕한석 2010: 248-249). 자연스러운 일상의 대화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어 화자들은 연령차, 사회적 거리감, 지위와 계급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대화 상황에서 존댓말의 말 단계를 선택하고 있다(왕한석 2010: 255). 비슷한 수준의 존댓말을 사용하더라도 대화 상황의 격식성에 따라 사용되는 존댓말 어미가 달라지기도 한다(Hwang 1975, 왕한석 2010: 252에서 재인용).

페미니즘 책모임 ‘위폐’의 멤버들은 정기 책모임과 기타 비정기적 모임, 그리고 온라인 채팅방에서 존댓말과 호칭어 ‘님’을 대칭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명사 ‘님’은 청자의 성과 이름 또는 별명, 지위 등과 결합하여 상대를 두루 높이는데(양영희 2014: 122; 이정복 2005: 310), ‘위폐’에서는 공기(co-occurrence) 규칙에 따라 존댓말 어미 ‘요’와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비대면 모임에서 멤버 민서가 잠시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대화 상황에서 떠났음에도 오디오 기능이 켜져 있어 잡음이 들리기 시작해 발제에 방해가 되었는데, 다른 멤버가 “민서님, 소리가 켜져있어요.”라고 지적한 것은 하나의 발화 사례에서 호칭어 ‘님’과 존댓말 어미 ‘요’가 함께 사용된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다. ‘위폐’에서는 멤버들의 성(姓)을 제외한 이름 혹은 멤버가 스스로 소개한 별명에 ‘님’을 붙이는 의존명사 용법으로 호칭어 ‘님’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3〉 ‘위폐’의 호칭어 사용 방식

성을 제외한 ‘이름’ 또는 ‘별명’ + 님

〈예시〉

예은: (오디오가 켜졌다는 사실을 알리며) 민서님, 소리가 켜져있어요.

[사례 36]은 ‘위폐’에서 호칭어 ‘님’과 존댓말이 함께 사용되며 존댓말 어미 ‘요’가 생략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시즌 3을 기획하는 회의에서 다른 멤버들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접속을 시작한 멤버 다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함께 읽을 책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지 수아가 묻는 상황이다.

[사례 36] 기획 회의

1. 수아: 다솔님?
2. 다솔: 들리세요?
3. 수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 다솔: 제가 지금 자가 격리를 하게 되어서요. 우선 인터넷으로 찾아보긴 했는데 지금까지 뭐 나왔어요? 겹칠까봐.
5. 수아: 아, 겹칠까봐? 제가 지금 채팅으로 목록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일곱 권이 나왔는데. 겹치지 않죠?

마찬가지로 같은 날 기획 회의에서 ‘위폐’의 활동을 물리적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자는 제안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사례에서도 호칭어 ‘님’과 존댓말 사용, 그리고 존댓말 어미

‘요’의 생략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존댓말 어미를 생략하는 것은 한 번의 발화 내에서 존댓말 어미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4, 5와 아래의 6) 모임 내에서 반말을 사용한다고 보기보다는 효율성을 위해 존댓말 어미를 생략하는 구어체를 사용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사례 37] 기획 회의

6. 초승: 저는 글쓰기 방식으로 자료집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라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이 모임이 더 발전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중략)
물론 제가 백수여서 할 수 있는 말이긴 해요. 다른 분들은 직
장도 다니시고, 또 글은 어렵잖아요. 제 욕심으로는 그렇게 해
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7. 수아: 예은님, 민서님. 기억하실 텐데 저희 첫 마음도,
8. 예은: [맞아요. 그랬죠.]
아주 포부가 컸죠.

왕한석(2010)은 어빈-트립의 연구에서 한국어 존댓말 체계에서 연대(감)과 친밀성을 구분하는 것이 가까운 개인적 관계에서 존댓말 단계의 전환 규칙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고 보았다(Ervin-Tripp 1972, 왕한석 2010: 262). 왕한석에 따르면, 어빈-트립이 제시한 연대(감)과 친밀성의 정의가 모호하긴 하나, 각각을 덜 친숙함의 ‘연대감’과 친숙함의 ‘친밀성’으로 구분하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연대감에 해당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미의 존경을 나타내는 어미(-ㅂ니다/오 또는 -요)를, 친밀성의 관계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의미의 존경을 나타내는 어미(-네/-ㄴ다 또는 -아)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연대감과 친밀성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대화 참여자의 연령 요소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왕한석 2010:

263-265). 이러한 분석을 따르자면, 상호 간에 존댓말 어미 ‘요’를 사용하는 ‘위폐’의 멤버들이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감은 직장동료나 친구, ‘친한 사이’ 가운데서도 ‘친밀성’ 보다는 ‘연대감’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과 관련해서, ‘위폐’ 멤버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과 각자 소개한 이름 및 별명, 얼굴 외에 다른 멤버의 연령, 직장, 지위, 출신지, 학력 등의 개인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위폐’ 멤버들의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기 책모임에서 직접 밝히는 자기 서사의 말하기를 통해 연령대, 직업 종류, 학력의 수준 등을 추정할 수 있고, 개별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에도 멤버들은 서로의 개인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거나, 알아내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멤버에게 질문하는 일을 매우 꺼리고 있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위폐’ 멤버들은 상호 간에 위계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다른 멤버들에게 밝히는 것을 매우 부적절하게 여긴다. 일례로 연구자가 파일럿 조사를 시작하던 당시 첫 정기 책모임2-1에서 연구자를 소개하며 소속대학과 대학원생 신분을 밝힌 일을 두고 “페미니즘 모임에서 그런 식의 소개가 어색하고 불편했다”고 밝힌 멤버가 있었다는 사실을 멤버 수아가 듣고 연구자에게 따로 언질을 준 적이 있었다. 연구자가 직접 신분을 밝힌 것에 대해 불편함과 어색함을 느낀 것은 단지 친숙하지 않은 사이에서 비롯된 감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서열화된 대학 학별과 학력에 따른 위계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는 것은 연구자와 다른 멤버 간의 위계 관계를 드러내는 행동으로 비쳤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폐’ 멤버들은 일정한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온라인상에서 전제되는 익명성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얼굴과 성별을 제외한 다른 멤버의 개인 정보를 미상의 상태로 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멤버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가치 및 지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

호 간에 존댓말과 호칭어 ‘님’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은 ‘위폐’라는 책 모임이 지향하는 평등주의를 실현하고 드러내는 언어적 실천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사례 38] 초승(심층면담)

연구자: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들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도 조금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저희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아니죠.

초승: 낯선 사람들이죠.

연구자: 사실상, 그렇죠.

초승: 이름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런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클리토리스 얘기하고, 자위 얘기하고, 어떤 성병에 걸렸었는지,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출신도 성명도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페미니즘이라는 학문을 같이 공부하고 싶다, 라는 것 하나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게 또 페미니즘의 매력 아닌가. 나이를 굳이 묻지 않아도, 이름을 굳이 성(姓)을 묻지 않아도. “혹시 성이 어떻게 되세요?” 묻지 않아도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불리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중략) 예를 들면 스쿨일곱이라는 나이가 나온 순간 우리는 너무 많은 유형성을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일단 이십 대 중반, 대학은 졸업을 한 것 같고, 대학원생, 직장은 안 다니고.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이 이쪽이구나. 숨 쉬듯이 유형성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궁금하기는 하죠. 또 조금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하기는 하지만 우리 모임에서는 그게 없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호칭어 ‘님’과 존댓말 어미 ‘요’를 사용하는 ‘위폐’ 멤버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그 사용이 대칭적이라는 점에서 멤버들이 평등

주의라는 폐미니즘적 가치를 지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는 것에 불편함을 토로했던 것이나, 초승이 연령에 따른 범주화를 우려했던 것과 같이 ‘위폐’ 멤버들은 한국 사회에서 화자와 청자 간 지위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인 직위와 연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름 또는 별명을 제외한 어떤 개인 정보도 인지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등주의를 추구함으로써 폐미니즘 모임의 성격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시도는 상호 간에 이름을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주고받지 않음으로써 초승의 말처럼 서로 “친밀해” 지려는 시도조차 조심스럽게 만든다. ‘위폐’의 멤버들이 ‘위폐’를 평등한 폐미니즘 책모임으로 만들고자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하며 호칭어 ‘님’과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는 의사소통 행위는 결과적으로 멤버들 간에 ‘덜 친숙한’ 사회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3) ‘하이퍼링크(hyperlink)’ 공유하기

‘위폐’는 멤버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온라인 채팅방을 가지고 있으나,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멤버들 간의 대화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온라인 채팅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대화는 정기 책모임의 일정을 공지하고 확인하며, 발제문을 미리 공유하고, 불참 또는 지각을 미리 알리는 내용이다. 이외에 책모임의 진행과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논의에 가까운 대화가 종종 나타날 뿐, 친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그다지 풍부하지 않다.

‘위폐’의 온라인 채팅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화 내용은 ‘하이퍼링크(hyperlink)’를 공유하는 것이다. ‘위폐’의 멤버들은 폐미니즘과 관련된 강연, 세미나, 국민청원, 언론 기사, 책, 영화 등에 관한 하이퍼링크를 ‘위폐’의 채팅방에 공유하고 있었고, 이에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 이에 대해 다른 멤버들이 반응함으로써 짧은 대화가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하이퍼링크가 공유된 뒤 멤버들이 채팅방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길이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대화 내용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다른 멤버들의 반응은 소극적이다 못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았다. 하이퍼링크를 공유한 대화 내용 뒤에 별다른 대답 없이 며칠이 지나고 정기 책모임 활동에 관한 논의가 올라오는 사례도 있었다.

온라인 채팅방에서 멤버들이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목적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다른 멤버에게 알리고, 강연, 세미나, 국민청원, 국회 서명, 모금 등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함께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 5]는 일명 ‘스토킹처벌법’이라 불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인터넷 기사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첨부한 뒤 나타난 온라인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2021년 4월 제정되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부터 꾸준히 법안이 발의되어왔으나 20년 가까이 입법화되지 못하다 2021년에서야 제정된 법이다. 초승이 본회의 통과 소식을 담은 기사의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며 “스토킹처벌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라며 부언했고, 예은과 수아가 이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부호 ‘ㅠ’를 연달아 사용하며 기쁨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뒤따라 예은이 스토킹 범죄의 피해 내용을 다른 기사의 하이퍼링크를 또 한 번 공유하면서 그간 별금형에 그치거나 다른 법리의 적용을 받아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란다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5]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대화
사례

하지만 정보 공유가 아닌 참여 제안을 목적으로 공유된 하이퍼링크에 대해서는 일정이 성사되지 못하고 유야무야되는 일이 잦았다. 예를 들어,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비건 식사 예약 및 포장 소식을 전하는 하이퍼링크가 공유된 날, 이를 확인한 일부 멤버들로부터 같은 날짜에 식사 포장을 예약하고 만나 친목을 다지는 모임을 가져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페미니즘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으나 예은을 비롯한 몇몇 멤버들이 비건이거나 비거리 및 페미니즘의 관련성에 관심을 보여왔기에 이러한 내용의 하이퍼링크 공유는 어색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며칠간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남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추후 멤버들과의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통해 친목 모임이 성사되지 못하고 각자 일정에 따라 예약한 식사를 포장해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위폐’의 온라인 채팅방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관련 활동에 함께 참여하자는 제안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이퍼링크 공유는 정보 전달과 친목 조성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온라인 채팅방의 특성상 다른 멤버의 반응이 직접 드러나지 않으면 하이퍼링크를 공유했던 대화를 읽었다는 표시를 확인할 수는 있어도 다른 멤버가 하이퍼링크를 따라 들어가 그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앞선 사례처럼 친목 모임 일정을 잡으려 하더라도 쉽게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멤버들 중에서 하이퍼링크를 주로 공유하는 멤버들은 자신이 전달한 하이퍼링크의 내용을 다른 멤버가 제대로 확인하였는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사례 39] 이경(심층면담)

연구자: 이경님은 공유를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책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데서 알게 된 것을 저희한

테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데. 공유를 해주고 싶으신 것들은 뭐고
왜 공유를 하시고 싶으신지?

이경: 자체를 해서 별로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좋은 것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이유에는 다들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세미나 같은 거나, 그런 것을 다들 듣고 싶지 않을까? 가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있는 여러 가지의 페미니즘 관련 특방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요. 매일매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보 공유가. 그래서 제가 우리끼리 공유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분들에게 공유해주면 폐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연구자: 특별한 의도를 갖고,

이경: 네,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특방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경의 사례는 ‘위폐’ 멤버들이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목적이 공유를 통한 교류와 소통보다는 공유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즉, 하이퍼링크 공유는 의사소통을 촉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위폐’가 페미니즘 모임임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다. 이경만큼이나 하이퍼링크 공유를 자주 하는 예은 역시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사례 40] 예은(심층면담)

연구자: ‘위폐’에서 자기 이야기나 읽은 책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이슈들을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책 하나 올려주셨고. 세미나, 강연 같은 것들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

그런 걸 멤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예은: 그냥 오지랖… (웃으며) 오지랖인 것 같은데. 어, 제가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제가 정보를 찾은 김에 이 중에서 관심
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즐기세요” ,

연구자: 알았으면 좋겠다?

예은: 네. “그냥 이런게 있다구요” 하고 지나가기?

연구자: 꼭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예은: 네.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하실 분!” 이것도
저는 폭력적,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

연구자: 같이 하자는 게 폭력이 된다는 건 어떤 맥락에서인가요?

예은: 저희가 공유하는 게 그런 내용인 건 아닌데. 제가 거절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부담을 주기 싫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고요” 라고만 해요. 폭력까진 아니지만 부담이 될 수 있
을 것 같으니까 담백하게 정보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요.

예은 역시 이경과 마찬가지로 ‘위페’의 멤버들에게 다른 소모임이나
미디어 등의 경로를 통해 접한 페미니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런 한편 자신이 공유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자는 제안이 무시된 것처럼 보여도
다른 멤버에게 반응을 요구하거나 재차 제안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위페’의 멤버들은 페미니즘에 관련된 정
보를 전달하는 목적만큼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로 만족하
는 것이다.

Blommaert는 소셜미디어에서 게시글에 ‘좋아요(likes)’를 누르고
‘공유하는(sharing)’ 행위가 소셜미디어 이용자 간에 느슨하고 유동적
인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친교적(phatic) 의
사소통의 일종이라고 본다(Blommaert 2017). Blommaert에 따르면, SNS
상의 서로 다른 계정이 서로를 ‘친구 추가’하거나 ‘팔로우’하고,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를 리트윗 또는 리포스트하거나, 게
시글의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실천은 한정된 시공간을 넘어 게시글을

순환하고 유통할 뿐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로 연결된 계정 또는 이용자를 일시적이고 강렬한 사회집단으로 묶어주게 된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좋아요’를 누르고 게시글을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이다.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 하며, 공유하는 행위는 이용자 사이에 친목(conviviality)을 형성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며, 이러한 친목을 통해 익명의 개별적인 소셜미디어 이용자 간에 일시적이지만 강렬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Blommaert 2018: 103; Varis-Blommaert 2015).

‘위폐’의 온라인 채팅방에서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비록 실질적인 친목 모임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가벼운 친목의 의사소통 실천으로서 빠르고 쉽게 페미니즘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며 비대면 위주로 정기 책모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페미니즘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멤버들 간의 의사소통을 일시적이나마 촉발함으로써 ‘위폐’의 페미니즘적 성격을 재확인하고 서로 간에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공유한다는 연대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위폐’의 멤버들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역시 일종의 친교적(phatic) 의사소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Blommaert 2017).

그러나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멤버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내용의 전달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공유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 태도는 공동체로서 ‘위폐’의 멤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천의 범위와 종류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위폐’를 페미니즘 모임으로 만들어주는 하이퍼링크 공유 행위가 오히려 모임으로서 ‘위폐’의 공동 실천을 촉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익명성과 친밀성의 출다리기

1) 소극적 참여자들

같은 모임에 속해 활동하고 있지만, 멤버들마다 ‘위폐’라는 책모임에 갖는 애정과 헌신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위폐’를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 ‘페미니즘 책모임’이라는 모임의 형태와 방식에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궁리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모임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성의만을 보이고 모임의 진행과 발전에 관해 관심을 보이지 않기도 한다. ‘위폐’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정작 모임 자체의 변화나 발전에 대해 말을 엎지 않는 멤버도 있다. 이처럼 책을 읽고 페미니즘을 공부해 언어를 배우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동기는 같아도 페미니즘 책모임에 거는 기대는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위폐’의 소극적 참여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전반적인 참여율 자체가 낮은 쪽으로, 정기 책모임에 자주 빠지거나 온라인 채팅방에서도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멤버들이다. 다른 하나는 꾸준히 정기 책모임에 참여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위폐’라는 모임의 향방이나 목표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쪽이다. 이들은 웬만한 정기 책모임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다른 멤버들과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지만 ‘위폐’의 구성이 변화하는 변곡점마다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위폐’의 멤버들 중 위와 같이 소극적 참여자로 분류될 만한 행동을 보여주는 멤버가 참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폐’에서는 특정한 멤버 한두 명이 내내 일관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모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10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의 과반 이상이 여러 모임 활동에 반복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행동은 책모임의 지속과 발전, 나아가 존속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위폐’ 멤버들은 소극적 모습을 비치는 멤버의 사정을 물거나 재촉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다.

[사례 41]에서 수아는 연구자에게 ‘위폐’에서 합의된 공동의 업무를 수개월째 미루고 있던 한 멤버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토로하였다. ‘위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다양한 배경의 페미니스트를 만나는 것”이며 이로부터 배우는 것이 많다는 수아는 페미니즘 모임에서 만난 사람에게 갖는 “일말의 믿음”으로 약속된 게시물을 게재하지 않는 멤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사례 41] 수아(심층면담)

페미니스트라고 해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감각하는 것이 다르고, 중요도가 달라서. (중략) 만약에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봐요. 인스타그램에 책모임 게시글을 올리기로 했는데 첫 번째 모임 올려야 되는 분이 계속 안 올리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래도 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공유하고 싶은 뉴스는 계속 올리잖아요. 그분한테 화가 난 밤이 있었거든요. 밤에 그것 때문에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페미니즘 정보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걸로 말을 터서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비슷한 경우가 다른 모임에서 있었다면 어떻게 덜 손해 볼까 이해타산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결국 말은 하지 않았지만, 페미니즘 모임에 오는 사람에게는 제가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고민하니까 화를 삭히는데,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멤버들의 소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정기 책모임 불참에 대응 역시 [사례 41]에서 수아가 보여준 태도와 유사하다. ‘위폐’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부득이하게 정기 책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리 온라인 채팅방에 참여 여부를 공유하여 양해를 구하자는 구두 약속이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참여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정기 책모임에 빠지는 멤버가 종종 나타났다. 구두로나마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멤버들에게 다른 멤버들이 보여준 태도는 무관심 혹은 무대응에 가까웠다. 참여 여부를 묻지도 않고, 불참하게 된 사정을 캐묻지도 않은 채 참여한 멤버들만으로 정기 책모임을 진행해나간 것이다. 약속대로 불참 사실을 통보하는 멤버들 역시 스스로 자신의 개인적 상황이나 사정을 설명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오늘 불참하게 될 것 같아요” 라거나 “오늘은 못 들어가요” 와 같은 통보에 가까운 말을 온라인 채팅방에 남길 뿐이었다. ‘위폐’에서 열리는 정기 책모임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조차 말할 수 없는 내밀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지만, 정작 ‘위폐’의 멤버들은 정기 책모임의 참여 여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사정을 공유하지 않고 이를 궁금해하지도 않는, 아주 가까운 듯하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멤버의 갑작스러운 이탈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연구자와 함께 시즌 2부터 ‘위폐’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이경은 여러 폐미니즘 모임과 네트워크에 참여하던 멤버로서 다른 곳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해주거나, 몇몇 멤버들과 개별적으로 친분을 쌓는 등 다른 어떤 멤버보다 ‘위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멤버였다. 그런데 이경이 시즌 3이 진행되던 2021년 2월에 돌연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정” 을 이유로 모임을 이탈하였다. 이경의 이탈은 ‘위폐’ 멤버가 모두 참여하고 있던 온라인 채팅방을 ‘나감’ 으로써 이루어졌다. 그 후 일주일간 어떤 멤버도 이경의 탈퇴에 대해 언급하지 않던 차, 다음 정기 책모임이 끝나고 채팅방이 활성화된 틈을 타서 수아가 이경을 채팅방에 다시 ‘초대’ 한 직후 이경이 어떤 설명 없이 바로 채팅방을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초승이 조심스럽게 이경의 사정을 물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게 되셨다” 는 예은의 대답을 끝으로 더 이상 온라인 채팅방에서 이경의 사정을 묻거나 행방과 안부를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처럼 ‘위폐’에서 어떤 멤버가 소극성을 보여줄 때 다른 멤버들이 취하는 태도는 다소 상반된 두 가지 태도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SNS 관리를 소홀히 하는 멤버를 향한 수아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온라인 채팅방과 정기 책모임의 전후 시간을 활용해 꾸준하게 활동에의 참여를 독려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멤버가 공동의 업무에 소홀해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이 멤버의 소극성을 “같은 페미니스트로서의 믿음” 아래 합리화하고, “개인의 사정”이라는 설명만으로 소극적인 참여를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극적 참여가 ‘위폐’라는 모임의 존속과 멤버들 간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실천공동체로서 ‘위폐’의 공동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멤버들의 행동은 공동체로서 ‘위폐’의 정체성을 흔드는 기제가 될 수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위폐’의 소극적 참여자들과 이러한 소극성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관망하는 멤버들의 태도가 ‘위폐’의 존속을 가능케 하고 있다. 소극적인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멤버의 개인적 사정에 개입하는 태도는 페미니즘 모임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사정은 멤버들 간에 지켜야 할 배려나 존중,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로의 개인적 삶에 대한 관망의 태도는 멤버들로 하여금 개입과 관여의 짙을 차단함으로써 멤버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만들기

‘위폐’ 멤버들이 ‘위폐’와 같은 페미니즘 소모임을 기획하거나 참여하게 된 것은 한국 사회,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게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로써 신뢰할 수 있는 끈끈한 사회적 관계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한국의 온라인 페미니즘이 대중적 영역까지 확장되며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담론과 이슈를 만들어 왔지만, 그에 따라 페미니즘을 둘러싼 갈등과 반격 역시 다양해졌다(김보영 2018: 3). ‘위폐’ 멤버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 앞서 II 장의 참여 동기에서 서술하였듯, ‘위폐’ 멤버들

이 생각하는 주변 인간관계와 한국 사회는 유사하게 성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이며, 기존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서는 페미니즘에 관한 관심과 대화를 안전하게 나눌 수 없었다.

그런 반면 페미니즘 책모임 ‘위페’가 멤버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들이 정기 책모임을 통해 반복적으로 ‘여성’으로서 내밀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페미니즘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고, ‘여성’으로서 다르면서도 매우 유사한 경험을 해왔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아래의 [사례 42]는 정기 책모임 3-3에서 『여자들의 섹스북』이란 책으로 여성의 성적 경험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발제자인 초승은 여성의 성적 경험과 이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주제로 자신의 일화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다른 멤버의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멤버들은 개인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부정적 통념에 대해 말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있었다.

[사례 42] 정기 책모임 3-3

초승: 그러면 seks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자기가 경험했던 좋지 않았던 seks 경험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관계 자체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수아: 제가 느꼈던 건 여자들이 seks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재미있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봤거든요. 우리는 남자가 흥분을 했는데 당장 seks를 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반대 상황은 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초승님 혹시 보셨나요? 아마 코미디 제목이 <만져볼래?>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의 성적 경험, 여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승: 확실히 여자가 원할 때 보다 남자가 원할 때 더 할 확률이 높고, 하는 게 맞지, 해줘야지, 여자가 양보해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맘이 있잖아요. 아내가 seks를 원하면 남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장면 같은 거요. 그런 것처럼 성욕을 표현

하는 여자는 무시무시하게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만들고, 남자가 흥분하면 남자다운 거고 건강하다고 말하는 게요. 여자가 성욕을 표현했을 때 그 표현을 위축하게 만드는 거죠.

예은: 그런 거죠. 그렇게 성적인 표현을 잘하는 여자를 원하지만 내 여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거요.

위의 대화에서 멤버들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이야기해보자는 초승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성’, ‘여자’의 성적 욕망과 ‘남자’의 욕망을 비교하며 여성의 성적 욕망 표출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사회의 통념을 비판하고 있었다. 수아는 자신이 보았던 스탠드업 코미디를 언급하며 여성과 남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상반된 시선을 지적한다. 이들은 1인칭의 관점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 않고 ‘여자’나 ‘남자’, 혹은 대중문화 콘텐츠 속 화자 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위의 [사례 42]는 폐미니즘에 관심을 가진 여성만이 모여 있는 ‘위폐’에서 조차 개인의 성적 경험을 개방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한국 사회의 강력한 금기를 드러내는 한편, 내밀하고 민감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멤버들 간의 차이보다는 ‘여성’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아가 “우리는 남자가 흥분했는데 당장 섹스를 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잖아요”라고 말할 때 “남자”와 대비되는 여자를 “우리”라는 2인칭 주어로 표현하는 것은 ‘위폐’의 멤버들을 여성 시리즈로 묶어 차이를 축소하고 공통점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처럼 공통의 속성을 부각하고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는 ‘위폐’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검열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자기검열 (self censorship)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위험한 욕망을 도덕적 의지로 억눌러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일”을 일컫는 검열이란 단어에 ‘자기’를 붙인 말로, ‘위폐’에서는 특정한 종류의 이야기를 스스로 자제하여 말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캐묻지 않는 태도

로 해석된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쉽사리 꺼낼 수 없는 내밀한 이야기를 ‘여성’들 간에 얼마든지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사람의 내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위폐’ 멤버들은 공감과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감정적 긴장을 다루는 일에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자칫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매우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멤버 이경의 대답은 이러한 멤버들의 태도를 정확히 보여준다.

[사례 43] 이경(심층면담)

연구자: 책 얘기할 때 저희 각자 겪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거나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경: 음, 글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일 먼저는 분량. 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두 번째는 혹시나 내가 했던 어떤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요.

연구자: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도요?

이경: 네. 내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사람에게 공격적인 발언이 될 수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 발언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주거나 되게 무례한 발언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가난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기를 비하해도 그 선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만족한 것보다 훨씬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비하하면 어때?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비하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비하를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처럼 ‘여성’ 페미니스트로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

어야 한다는 윤리적 필요성은 역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멤버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털어놓거나 다른 멤버의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검열과 충돌하며 서사의 구체성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일반성을 강조하게 된다. ‘여성’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며, 자기검열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위폐’ 멤버들 사이에 침범할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을 만든다. 멤버들 사이에 ‘여성’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체성에서 비롯된 경험이 두드러지면, 개개인의 경험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성과 차이는 더 이상 파고들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이자 “상처가 될 수 있는” 차이로 남게 된다.

이 금기를 침범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페미니즘 모임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적절한 태도로 여겨지고 있다. [사례 44]의 민서의 말은 오히려 페미니즘이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함부로 관여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44] 민서(심층면담)

연구자: 본인 이야기를 쓰실 때 주의를 기울이시는 점이 있나요? 저희
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제가 쓰는 글을 남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약간의 거짓
말과 과장, 잘못 합리화, 이런 걸 피할 수는 없겠죠? 그냥 블로
그에 비공개로 쓰는 글은 할 말 못 할 말 머리에 있는 거 다 쓸
아서 내는데. 이렇게 공개로 되는 글들은 분명 솔직하게 다 쓴다
해도 검열을 하고, 합리화를 하고, 항상. 과장도 하고, 양념도 많
이 치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남에게 보여줄 땐 그런 게 없지는
않겠죠. 되게… 어, 제가 이게 진짜, 남한테 상처 준 적이 많아서
자꾸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말의 무게가 너무 큰데 그걸 가볍게
소비한 적이 많아서. 예를 들면… 성폭행 당한 경험이 있는 친구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안 겪어봤다는 이유로 가볍

게 이야기한 적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분명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고, 이러면 당황해서 그냥…그냥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친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걸 쉽게 “이해한다”, “너 힘든 거 알아”, 이런 이야기도 솔직히 다 상처란 말이에요.

연구자: 모임에 있는 다른 분들이 상처받으실까봐.

민서: 이게 안 친하고 그냥 회사에 동료나, 이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깊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친하고, 같이 페미니즘하고, 연대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깊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지나치게 관여와 개입을 경계하는 이러한 태도는 배려와 존중으로 해석되지만, 역설적으로 ‘여성’ 페미니스트로서 내밀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공감과 연대를 요구하는 관계가 더욱 가깝고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페미니즘 모임에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가 이들로 하여금 익명성과 친밀성의 중간에서 출다리기하며 사회적 거리감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3) 미완의 친숙성

‘위폐’의 사회적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성차별과 가부장제로 해석되는 수직적 위계를 거부하는 평등주의이다. 앞서 멤버들 간에 상호 존댓말과 호칭어 ‘님’을 사용하고, 나이 혹은 학력과 같이 힘과 권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개인 정보를 묻지 않는 의사소통 방식으로부터 ‘위폐’의 멤버들이 위계를 완전히 삭제한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한편 ‘위폐’의 관계는 집단 차원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강한 소속감을 획득하기보다 일대일 관계가 교차하며 얹혀 있는 느슨한 개

인주의를 추구하는 양상을 떤다. 연구자는 ‘위폐’의 멤버들과 심층면담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기 책모임이나 온라인 채팅방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멤버들 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던 민서나 다솔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멤버들이 일대일로 연락하며 따로 만남을 가지거나 대화를 나눈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교류나 연락, 만남의 유무를 정기 책모임이나 온라인 채팅방과 같은 ‘위폐’의 공적인 채널을 통해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위폐’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평등주의와 개인주의는 폐미니즘 이데올로기를 통해 느슨한 연대 의식을 만들고 유지하는 두 개의 축으로 해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폐’ 멤버들이 생각하는 폐미니즘은 같은 여성일지라도 개인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해기 위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하고, 서로 다른 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를 타파하는 평등을 추구해야 했다. 폐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평등주의와 개인주의가 결합함으로써 ‘위폐’에서 형성된 사회적 거리감은 익명성과 친밀성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는 것이다.

수아가 연구자에게 들려준 한 일화는 정기 책모임이나 온라인 채팅방과 같이 ‘위폐’라는 공식적 통로를 거치지 않은 일대일 교류에서 조차 다른 멤버와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45] 수아(심층면담)

따로 열었던 글쓰기 모임에 그분이 늦어서 안 들어오신 날이 있었잖아요. 모임이 끝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을 때 시작은 시간을 잊어서 미안하다, 이거였는데 갑자기 그런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힘든 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었고 “여러가지 일을 겪으셨는데 잘 지내세요?”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저한테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관심이고 안부를 묻는 것이란 걸 알지만 곤란함도 함께 들었고. 이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면 제가 욕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안 괜찮아. 그게 어떻게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대신 작게 잘 지내요,라고 말했더니 그 분의 이야

기가 쏟아져 오더라고요. 솔직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힘드셨겠어요, 정도밖에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상담사를 만나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끝까지 “나도 지금 힘들어요”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서로 간에 일면식도 없던 여성들이 온라인상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나 구성한 소규모의 페미니즘 책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끊임없이 친숙성(sociability)의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정향진 2020).

“친숙성의 장”이란 도움과 갈등, 참견과 관여의 형태로 “마음을 주고 받는” 관계가 나타나는 사회적 장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관점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중간적 성격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정향진 2020: 165-166). ‘위페’에서는 소위 사적인 경험으로 치부되는 여성의 내밀한 경험을 아직까지 친밀하지 않은 상대에게 털어놓는다는 점에서 완전히 사적이지도, 완전히 공적이지도 않은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위페’는 멤버들에게 친숙성의 장으로 여겨진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위페’의 멤버들은 서로의 일상과 삶에 도움을 제공하거나, 참견하고 관여하고, 혹은 이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앞서 소극적 참여자에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정을 캐묻지 못하고, 소극적 참여를 두고 언쟁을 벌이지 않는 ‘위페’ 멤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페’의 멤버들은 여전히 ‘위페’라는 모임에서 자신이 기준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종류의 연대감을 원한다. 비단 ‘위페’라는 특정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친숙성의 장을 여러 군데 구축하고, 언젠가는 가족만큼이나 친밀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다. ‘위페’ 멤버들이 만들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 것 같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미연이 내놓은 대답은 ‘위페’의

멤버들이 가족과 같이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하고 ‘위폐’와 같은 모임을 계속 찾아오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사례 46] 미연(심층면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19년에 녹색친구들이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비혼 여성 주거, 비혼 여성 공동체, 이런 문구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사회주택 만드는 조그만 회사인데. 저는 아주 젊은 20대, 30대 여성들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도 40대, 50대 연령대가 있었어요. 20대 대학생도 있었고, 50대 아이를 다 키워놓고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30대 후반이었고. 그게 비혼 여성 공동체 주거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독서모임으로 가볍게 어떤 사람이 모이는지 보고, 함께 책을 읽으면서 같이 살아갈 생각이 있는지, 이 회사에서 땅을 구해 주택을 만들면 같이 살아볼 의향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폐미니즘적 공동체라는 걸 꾸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데 이 모임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만큼이나 폐미니즘, 그러니까 폐미니스트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애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서 느슨한 연대라는 단어와, 이런 종류의 모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즌 1이었고, 시즌 2부터는 정말 주택을 꾸릴 분들만 남았고 저는 시즌 1까지만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D 카페에 갔을 때 프로그램의 첫 강의가 비혼 여성에 대한 강의였고, 혼자 살아갈 것인지 같이 살 것인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서 이 ‘위폐’를 시작하면서도 그런 고민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모임의 가치가 어떻게 계속 지속될 것이냐에 있어서 그 알맹이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고, 이런 관점의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삶의 에피소드나 애환들을 같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그 모임에 갔을 때 미래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 건가? 아니면 다른 집이나,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서 비혼들과 같이 살아보는, 여성 공동체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그게 실현 가능할까? 이런 걸 테스트하는 그런 욕심을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게 되고 왜 이런 모임이 내 인생의 한 섹션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답은 찾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 우리 모임이 잘 된다면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미연의 이야기에서 비혼 여성들이 모여 사는 주거 공동체와 ‘위폐’와 같은 모임에서 형성된 친밀함은 서로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 “다 내려놓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여성 공동체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연에게 ‘위폐’와 같은 모임은 페미니즘을 공부하며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사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살면서 겪은 어려움과 고민, 일화를 터놓을 수 있는 곳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는 ‘위폐’의 멤버들이 서로의 삶에 일정 정도 관여하는 친숙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위폐’라는 모임이 아직까지 친숙성의 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페미니즘이라는 관심사와 목표는 ‘위폐’ 멤버들이 서로에게 가족이나 친구와는 다른 친숙한 관계를 요구하는 이유이면서,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하는 일상에의 관여나 개입을 자제하도록 만드는 기제가 되고 있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조차 하지 못한다는 내밀한 이야기를 고백함으로써 여성 페미니스트로서의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을 주고받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고 다른 멤버의 소극적 참여를 “개인적 사정”으로 덮어두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좁혀지지 않는 사회적 거리감을 형성함으로써 완전히 익명도, 친밀함도 아닌 독특한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멤버들 사이의 거리를 내밀하게 끌어당기는 동시에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긴장 상태는 ‘위폐’와 같이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페미니즘에 관한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며 만들어 가는 소모임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구성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위폐’의 멤버들이 만드는 사회적 관계는 친숙성을 달성하지 못한 미완(未完)의 친숙성이라고 볼 수 있다.

3. 페미니즘 책모임의 의의와 지속 가능성

1) 페미니즘 네트워크의 구심점

급속도로 발달한 인터넷과 온라인의 소셜미디어는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서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묶이는 사람들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점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역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2000년대부터 여성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에 있는 멤버 미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페’ 멤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소셜미디어로 페미니즘 이슈를 접해왔고 이에 따라 페미니즘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온라인 페미니즘으로 표출되는 익명의 집단적 발화에 담긴 분노와 호소에 익숙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페미니즘 이슈를 인식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의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거리낌이 없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은 개인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리더나 멤버십이 불명확하고 다양한 범주의 참여자가 합류하고 이탈하는 일종의 ‘연결 행동(connective action)’ (Bennet · Segerberg 2012) 또는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 (카스텔 2015)의 양상을 띠고 있다(김은주 2019: 15).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축되는 네트워크는 익명의 개인이 누구든 쉽게 발을 들여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벗어날 수 있는 자발성을 전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프라인까지 넘나드는 한국 온라인 페미니즘의 실천 양상은 뚜렷하게 고정된 정체성을 제시하지 않는 수많은 익명의 개인들이 만드는 분산적이고 유동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위페’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나게 된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활동하는 소모임이라는 점에서 모임의 공동 실천에 참여할지 여

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이 분명히 존재한다. 멤버 다솔이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에서 언급한 “나의 선택권”은 ‘위폐’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결성된 소모임이 기존의 사회운동 단체나 조직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폐’와 같이 주기적인 모임 활동이 핵심이 되는 소모임은 앞서 ‘연결 행동’ 또는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유나 자발성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는 유동적인 네트워크와 다르다. ‘위폐’와 같이 온라인 상의 익명성을 벗어던지고 직접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페미니즘과 일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려는 소모임에서는 모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과의 대인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나의 선택권”을 언급하며 모임 참여를 자발적 선택의 문제로 이해했던 멤버 다솔이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가운데 가장 참여율이 저조했던 멤버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다솔은 ‘위폐’에서 만난 멤버 몇몇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 차례 정도 만났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작 책모임 ‘위폐’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인 정기 책모임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²⁹⁾ 이러한 사실은 ‘위폐’라는 실천공동체에서 다솔을 상대적인 외부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다솔이 모임에 참여하고 이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모임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가까워지(려)는 멤버들 간의 관계가 이상적인 의미에서의 자발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역설적이게도 다솔과 같은 소극적 참여를 방기하는 것에 가까운 배려의 태도가 참여율이 낮은 멤버가 더욱 편하게 모임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드

29) 다솔은 본 조사가 시작되기 전 2020년 11월에 열린 정기 책모임 2-1에 대면 참석한 후 시즌3이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정기 책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이 발제를 맡았던 정기 책모임 3-4에 조차 당일 새벽 온라인 채팅방에 발제문을 공유한 것을 제외하고 참석과 반응을 모두 보이지 않았다. 추후 심층면담을 통해 이직 등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겹쳤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으나, ‘위폐’의 다른 멤버들이 이러한 다솔의 소식을 제대로 알 길은 없었다. 짧게나마 비대면으로 참석했던 기획 회의에서 근황을 전한 다솔은 책을 추천하고 대략적인 후보가 추려지자 인사 없이 접속을 끊고 회상회의 프로그램에서 사라졌다.

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연구에 참여한 멤버들 대부분은 가능하다면 ‘위폐’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 했고 ‘위폐’라는 책모임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러나 멤버들의 기대 혹은 희망과 그들의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퇴근한 뒤에 가서 가볍게 수다를 떨다 오는 느낌”(미연)을 원했던 멤버들과 ‘위폐’와 같은 페미니즘 소모임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멤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견과 간극은 해소되지 못했다. 특히 연구자가 ‘위폐’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시즌 2부터 기존의 멤버보다 많은 수의 새로운 멤버가 유입되고, 이와 동시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어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정기 책모임이 비대면으로 이어짐에 따라 모임의 진행 방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멤버들 사이의 이견은 아쉬움으로 표출될 뿐 제대로 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2021년 1월 초 열렸던 시즌 3의 기획 회의는 지난 시즌 2를 되돌아봄으로써 다음 시즌에 반영하고 싶은 변화 내용을 논의하고, 함께 읽을 책을 직접 골라 발제자를 정하는, 반성회와 기획 회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미리 온라인 채팅방에 추천 도서를 공유한 뒤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이경과 미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각자 준비해온 추천 도서를 소개하고 설명한 뒤 투표를 통해 다음 시즌에 함께 읽을 책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던 중 정기 책모임 외의 친목 활동이 부재했던 점을 지적한 초승에 의해 모임의 “밀도”를 높이자는 제안이 나오기 시작하며 기획 회의의 분위기가 다소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평소 모임에 대한 애정을 계속 드러냈던 초승은 시즌을 마무리할 때마다 다 함께 활동한 내용을 물질적 형태로 남기고 싶다고 제안했는데, 이에 민서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실상 초승의 제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이다. 민서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책을 다 읽어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초승의 제안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뜻을 넘지시내비쳤다. 결국 “밀도”를 높일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채, 대신

한 시즌이 끝날 때마다 함께 생각을 나눌 기회를 더 마련할 수 있는 정리 모임을 열자는 쪽으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합의된 시즌 3의 정리 모임에 실제로 참여한 멤버의 수가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³⁰⁾은 한편으로 놀라웠다. ‘가벼운’ 공동체로서 정기 책모임과 같은 공동의 활동에서라도 일시적이나마 내밀한 경험을 공유하여 강렬한 연대감을 느끼던 ‘위폐’ 멤버들이 모임의 핵심 활동에 조차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은 단순히 “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개별 멤버들을 ‘위폐’라는 모임에 붙잡아 둘 만한 충분한 인력(引力)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이런 점에서 ‘위폐’와 같은 페미니즘 소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에 흩어져서 얹히고 설친 페미니즘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는 개인에게 있어 꾸준히 방문할 수 있는 일종의 구심점(求心點)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구심점이라는 비유는 페미니즘 네트워크의 모든 지점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네트워크 곳곳에 각자 무게를 두는 지점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위폐’ 멤버들에게 ‘위폐’라는 모임은 현재 한국 사회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에 빠져 있는 페미니즘 네트워크에서 일정한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모임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페미니즘 이슈와 담론을 쉽게 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슈를 포착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찾아와 페미니즘에 관해 이야기하고 일상의 어려움과 고민을 토로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어가고” (민서) “느슨하게나마 연대 의식을 느낄” (미연) 수 있는 소모임이 이들에겐 필요했다.

아래 수아의 사례는 느슨하게나마 구심점에서 직접 만나 그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례 47] 수아(심층면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 그 사람들과 같이 만

30) 당시 8명의 멤버 중 정리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연구자를 포함해 3명이었다.

들어가는 경험이 저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는 위축되거나, 피해자 같은 느낌으로 스스로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이 세상에 적절하지 않게 태어난 것 같고, 외톨이처럼 느꼈었는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물론 다른 점도 많지만, 이런 사람들끼리 떨어져 있으면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같이 책을 읽고 하면서 매번 존재를 재확인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더라도 같이 연결되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서로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 구심점으로서 페미니즘 소모임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의 실천과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지속되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강렬하고 끈끈한 소속감이나 친밀한 관계까지는 형성되지 못하더라도 ‘위폐’는 멤버들에게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2) “해변을 떠나지 않는 모래알들”

2시간이 넘게 소요된 기획 회의를 거쳐 시작된 ‘위폐’의 시즌 3은 기대했던 것만큼 멤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기획 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시즌 3을 진행하는 내내 멤버들과 개별적으로 진행한 심층면담에서 이들은 각자 ‘위폐’에 걸었던 기대와 실망을 드러내고,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축적되고 있었던 모임의 진행 방식과 각 멤버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움을 내비치곤 했다. 특히 ‘위폐’ 멤버들이 연구자에게 털어놓았던 고민 중 하나는 페미니즘 책모임으로서 ‘위폐’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위폐’라는 모임이 오래 이어지기 위해 다른 멤버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동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멤버가 있는가 하면, 모임 차원에서 참여할 활동이 늘어나고 친목을 위한 만남이 잣아지려 할수

록 거리를 두고 싶어진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 멤버도 있었다. 예를 들어 멤버 미연은 연구자가 ‘위폐’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즌 2부터 정기 책모임의 진행 방식에 의견을 보태거나 온라인 채팅방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기 책모임 외의 활동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멤버였다.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에서도 미연은 계속해서 ‘위폐’의 멤버들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내비쳤다.

[사례 48] 미연(심층면담)

연구자: 처음 모임 시작하실 때는 가볍게, 잘 만날 수 없는 연령의 페미니스트를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충족이 되셨나요? 새로운 생각이 들었다거나.

미연: 일단 저희가 각자의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서는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시즌 1 때 보다는 다양해지고, 논의가 깊어진 느낌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 그래서 더 부담스러워진 것도 있어요.

연구자: 열심히 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미연: 취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열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오래 할 모임으로 끌고 갈 것인가라는. 수아님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전에 시즌 1만 한 게 아니라 필사 모임도 같이 했었고요. 이제 이 모임 하면서 채팅방으로 외주시는, 추천 해주시거나 하는 것들이 제가 보는 SNS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받아내고, 다 느끼고 하기에 조금 버겁다는 느낌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 반, 조금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보자, 라는 생각이 반.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미연이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소모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연은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 “개인의 인생에서 (페미니즘) 모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엔 공감” 한다며 ‘위폐’와 같은

모임이 계속돼 “페미니즘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삶과 생활의 지지대 정도는, 감정적인 지지대 정도는 담당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위페’의 멤버들이 서로의 개인적인 삶의 면면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모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페미니즘이라는 관점 혹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위페’라는 책모임이 표방하는 목표이자 멤버들의 모임 참여 동기이자 멤버들이 서로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공통점으로, 멤버들이 ‘위페’로 만나 관계를 만들기 시작한 전제가 되며 ‘위페’ 안에서 멤버들 간에 생겨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의 씨앗을 일시적이나마 해소해주는 융화제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다.

흥미롭게도 ‘위페’의 멤버들을 하나의 모임으로 뭉칠 수 있게 만드는 페미니즘은 멤버들이 얼마든지 ‘위페’를 떠나 다른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전술하였듯 페미니즘 책모임 ‘위페’는 페미니즘 네트워크 곳곳에 자리하는 구심점 중 하나로서 멤버들에게 있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멤버들은 페미니즘으로 연결된 그물망 안에서 스스로 모임에 참여하거나 모임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하면서 여러 구심점을 오갈 수 있다. ‘위페’와 같은 페미니즘 책모임, 나아가 페미니즘을 매개로 형성되는 모임과 관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이경의 대답은 ‘위페’라는 모임의 존속과는 별개로 페미니즘 소모임에 계속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준다.

[사례 49] 이경(심층면담)

이경: 여성들이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까도 초반에 연구회를 들어갔던 계기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가 있는 것만으로 위안이 조금 됐거든요. 내가 할 것이 있고, 속할 곳이 있네. 지금 ‘위페’ 같은 경우에도 저

는 이런 모임을 하기 시작한지 오래돼서, 시니컬하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인간 관계를 겪으면서 그래, 그 모임에서 친구가 생기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른 모임이 있고, 다른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임을 폄하할 의도는 없거든요. 누구와 친구가 되지 않고 거리가 이만큼 있어도 주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도 페미니즘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고, 만날 수 없는데, 2주에 한 번 그걸 하는 것만으로 해소되는 게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친구가 되고 커뮤니티가 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위페’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든, 페미니즘을 하는 여성들이 찾아갈 수 있는 모임이 계속 있으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유지가 되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모래알스럽지만, 모래알이 모여서 해변이 될 수 있어요. 해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기회가 계속 마련되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페’처럼 누군가 이런 모임을 만들었고, 여기서 누군가는 환멸을 느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야지. 결국 한 번 이걸 경험했던 사람은 책모임을 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연구자: 한번 발을 들이면 뺄 수 없는?

이경: 네. 다시는 페미니즘 모임 같은 거 안해, 라는 건 내가 안티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위페’)에 실망을 한다고 해서 다른 모임, 그러니까 실망을 해도 다른 모임에 갈 거고. 다른 모임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따라서 페미니즘 책모임의 지속성과 핵심은 ‘위페’와 같은 모임 하나의 존속 여부로 정의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경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뭉쳐지지 못하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을 “해변”과 같은 페미니즘 네트워크 속에 함께 있다면 얼마든지 뭉칠 수 있는 다른 상대를 찾을 수 있다. 페미니즘을 계속 공부하고 페미니즘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 이들 개개인은

페미니즘 네트워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위페’를 떠나거나 언젠가 ‘위페’라는 모임이 사라지더라도 각자 참여하고 있던 다른 모임이나 새롭게 알게 된 모임을 통해 페미니즘에 관해 말하고 이야기하며 페미니즘의 소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 책모임에 참여했던 경험은 모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경험으로 축적되어 다른 모임에 이어질 수 있다. 즉, 페미니즘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책모임 ‘위페’의 의의는 페미니즘 모임에 참여하는 개별 멤버를 통한 페미니즘 네트워크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지속되는 것이다. ‘하이퍼링크’를 통해 흩어져 있는 페미니즘 소모임이 느슨하게 묶이듯, 각각의 멤버들이 거쳐오고 참여하는 여러 페미니즘 소모임은 참여자 개인을 고리로 삼아 페미니즘 네트워크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경이 말한 “해변의 모래알”은 페미니즘이라는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네트워크의 해변에서 뭉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모래알과 같은 ‘위페’의 멤버들과 현재 한국 사회 속 페미니스트 대중에 대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페미니즘을 떠나지 않는 한, 이들은 언제까지고 “해변을 떠나지 않는 모래알들”일 것이다. 세상 어딘가에 잠시나마 발붙여 페미니즘을 주제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며 “느슨한 연대”를 느낄 수 있는 모임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와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서 ‘위페’ 멤버들은 책을 읽고, 발제문을 쓰며, 정기 책모임에 나가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시즌 3이 모두 끝나고 한 달의 휴식기를 보냈던 페미니즘 책모임 ‘위페’는 2020년 5월 또 한 번 큰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코로나 19를 이유로 길어진 비대면 모임에 대한 피로감과 시간이 갈수록 참여율이

낫아진 시즌 3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위폐’를 재정비하기 위해 열었던 대면 모임은 그간 모임의 진행과 서로에 대해 각자 축적해왔던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하는 장이 되었다. 이 대면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연구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아 정확히 모르지만, 이후 수아로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참여를 요구하던 초승과 그만한 수준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는 멤버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 채 감정적 갈등으로까지 번졌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구에 참여했던 세 명의 멤버가 대면 모임 직후 하루에 걸쳐 ‘위폐’를 이탈하였고, 이로써 ‘위폐’에 남은 멤버는 시즌 2와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이후 폐미니즘 책모임 ‘위폐’는 이전과 매우 다른 진행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멤버들의 관계 역시 변화를 겪었다. ‘위폐’라는 구심점을 떠난 멤버들은 폐미니즘 네트워크라는 해변에 여전히 남아 또 다른 구심점을 찾아 나섰고, 남은 멤버들은 정기 책모임을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전보다 끈끈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들고자 분투했다.

본 논문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재부상한 현대 한국 사회의 폐미니즘 대중화 속에서 “폐미니즘 도서 열풍”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폐미니즘 책모임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다.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연결되는 개별적 주체의 유동적인 집단행동이 ‘온라인 폐미니즘’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폐미니즘을 공부하고 폐미니스트 동료를 만들고 싶다는 동기로 만들어진 폐미니즘 소모임의 존재는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김은주 2019: 11; 김소라 2018; 김주희 2017). 연구자는 이러한 종류의 소모임 가운데서도 폐미니즘 도서를 읽는 책모임에 집중하여,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는 리터러시 실천과 그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천공동체이자 ‘가벼운’ 공동체로서 폐미니즘 책모임 ‘위폐’는 폐미니즘 도서를 읽고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며 ‘여성’으로서의 내밀한 경험을 공유하는 곳으로, 리터러시 실천을 기반으로 중간적 성격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폐미니즘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고 있었다.

본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지형이 변화해온 과정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위폐’가 탄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멤버들의 기획 및 참여 동기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페미니즘은 사회운동 지형의 변화와 PC통신 및 인터넷의 도입이 맞물리며 빠르게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온라인상의 여성 포털사이트와 여성 커뮤니티의 확산은 상업적이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국 여성의 공적 발화를 가능케 만들었고, 이는 한국 여성 대중의 여성주의 의식 함양으로 이어졌다. 2015년 이후 한국의 페미니즘 지형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익명성과 일상성에 기반한 개인화된 운동”이 되었고, “개인화되었으나 사회적 연결망으로 작동”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집단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채복 2020: 126; 김은주 2019: 5). 이러한 ‘온라인 페미니즘’과 동시에 근래 한국 사회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backlash)’가 점차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0년 7월 탄생한 페미니즘 책모임 ‘위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페미니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네 명의 젊은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임이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 전반의 ‘백래시’를 의식하며 ‘안전하게’ 페미니즘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를 찾아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부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책모임 ‘위폐’를 만들었고, 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III장에서는 ‘위폐’에서 이루어지는 리터러시 실천에 대해 분석하였다. ‘위폐’ 멤버들은 책을 읽고, 발제문을 쓰고, 이를 중심으로 정기 책모임에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페미니즘을 학습하며 페미니즘 공간으로서 ‘위폐’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었다. 능동적 독자로서 ‘위폐’의 멤버들은 페미니즘 도서를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읽은 뒤, 개인적 경험과 멤버들에게 던질 질문을 중심으로 발제문을 썼다. 이러한 발제문을 토대로 진행된 정기 책모임에서는 책의 주제와 관련된 멤버들의 개인적 경험이 반복적으로 발화됨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경험들이 거시적

인 한국 사회의 맥락과 연결되고 여성의 경험으로 일반화되고 있었다. 한편 ‘위페’ 멤버들은 함께 읽은 책이 한국 여성으로서 자신의 일상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성차별적이거나 페미니즘에 무지한 말과 질문을 들었을 때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기 책모임에서 ‘위페’ 멤버들은 실제와 가상의 상황에서 발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저항적 말하기 전략을 모색하고, 연습하며, 각자의 전략을 공유하고 있었다.

IV 장에서는 ‘위페’ 멤버들이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페’ 와 같은 페미니즘 책모임의 지속 가능성을 재정의하였다. ‘위페’ 멤버들이 호칭어 ‘님’과 존댓말을 사용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의사소통 행위는 ‘위페’ 를 ‘가벼운’ 공동체로 유지하는 기제가 되고 있었다(Blommaert 2017; Blommaert 2018; Blommaert · Varis 2015). 이에 더해 소극적 참여자의 사정을 캐묻지 않는 등 ‘위페’ 멤버들은 서로의 삶에 관여하고 개입하지 않는 것을 배려와 존중으로 해석함으로써 사회적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위페’ 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은 오히려 멤버들이 더 친숙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기제가 되었다. 페미니즘 책모임 ‘위페’ 는 미완의 친숙성을 유지하는 개개인의 멤버들이 비교적 거시적인 페미니즘 네트워크 속에서 느슨하게 참여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책모임의 지속은 멤버 개개인의 느슨하고 유동적인 참여를 통한 페미니즘 네트워크와의 연결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본 논문은 공적이지도 사적이지도 않은 중간적 수준의 사회적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 실천의 양상이 개별성과 집단성 어느 쪽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온라인 공간의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연결된 개별적 주체들의 페미니즘 및 여성운동에 주목하는 기존 연구는 이들의 행동을 과편화된 ‘각개전투’ 로 치부하거나 해시태그 또는 커뮤니티의 익명성으

로 뭉뚱그려지는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온라인 페미니즘은 그 자체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새로운 현상이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현실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말 그대로 ‘넘나드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논문은 페미니즘 책모임에서 나타나는 리터러시 실천과 의사소통 방식, 멤버들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함으로 페미니즘 책모임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여성단체와 같은 페미니즘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연결하는 개별적 주체들의 행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 책모임을 만들고, 책을 읽고, 페미니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내밀한 경험을 나누며 저항적 말하기 전략을 학습한 경험은 이들을 페미니즘 네트워크 속에 머무르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저항의 자양분을 축적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 공동의 실천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실천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페미니즘 책모임에서 이루어지는 리터러시 실천에 대한 참여를 통해 멤버들이 페미니즘 지식을 학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뢰할 수 있는 멤버들에게 개인적 경험을 ‘안전하게’ 고백하고, 이를 책 속의 사례나 다른 멤버의 경험과 연결하며, 현대 한국 사회라는 거시적 맥락과 연결하는 리터러시 실천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서구 유럽의 2세대 여성운동의 정치적 슬로건을 학습하는 실천의 일종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견은 일상과 이론의 연결을 강조하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위계에 비판적인 페미니스트 폐다고지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배유경 2018). 페미니스트 대중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는 동시에 페미니즘 책모임과 같은 실천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페미니즘을 학습한다는 사실은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 바깥에 있는 성인의 페미니즘 학습의 통로로서 페미니즘 책모임의 의의를 보여준다. 하지만 공동체로서 페미니즘 책모임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나아가 책모임에서 얻은 경험이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정치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페미니즘 네트워크 속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즘 소모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코로나 19 감염병 국면에 관한 서술이다. 연구자의 자료 수집 내내 정기 책모임이 비대면으로 열렸으며 이러한 상황적 바탕이 ‘위폐’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상황적 바탕 이상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국면과 ‘위폐’의 사회적 관계의 연관성을 기술하는 차원에서 그쳤다. 페미니즘 책모임의 멤버들이 보여준 ‘미완의 친숙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계점은 페미니즘 책모임 참여와 비혼됨(singlehood) 간의 관련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다. 연구자는 2020년 10월 소셜미디어에서 연구 대상을 찾는 동안 ‘비혼주의’를 표방하거나 이를 참여 자격 조건으로 내세운 수많은 책모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연구에 참여해준 ‘위폐’의 모든 멤버가 연령과 관계 없이 비혼 상태였으며, 이 중 이경과 미연은 연구자와의 심층면담 및 정기 책모임에서 비혼 여성 공동체나 부모 돌봄이라는 문제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관심, 그리고 고민을 공유해왔다. 다른 멤버들은 “가부장제 타도를 위한 집단적·정치적 행동”으로 축약되는 “급진적 비혼 담론”에 꽤 익숙한 편이었고 의식적으로 ‘비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은숙 2020: 207-208). 이처럼 비혼됨 또는 비혼주의는 향후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소모임 연구에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모두 참여하거나 남성만 참여하는 페미니즘 책모임을 포함하지 못했다. 같은 페미니즘 도서를 두고 남성과 여성의 해석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으며, 여성만 참여하는 책모임과는 참여자 간에 나누는 대화의 내용과 논의의 종류가 매우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자의 젠더를 비롯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페미니즘 책모임에 대한 더 많은 사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위계 없이 무결한 평등을 추구하며 배려와 관여의 중간에서 줄을 타듯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던 페미니즘 책모임 ‘위페’가 조사 끝자락에 맞이했던 변화는 페미니즘을 알고, 공부하며, 추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모임이 이상적인 의미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편한 전망을 시사한다. ‘위페’의 멤버들은 연구자의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페미니즘이란 끈으로 연결된 ‘위페’란 모임의 다른 멤버들과 서로의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배려와 존중으로 해석됐던 이러한 태도는 어쩌면 멤버들 스스로 자신이 기대하는 공동체의 이상과 그것을 실현할 방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비단 페미니즘 및 페미니스트 공동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나 오프라인의 관계를 만들고 있던 ‘위페’의 멤버들의 근본적인 고민, 다시 말해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위계 없이 평등한 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로의 삶에 관여하는 안전한 지지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코로나 19 감염병 국면 속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던지고 있는 질문일 것이다. 이미 온라인 세계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며 우리의 물리적 일상 속에 스며들어 뗄 수 없는 일부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이 새롭게 도래한 시대의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탐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강남식 · 윤정숙 · 남인순, 1999, “80-90년대 여성운동의 평가와 세기 전환기 여성운동의 전망과 과제,” 한국여성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세기 전환기 여성운동과 여성이론』.

겔버, 캐서린 (유민석 역), 2019, 『말대꾸 -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성남: 에디투스.

구기연, 2019, “‘혁명 거리의 소녀들(#GirlsofRevolutionStreet)’: 해시태그 정치를 통한 이란 여성의 사회 운동,” 비교문화연구 25(1): 5-43.

김리나, 2017, “페갈리안들의 여성 범주 기획과 연대: 중요한 건 누가 아닌 우리의 계획이다,” 한국여성학 33(3): 109-140.

김민지, 2020, “1990년대 페미니스트 폐다고지와 문학 비평의 접점: 조한혜정의 『글 읽기와 삶 읽기』를 읽고,” 한국여성학 36(1): 27-57.

김보명, 2018,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 사회: 99-138.

_____, 2019, “젠더 갈등과 반페미니즘의 문법,” 비교문화연구 56: 1-25.

김소라, 2018,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불연속적인 시대와 공간을 잇는 페미니즘 대중서,” 페미니즘 연구 18(2): 235-244.

김수아, 2006,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돌우기 실천(empowerment)’ 가능성에 대한 연구: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김숙이, 2007, “2000년대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김은주, 2019, “제 4물결로서 온라인-페미니즘: 동시대 페미니즘의 정치와 기술,” 한국여성철학 31: 1-32.

김애령, 2020,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서울: 봄날의박씨.

김주희, 2017, “독학자들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지식 문화의 현재성에 대한 소고: 신간 페미니즘 서적을 중심으로,” 민속문화연구 63: 351-379.

김효인, 2017, “SNS 해시태그를 통해 본 여성들의 저항 실천: #00_내_성폭력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2(4): 5-70.

데이빗 바튼(김영란·옥현진·서수현 역), 2014, 『문식성: 문자 언어 생태학 개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박채복, 2020, “디지털 공간에서 젠더의 주체화와 저항의 정치: 온라인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東西研究 32(4): 123-143.

배유경, 2018, “여성학/주의 교육을 위한 페미니스트 폐다고지 연구,” 페미니즘 연구 18(1): 345-376.

버틀러, 주디스. (유민석 역), 2016, 『혐오발언: 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학』, 서울: 알렙.

손희정, 2015,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83: 14-47.

신희선, 2005, “디지털 시대와 사이버 페미니즘: 한국여성단체의 온라인 여성운동과 의사소통 방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4(1): 226-267.

오혜진, 2019,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옹, 월터 J. (임명진 역), 2018,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왕한석, 2005, “4장 신분지위호칭에서 의사친척호칭으로,” 『한국 사회와 호칭어』, pp. 97-126, 서울: 역락.

_____, 2010, “5장 한국어 존댓말의 사회언어학적 기술,”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pp. 233-272, 파주: 교문사.

양영희, 2014, “현행 한글맞춤법의 호칭어 띄어쓰기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님’과 ‘씨’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2(3): 115-133.

유민석, 2019,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모욕당한 자들의 반격을 위한 언어를 찾아서』, 파주: 서해문집.

유숙열, 2017, “『페미니스트저널 if』 이야기: 1997년 여름 창간 2006년 봄 완간, 그리고 2017년 『고백』 까지,” *상허학보* 51: 103-138.

윤보라, 2011, “온라인 외모관리 커뮤니티와 20-30대 여성들의 정치주체화: 2008 촛불 맥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_____, 2014, “온라인 페미니즘,” *여/성이론* 30: 166-180.

이영자, 2002, “페미니즘의 대중화: 몇 가지 유형에 관한 가능성과 딜레마의 탐색,” *한국여성학* 18(1): 37-70.

이용숙 · 이수정 · 정진웅 · 한경구 · 황익주, 2012,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일조각.

이정복, 2005, “제 10장 인터넷 통신 언어 호칭어의 특성,” 『한국 사회와 호칭어』, pp. 287-321, 서울: 역락.

전희경, 2001,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정고은, 2017, “2015~2016년 페미니즘 출판/독서 양상과 의미,” *사이間 SAI* 22: 167-198.

정연보, 2015, “영페미니스트와 여성의 재구성: 웹진 달나라딸세포를 통해 본 정체성, 차이, 재현에 대한 고민들,” *한국여성학* 31(3): 31-64.

정향진, 2020, “북한 조직생활 의례와 사회적 장의 정치화,” *한국문화인류학* 53(1): 149-178.

조주현, 2019, “논쟁 중인 한국의 여성운동: 전략적 행동장이론과 실천 이론의 관점에서,” *경제와 사회* 123: 110-154.

조지혜, 2000, “그래서 사이버스페이스로 간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되 었나?” *연세여성연구* 6: 28-39.

_____, 2004, “여성주의 사이버공간,” *여/성이론* 10: 101-116.

조혜영, 2017, “대중문화를 사건화하는 페미니즘 서적: 『페미니즘 리부 트: 혐오의 시대를 뚫고 나온 목소리들』과 『괜찮지 않습니다: 최지은 기자의 페미니스트로 다시 만난 세계,』” *아시아여성연구* 56(2): 305-313.

지은숙, 2020, “한·일 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비혼담론의 특성과 생 애서사 구축에서 나타나는 정치성,” *한국문화인류학* 53(1): 179-218.

카스텔, 마누엘 (김양욱 역), 2015,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 파주: 한 울 아카데미.

팔루디, 수전 (황성원 역), 2017, 『백래시: 누가 페미니즘을 두려워하는 가?』 파주: 아르테.

황정미, 2016, “‘불편한’ 페미니즘, ‘나쁜’ 페미니즘, 그리고 우리 안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대중서 읽기,” *페미니즘 연구* 16(2): 449-458.

홍성수, 2019,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

서,” *법철학연구* 22(3): 27–64.

Abu-Lughod, Lila, 2016[1986]. *Veiled Sentiments: Honor and Poetry in a Bedouin Society*.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hearn, Laura, 2001a, *Invitations to Love: Literacy, Love Letters, and Social Change in Nepal*,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_____, 2001b, “Language and Agenc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0: 109–137.

Bauman, R., Briggs, Charlse L., 1990, “Poetics and Performance as Critical Perspectives on Language and Social Lif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9: 59–88.

Bennett, W. Lance, Segerberg, Alexandra, 2012, “The Logic of Connective Ac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5): 739–768.

Besnier, Niko, 1995, *Literacy, Emotion and Authority: Reading and Writing on a Polynesian Ato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Blewett, Kelly., Janine Morris, Hannah J.Rule, 2016, “Composing Environments: The Materiality of Reading and Writing,” *CEA Critic* 78(1): 24–44.

Blommaert, Jan, 2017, “Society through the Lens of Language: A New Book at Social Groups and Integration,” *Tilburg Papers in*

Culture Studies 178: 1-25.

_____, 2018, *Durkheim and the Internet: On Sociolinguistics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London: Bloomsbury Academic.

_____, 2019, “From Groups to Actions and back in Online-offline Sociolinguistics,” *Multilingua* 38(4): 485-493.

Blommeart, Jan., Varis, Piaa. *Enoughness, Accent and Light Communities: Essays on Contemporary Identities..* Tilburg: Babylon Center.

Bucholtz, Mary, 1999, “Why be Normal?: Language and identity practices in a community of nerd girls,” *Language in Society* 28: 203-223.

_____, 2004, “Changing Places: Language and Woman’s Place in Context,” in Mary Bucholtz (ed.) *Language and Woman’s Place: Text and Commnetarie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urnett, Cathy., Guy Merchant, Kate Pahl, Jennifer Rowsell, 2014, “The (Im)matteriality of Literacy: the Significance of Subjectivity to New Literacies Research,”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35(1): 90-103.

Davis, Shardé M, 2018, “Taking Back the Power: an Analysis of Black women’s Communicative Resistance,” *Review of Communication* 18(4): 301-318.

De Fina, Anna, 2008a, “Analysing Narratives as Practices,” *Qualitative Research* 8(3): 379–387.

_____, 2008b, “Who Tells Which Story and Why?: Micro and Macro Contexts in Narrative,” in A. De Fina and A. Geogakopoulou (eds.), *Narrative Analysis in the Shift from Text to Practices, Special Issue Text and Talk* 28(3): 421–442.

Ehrlich, Susan, 1999, “Communities of Practice, Gender, and the Representation of Sexual Assault,” *Language in Society* 28(2): 239–256.

Ervin-Tripp, Susan, 1972, “On Sociolinguistics Rules, Alternation and Co-occurrence,” in John Gumperz and Dell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pp. 213–250,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Gallaway, Julie H., Alexandra Bernasek, 2004, “Literacy and Women’s Empowerment in Indonesia: Implications for Policy,” *Journal of Economic Issues* 38(2): 519–525.

Hwang, Juck-Ryoon, 1975, “Role of Sociolinguistic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Imran, Muhammad, Yuee Chen, Xiafei Matthew Wei, Samina Akhtar,

2020, “Veiled Courage: Inside the Women’s Resistance against Violence their Writing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6(1): 74–93.

Keane, Webb, 2016, *Ethical Life: its Natural and Social Histo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ng, Carolyne M., 2019, “The Reader in the Textbooks: Embodied Materiality and Reading in the Writing Classroom,” *Composition Studies* 47(1): 95–115.

Labov, William, 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Labov, W., J. Waletzky, 1967, “Narrative Analysis: Oral Versions of Personal Experiences,” in J. Helm (ed.), *Essays on the Verbal and Visual Arts*.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Lakoff, Robin, 1975, *Language and Woman’s Place*. New York: Harper&Row.

Lave, Jean., Etienne Wenger, 2010[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ller, Mev, 1999, “Feminism and Literacy for Women: Politics and Resources,” *Feminist Collections: A Quarterly of Women’s Studies Resources* 21(1): 3–5.

Radway, Janice A., 1984,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Raheja, Gloria Goodwi., Ann Grodzins Gold. 1994. *Listen to the Heron's Words: Reimagining Gender and Kinship in North India*.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ockhill, Kathleen, 1987, "Gender, Language and the Politics of Litera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8(2): 153-167.

Robinson-Pant, Anna, 2008. "Women, Literacy, and Development: Overview," in B.V. Street and N.H. Hornberger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2nd Ed. Volume 2 Literacy*: 179-190.

Sacks, Harvey, E. Schegloff, G. Jefferson,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696-735.

Street, Brian, 1984, *Literacy in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nnen, Deborah,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William Morrow.

Uniyal, Ranu, 2018, "Voices of Resolution and Resistance in Indian Women's Poetry," *Zeitschrift für Anglistik und Amerikanistik* 66(1): 11-17.

Varis, Pia, Blommaert, Jan, 2015, “Conviviality and Collectives on Social Media: Virality, Memes, and New Social Structures,” *Multilingual Margins* 2(1): 31–45.

Walker, Jonathan, 2013, “Reading Materiality: The Literary Critical Treatment of Physical Texts,” *Renaissance Drama* 41(1-2): 199–232.

Weegmann, Martin, Piwowoz-Hjort, Ewa, 2009, “‘Naught but a story’: Narratives of successful AA recovery,” *Health Sociology Review* 18(3): 273–283.

Wenger, Etienn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Young, Iris Marion. 1994. “Gender as Seriality: Thinking about women as a Social Collective,” *Signs* 19(3): 713–738.

<정기 책모임 도서 목록>

강화길 · 손보미 · 임솔아 · 지혜 · 천희란 · 최영건 · 최진영 · 허희정, 2020, 『사라지는 건 여자들뿐이거든요』, 서울: 은행나무.

권김현영, 2020,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 폭력의 시대를 넘는 페미니즘의 응답』, 서울: 휴머니스트.

김지은, 2020, 『김지은입니다: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서울: 봄알람.

김은실 · 권김현영 · 김영옥 · 김주희 · 김현미 · 민가영 · 손희정 · 신경아 · 이현재 · 장이정수 · 전희경 · 정희진 · 최현숙, 2020, 『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 서울: 휴머니스트

뒤센베리, 마야 (이유림 · 김보은 역),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 은밀하고 뿌리 깊은 의료계의 성 편견과 무지』, 고양: 한문화사.

루티, 마리 (김명주 역), 2017,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진화심리학이 퍼뜨리는 젠더 불평등』, 파주: 동녘사이언스.

밀러, T. 크리스찬, 켄 암스트롱 (노지양 역), 2019,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 피해자 없는 범죄, 성폭력 수사 관행 고발 보고』, 서울: 반비.

본스타인, 케이트 (조은혜 역), 2015, 『젠더 무법자: 남자, 여자, 그리고 우리에 관하여』, 서울: 바다출판사.

이민경, 2016,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서울: 봄알람.

정세랑, 2020, 『시선으로부터』, 파주: 문학동네.

추적단 불꽃, 2020,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파주: 이봄.

혹스, 벨 (이경아 역), 2017,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파주: 문학동네.

한 채윤, 2019, 『여자들의 섹스북: 우리 모두 잘 모르는 여자들의 성과 사랑』, 서울: 이매진.

<인터넷 자료>

경향신문, “‘응답하라’ 20대 여성들, 페미니즘 도서 열풍 이끈다,”
2016.8.9.일자.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1608092100015>
(2020.8.31. 접속)

동아일보, “스타 작가 속속 귀환 ‘이름값’ … 페미니즘 도서 거센
열풍,” 2017.12.21.일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1221/87844252/1>
(2021.11.19. 접속)

달나라딸세포 0호, “딸됨의 정치학에 대하여,”

<http://dalara.jinbo.net/webzine0/second-gen.html> (2021.8.15. 접속)

우리말 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130132&viewType=confirm (2021.10.24. 접속)

줌마네: 아줌마를 위한 문화예술창작학교 블로그, 2013.5.15.일자.

<https://blog.naver.com/zoomanet/120189984434> (2021.8.15. 접속)

채널예스 <http://m.ch.yes24.com/article/view/32212> (2020.8.31. 접속)

파이낸셜 뉴스, “인터파크 도서, “페미니즘 논란에 관련 서적 판매
급증” ” 2015.2.25.일자.

<https://www.fnnews.com/news/201502251458302866>. (2020.09.11.
검색)

한겨레, “‘요즘 백래시 뻔뻔해졌다’ … 여성혐오 대응 네트워크
발족,” 2021.8.15.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7719.html> (2021.9.5.
접속)

Abstract

An Ethnographic Study on Literacy Practice and Sociality of Feminist Reading Club in Contemporary South Korea

Eunchae Kw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I examined a feminist reading club to explore the meaning of literacy practices and the sociality in the reading club. Affected by the feminism movement that had spread among the public through online communities and social media since 2015, the trend of reading books about feminism in a group and sharing comments about them became popular among young Korean feminists. Not only sharing their impressions of the book and exchanging comments on the social media, but they were also participating in an online–offline reading clubs to interact with other feminists. In this study, I specifically focused on the feminist reading club called ‘WeFe’, which was created by young Korean women who were eager to learn feminism and communicate with other feminists. Organized by eight female members in their 20s and 30s, they held regular meetings every two weeks to read and have

a discussion of the books. Through the club, the members wanted to learn deeper knowledge of feminism from the books and expected to build a relationship based on safety and trust.

Joining the regular meetings both online and offline, the members confided in their own private experiences as a woman referring to the stories from books with an essay the presenter of the meeting had prepared. The more they confessed, the more similarity of their individual experiences was being highlighted. In other words, personal narratives uttered by each member became generalized as common experiences that every woman in South Korea could have gone through or might have experienced before. Furthermore, the members applied clear criteria while appraising the books they read ; Is the theme of the book connected to their daily lives as a woman? and how easy the book for them to read? As commenting on the books based on these criteria, they looked for linguistic expressions or logical flows used in the book to utilize them later when they encounter sexist words and actions in daily lives. Through these literacy practices, the club ‘WeFe’ has become the safe zone where young female feminists could share private experiences and worked as a foothold where they could step on to confront a world around them.

However, even though the members empathized with each other, I found that these members could not attain the intimate relationships they had expected. The sociability of the club ‘WeFe’ was incomplete yet a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embers were neither anonymous nor intimate. Their endeavor to become intimate with each other kept being frustrated because they believed it is appropriate among feminists to keep a distance from each other. Addressing another member by an honorific title ‘님(nim)’ with her

first name only was interpreted as an egalitarian principle that should be abided in the feminist club. In addition, as prying into the other members' personal lives was also considered extremely improper, their private group chat room was filled with lots of shared hyperlinks while the responses to them were hardly found. Ironically, this attitude that 'WeFe' members tried to adhere to limits their own club to stay as a 'light' community. In other words, the amount of solidarity and empathy that members could attain through the club was not enough to make the club evolve into something more than a regular meeting. The club 'WeFe' has remained as one of many other footholds where young feminists could drop in from time to time.

In short,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young female feminists of today in South Korea learn feminist knowledge and promote their solidarity by participating in literacy practices and building social relationships in the reading club 'WeFe'. While feminism has been popularized in recent South Korea, the 'backlash' against feminism have expanded its influence on the society as well. The feminist reading club such as 'WeFe' was a 'light' community where these young feminists can identify the very presence of peer feminists and pursue solidarity among themselves, which might lead them feel safe and develop their potentials for future political resistance.

Ironically, the endeavor they put to make their reading club 'WeFe' be more like a feminist community hindered themselves from feeling a profound bond with each other. Still the club 'WeFe' allowed its members to attain a certain limited degree of sociability which was enough to make the club as a 'light' community. While it would be hard to deliver a bullish outlook for its sustainability, it would be too hasty to conclude that this kind of club is meaningless

or the goal that these members had set would be left as something unachievable. To demonstrate the potential and the limitation of the feminist reading club in terms of their role as a community, further case studies on the feminist clubs including other reading clubs should be done.

Keywords : South Korea, Communities of Practice, Literacy Practice, Sociality, Feminism, Feminist Reading Club

Student Number : 2019-24442